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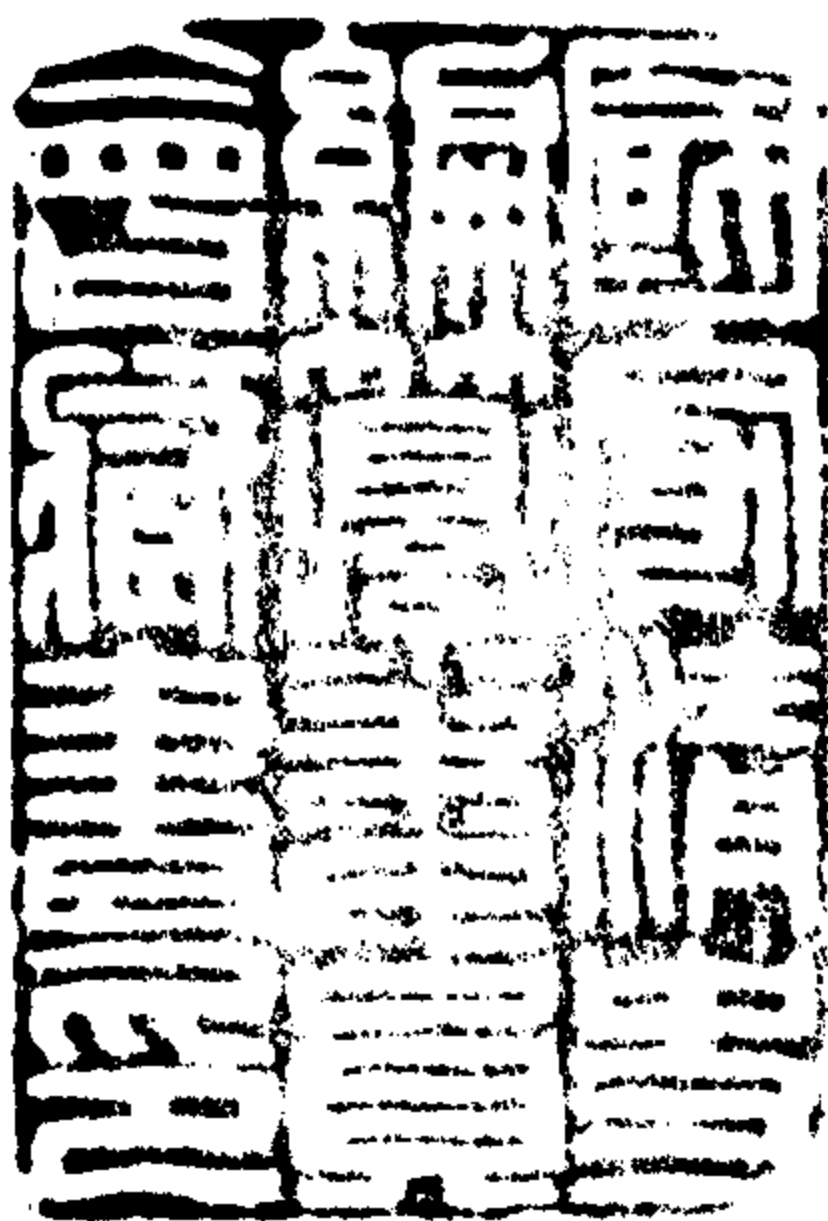
K245.001

0084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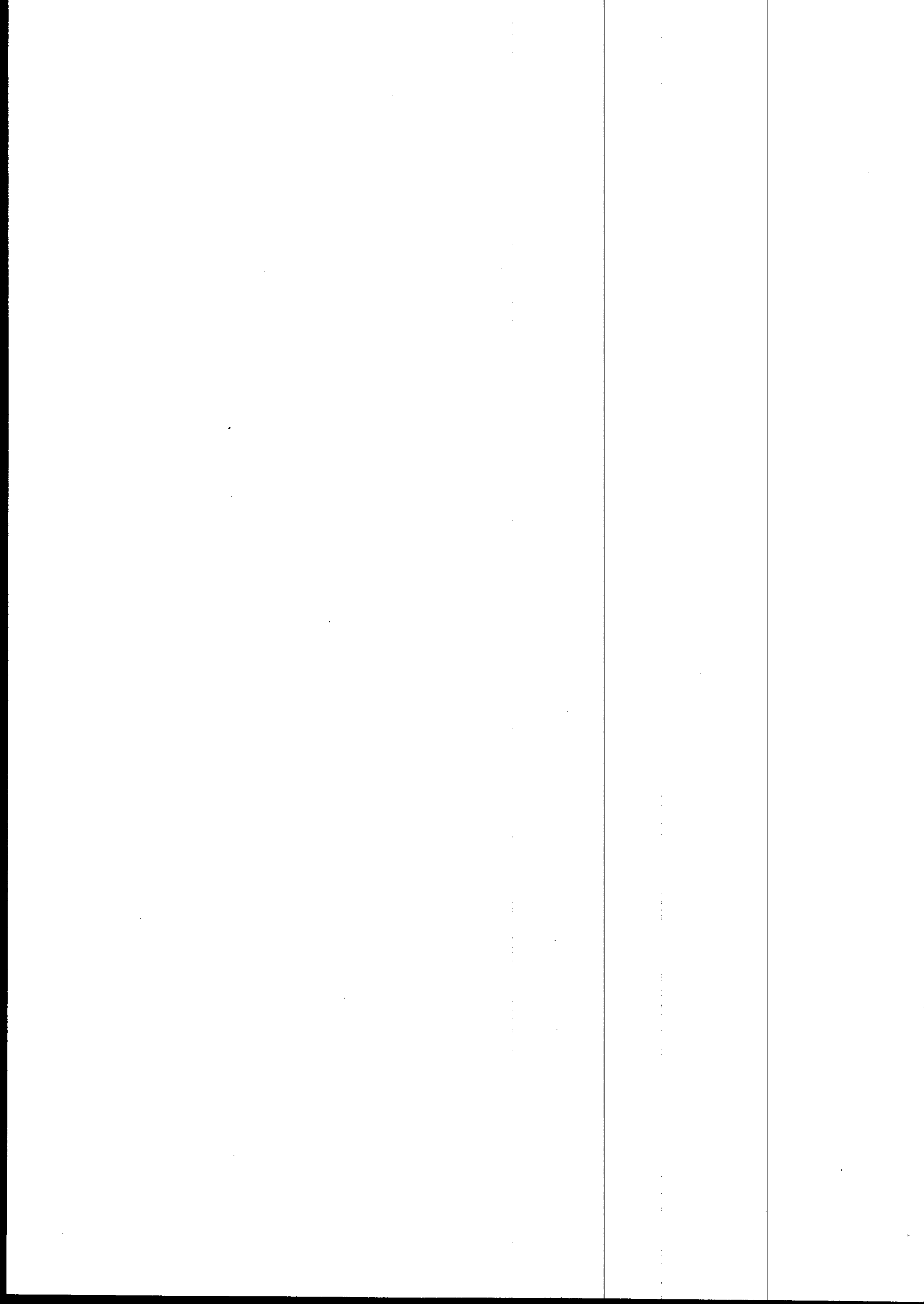
林基中編

燕行錄全集

92



東國大學校出版部



燕行錄은 韓國의 외교사절들이 明나라와 淸나라 때 中國을 다녀와서 써놓았던 우리 민족의 중요한 記錄遺産이다. 明나라 때 中國을 다녀온 기록은 朝天錄이라 이름 붙인 것이 많고, 淸나라 때 中國을 다녀온 것은 燕行錄이라 이름 붙인 것이 많다. 그래서 흔히들 朝天錄과 燕行錄이란 用語를 그렇게 辨別하여 使用하려고 하는 傾向도 있다. 그러나 明나라 때 中國을 다녀온 記錄에도 燕行錄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있어서 이 책의 이름을 『燕行錄全集』이라 붙였다고 들었다. 따라서 이 책은 韓國人이 元과 明과 淸朝에 中國을 다녀와서 써놓은 中國使行錄全集인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이름 붙인다면 가령 이전 王朝의 記錄도 이 全集의 수록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며, 中國使行錄은 中國人의 使行錄으로 誤認될 素地도 있어서 燕行錄이란 이름이 無難할 것으로 여겨진다.

燕行錄은 高麗末부터 朝鮮末까지 五百餘年 동안 韓國人들이 外交的인 通路로 中國에 나가서 보고들은 見聞과 先進文物에 대한 體驗들을 自由롭고 創意性 있게 記錄한 것이다. 여기에는 韓國과 東亞細亞, 東亞細亞와 世界外 交의 力學關係, 公式 非公式의 國際貿易과 經濟的 狀況, 多樣한 文化交流와 尖端 學術交流 등 아주 多樣하고 많은 情報의 양이 生생한 모습으로 알알이 박혀 있다. 따라서 東亞細亞 어느 分野의 研究에서도 參考하지 않을 수 없는 尙大한 記錄의 寶庫라고 할 수 있다.

이 全集의 編者인 林基中 教授는 우리 대학 國語國文學科에서 梁柱東 教授님의 指導로 鄉歌를 研究한 분이다. 이 분은 母校의 教授로 있으면서 이미 몇 가지 學界가 注目할만한 일을 해낸 바 있다. 우리 대학의 支援으로 中國 北京大學에 專家教授로 가서 實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廣開土王碑 原石拓本 4種을 찾아내어, 그 碑文을 새롭게 읽어냄으로써 一百餘年 동안의 昏迷를 거듭해온 東亞細亞 學界에 새로운 研究地平을 열었으며, 얼마

전에는 韓國의 歌辭文學原典을 모두 모아 『歷代歌辭文學全集』 全 50卷을 펴낸 바 있다. 이 作業은 우리 대학과 韓國政府의 支援을 받아 韓國歌辭文學 註釋研究로 계속 進行되고 있어 머지않아 學界에 크게 寄與할 수 있는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믿는다. 이번의 『燕行錄全集』은 國內外에 散漫하게 흩어져 있어 그 全貌나 實體把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資料들을 林教授께서 30年 가까이 執拗하게 蒐集하여 이를 整理해낸 東亞細亞關係史料의 한 集大成이다. 이 全集은 그 編輯期間만해도 一年六個月이나 所要된 巨帙이다. 이것을 우리 대학이 開校 百周年을 앞에 두고, 全 100卷의 全集으로 出版하여 東亞細亞 學界에 내놓게 된 것은 참으로 榮光된 일이며, 東國學統의 底力을 새삼스럽게 確認할 수 있는 快舉가 아닐 수 없다. 이 全集에 漏落된 것은 林教授께서 私費出版으로도 續編을 펴내 마무리할 意志를 가지고 準備를 繼續하고 있으므로 不遠 그 뜻이 成就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現在 世界는 人文學의 危機라는 또 다른 도전에 直面해 있다. 이런 狀況論理 속에서 韓國人文學이 世界的인 競爭力을 確保하기 위해서는 그 든실한 土臺 마련을 하면서 새롭게 出發할 必要가 있다. 이 『燕行錄全集』은 그러한 側面에서도 世界 學界에 여러 모로 寄與할 수 있을 것으로 展望하면서 여러 經濟的인 負擔을 무릅쓰고 韓國과 東亞細亞 學界를 위해서 이 全集을 세상에 내놓기로 勇斷을 내린 것이다. 아무쪼록 이 全集이 韓國은 물론이고 東亞細亞와 世界 學界에 크게 寄與하는 바가 있기를 바란다.

2001年 8月 10日

東國大學校總長 宋錫球

人文學은 探究의 對象이 自由롭고 廣範하다. 人文學은 知識을 삶의 直接的 手段으로 應用하려는 自然科學이나 社會科學과는 달리 知識이 그런 實用性에서 無限히 自由로 위질 수 있게 하려는 學問이다. 人文學은 豊富한 對象을 통해서 생각하기, 말하기, 글 쓰기, 行動하기를 重視하는 學問이다. 생각하기의 靈感性和 多樣性, 말하기와 글 쓰기의 體系性,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한 行動하기는 삶의 質을 높이고 人間 社會를 圓滑히 돌아가게 하는 原動力이 된다. 따라서 人文學은 人間의 삶을 支撐하는 土臺라는 側面에서 볼 때 恒常 基礎學問이라는 本質的 屬性을 가지고 있다. 이 『燕行錄全集』은 韓國 人文學의 土臺가 되기에 充分한 資料의 하나이다.

燕行錄은 朝鮮王朝 5百年 동안 韓國과 中國 사이의 交涉關係를 自由롭게 記錄한 우리 民族의 記錄遺産이며 당시 韓國과 東亞細亞, 韓國과 世界 여러 나라와의 交流에 關한 가장 尙大한 記錄이다. 燕行錄은 東亞細亞의 文學과 哲學, 文化와 歷史, 外交와 交易, 學問과 批評 등에 關한 실로 廣範하고 多樣한 記錄의 寶庫이다.

나는 한글보다 漢文을 먼저 배운 世代이다. 내가 처음 文字를 接한 것은 한글이 아니라 漢字였다. 내가 할아버님께 推句를 배울 무렵에 나는 할아버님께 유충렬전을 읽어 드렸다. 推句는 謹嚴한 音聲으로 統制되었으나 유충렬전은 재미있는 想像의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러나 그 후 나는 점점 繼續되는 中國文化의 餘震 속에 彷徨하면서 正작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아나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 같은 混亂에 빠져들 때가 많았다. 내가 韓國文學을 專攻하게 된 것은 中國學이 아닌 韓國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韓國人의 생각을 韓國式의 글자와 韓國式의 글 쓰기 方式으로 쓴 文學은 西紀 42年頃の 龜旨歌라는 노래가 처음이다. 그 뒤에 漢字를 빌어서 鄉札이라는 韓國式 글자로 쓴 鄉歌文學이 나타나며, 이어서 우리 글자로 쓴 한글문학이 나타나 오늘에 이르렀다. 다

른 한편으로는 紀元前 17年 韓國人의 생각을 中國式의 漢字와 中國式의 글 쓰기 方法으로 쓴 黃鳥歌라는 作品이 있다. 이러한 傳統을 잇는 文學이 三國과 高麗를 거쳐서 朝鮮王朝 末까지 韓國人의 생각하기와 글 쓰기 方式의 主流를 形成하여 왔다. 이와 같은 韓國文學의 두 갈래의 흐름이 있기는 하지만, 두 갈래 모두 中國文化와 軋수 없는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나는 韓國文學의 中國影響 問題를 綿密하게 살펴보지 않고서는 韓國文學의 獨創性을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먼저 韓·中文學의 影響의 授受關係를 살펴보고 하였다. 文獻記錄을 根據로 證據를 提示할 수 있는 影響의 通路를 찾다보니 燕行錄이라는 큰 鑛脈이 發見된 것이다. 그래서 燕行錄을 調査하기 始作한 것이 1970年代 中반이다. 틈틈이 燕行錄을 調査하여 目錄을 만들고 資料를 모으는 일을 1978年 말까지 繼續하였다. 그 結果 豫想 밖으로 그 量이 尙大하고 몇 년 안에 다 찾아내서 整理할 수 있는 作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찾아낸 資料마다 대체로 前人未踏의 새로운 것들이 많아서 그것을 읽는 時間 또한 몇 년 안으로 될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그 무렵 恩師님 몇 분께서 學位論文을 提出하지 않고 燕行錄의 世界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를 보고 強力하게 方向轉換을 要請하였다. 燕行錄으로 韓·中文學의 影響 授受關係를 밝혀 學位論文으로 提出하려던 꿈을 不可避 점을 수밖에 없는 狀況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는 처음 構想하였던 順序를 바꾸어 鄉歌研究로 學位論文을 쓰고, 燕行錄研究는 다음 차례의 研究課題로 삼기로 하였다. 未練을 버리지 못하고 그 후 繼續 資料를 蒐集하여 오던 터에 1980年代 母校의 부름을 받고 研究室을 東國大學校로 옮기게 되었다. 木覓山이 바라보이는 研究室에 들어가던 첫날 나는 三希堂이라는 堂號를 만들어 걸었다. 大學時節부터 構想하였던 세 가지 學問의 바람을 이루어 보려고 發願을 담아서 걸어본 것이다. 세 가지의 發願이란 첫째 새로운 方法의 鄉歌 研究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鄉歌의 正確한 現代語譯, 둘째 歌辭文學의 原典全集 編纂과 그 註釋全集 出刊과 그 研究, 셋째 燕行錄 原典全集 編纂과 重要한 燕行錄의 翻譯全集 出刊과 그 研究였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成就된 것이 별로 없다. 첫째 것은 『新羅歌謠와 記述物의 研究』와 『우리 의 옛 노래』로 출간되었고, 둘째 것은 『歷代歌辭文學全集』으로 出刊된 바 있으며 進行中인 歌辭註釋作業이 그것

이다. 그중 燕行錄의 研究는 평 대신 담으로 끝날 공산이 가장 커서 이 全集이라도 서둘러 펴내 學界에 多少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出版을 決心하였다. 그 동안 枝葉적으로 接近하여 보았던 『燕行歌辭原典 研究』와 『燕行錄研究』는 校訂 중에 있으므로 早晚間 出刊 될 것이다.

燕行錄은 大略 5百餘種이 存在할 것으로 推定된다. 그러나 내가 確認한 것은 400餘種이다. 앞으로 繼續하여 追跡調査를 해볼 計劃이다. 그중 380餘種을 모으는데 걸린 時間과 努力, 經濟的인 負擔과 발품의 苦痛은 後日譚으로 남길 수밖에 없다. 나는 몇년 전에 民族文化推進會에 韓國文集의 影印本 出版을 提案한 일이 있다. 그때 國庫로 影印本을 出版한다고 하여 學界에 否定的인 見解들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 들은 바 있다. 그러나 오늘날 그 作業이 韓國 人文學界에 얼마나 많은 寄與를 하고 있는가는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燕行錄全集』도 이번 出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障壁들이 隨時로 이 일의 推進을 가로막아 왔다. 그런 고비 고비마다 성균관대학에서 출간한 『燕行錄選集』 두 권과 民族文化推進會에서 翻譯 出刊한 『國譯 燕行錄選集』 몇 권이 많은 慰勞를 하여주었다. 그리고 中國과 日本에서 이 全集의 出版이 궁금하여 일부터 찾아와 激勵하여 준 學者들과 國內의 뜻 있는 學者 몇 분의 激勵가 큰 慰勞가 되었다. 특히 韓國의 高柄翊 교수, 李佑成 교수의 指導助言과 黃元九 교수, 朴泰根 교수의 激勵가 많은 힘이 되었다. 中國 北京大學의 樂黛雲 교수, 浙江大學의 金健人 교수, 日本 京都大學의 夫馬進 교수의 激勵도 큰 힘이 되었다. 나와 이분들의 생각은 이번에 出版하는 『燕行錄全集』이 15世紀부터 20世紀까지 東亞細亞의 一級史料라는데 認識을 같이 하고 있었다. 燕行錄은 東亞細亞의 政治·經濟·外交·學術·文化에 관한 가장 自由로운 記錄이며 가장 彪大한 記錄遺産이다. 그리고 燕行錄의 擔當階層은 東亞細亞를 이끌어간 最上層部에 속하는 特殊集團이다. 燕行錄은 東亞細亞뿐 아니라 世界에 하나밖에 없는 特殊한 類型的인 記錄遺産이다.

이 책이 東國大學校 出版部에서 나오게 된 데는 特別한 因緣이 있다. 1999年 가을 中國 北京大學에서 文學·史學·哲學 分野 韓·中 學術 세미나가 있었다. 東國大學校 宋錫球 總長께서 첫날 主題發表를 하고 이어서

이들 간 두 나라學者들의 個別發表가 있었다. 宋總長께서는 異例적으로 다른 日程을 뒤로 돌리고 開會式에서부터 閉會式 때까지 이 세미나에 參與하였다. 그때 내 發表는 19世紀 燕行錄에 關한 것이었다. 發表가 끝나자 中國側의 여러 學者들이 이 問題에 많은 關心을 보였다. 中國 여러 地域의 몇 大學에서 燕行錄에 關心을 가진 研究者들이 資料 때문에 여러 번 韓國訪問을 하였으며 그 때마다 東國大學校의 어느 教授가 『燕行錄全集』을 編纂하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出刊될 것이라고 들었는데 그 일이 어떻게 進行되어 가고 있는지는 質問이 쏟아져 나왔다. 質疑應答을 통해서 딱한 出版事情을 들은 宋總長께서 韓國과 東亞細亞의 學界를 위해서 東國大學校가 『燕行錄全集』 出版하는 問題를 積極 檢討하여 보겠다는 趣旨의 말씀을 하였다. 그 다음날 宋總長께서 歸國할 때 金浦空港에 迎接 나온 東國大學校 關係者들에게 곧바로 『燕行錄全集』 出版檢討를 指示함으로써 여러 차례 번거로운 節次를 거쳐 이번 出刊에 이르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全五十五卷의 全集을 만들기로 하였으나 옛날 複寫하여 編輯해 두었던 資料들이 狀態가 좋지 않고 編輯 또한 問題가 있어서 再作業을 하는 한편 資料를 補完하다 보니 全五十五卷으로 消化할 分量을 훨씬 超過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처음 編輯이 한 쪽 한 면으로 된 것이어서 한 쪽을 네 면으로 編輯하여 全五十五卷으로 줄일 形便도 못 되었다. 一次 複寫한 原稿를 確認節次를 거친 다음에 다시 크기를 一定하게 複寫하고, 그것을 오려 臺紙에 붙여서 쪽 차례를 確認하고, 燕行時期를 찾아 그것을 燕行의 時期別로 整理·配列하고, 燕行錄 作者의 出生年代를 찾아 그것을 다시 作者의 出生年代順으로 配列하여 全一百卷으로 分冊한 뒤 卷別로 쪽을 매겨서 印刷所에 넘기는 아주 지루한 作業을 하였다. 이름 잡아 총 7萬餘張을 複寫하였으므로 重複된 資料를 골라내는 일 또한 쉽지 않았다. 編輯期間이 1年 3個月이나 걸렸으며 編輯 마무리 段階의 몇 달간은 編輯空間이 좁아서 講義室 크기의 房을 別途로 마련하여 編輯作業을 進行하였다. 이 全集의 차례를 처음에는 燕行年代順으로 配列하려고 모든 燕行錄의 作者와 燕行年代를 確認하였다. 그렇게 配列을 하여 살펴본 結果 한 作者가 여러 차례 燕行을 한 경우 한 곳에 모여 있던 作品들이 여러 곳으로 散漫하게 흩어지는 問題가 發生하였다. 이 問題를 克服하려고 한 것이 이 全集에서 택한 燕行錄 作者가 태어난 時代順 配列方法이다.

이 『燕行錄全集』은 單純하지 않은 編纂作業을 한 사람이 單獨으로 遂行하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특히 많았으며 이로 인한 得失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資料가 하나밖에 없는 行草書로 된 筆寫本 古書이거나 이런저런 資料들 속에 깊숙이 끼어 들어 있는 것을 찾아내 모은 것들이어서 冊體制의 均齊性이나 印刷의 鮮明性에 多少 滿足치 못한 部分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흠어져 가려지고, 헤쳐 消滅되어 가는 東亞細亞의 貴重한 文獻資料 燕行錄을 이렇게 한곳에 모아 책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이에 관한 그 어떠한 作業도 圓滿하게 遂行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이 全集 刊行의 가장 큰 意味이다. 이제 이 全集으로 現代活字化가 可能하고 翻譯과 註釋 作業이 可能하게 되었다. 이번에 이 全集에 수록하지 못한 作品들은 續集으로 補完하여 마무리 할 豫定이다. 續集의 마무리 段階에서 解題集을 別冊으로 出版할 豫定이다.

이 全集을 펴내는 과정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東國大學校 宋錫球 總長님의 東亞細亞 學界를 위한 出版決斷에 感謝를 드린다. 그리고 貴重한 資料를 使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明지학원 俞榮九 理事長님, 연세대 黃元九 名譽教授님, 창영성씨 이현공과 成長慶 宗會長님, 동국대학교 鄭用吉 企劃人事處長님, 尹鐘燮 辯護士님과 일일이 舉名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과 여러 關係機關에 고마운 뜻을 표한다. 일년 넘게 編輯室에서 默言으로 苦痛을 같이한 용지인쇄주식회사 金章燮 전무님의 勞苦를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感謝에 앞서 그분께 먼저 慰勞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東國大學校 出版部 家族들도 어려운 일을 맡아서 進行하느라고 勞苦가 많았다. 이 모든 분들에게 깊은 感謝를 드린다.

2001년 7월 20일

東峰涼月之室에서

林基中 謹

○ 이全集의 이름에 쓰인 燕行錄이라는 表現은 朝天錄類 燕行錄類 瀋陽日記類 漂海錄類를 모두 總括하는 用語로 쓴 것이다.

○ 이全集에 수록한 燕行錄은 寫本과 刊本 單行本과 文集本 國內本과 國外本을 蒐集하여 體系的으로 整理한 것이다.

○ 이全集에 수록한 몇種類의 燕行錄은 研究에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重要 異本을 같이 수록하였다.

○ 이全集에는 이 分野 研究에 꼭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몇種類의 燕行路程記 燕行別章帖 燕行地圖를 수록하였다.

○ 이全集에 수록한 燕行詩 赴燕詩 등은 一定한 體系를 갖추고 있어서 이 分野 研究에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것만 選別하여 수록하였다.

○ 이全集의 燕行錄은 原典의 狀態를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主眼點을 두었으나 原典을 수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不得已 現代活字로 바꾸어서 수록하였다.

○ 이全集의 燕行錄 配列은 作者의 出生年代順으로 하였으며 出生年代가 未詳일 때는 燕行年代順으로 하고 둘 다 未詳일 때는 맨 뒤로 配列하였다.

○ 이全集의 燕行錄 配列順序를 作者의 出生年代順으로 한 까닭은 燕行錄을 作者別로 한 곳에 모으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이全集의 別冊 目錄集에는 作者出生年度順 目錄 燕行年代順 目錄 燕行錄 이름의 가나다順 目錄 作者 이름의 가나다順 目錄을 別途로 作成하여 누구나 찾아보기 쉽도록 配慮하였다.

○ 이全集에 수록하지 못한 國內本과 國外本은 곧 이어서 燕行錄全集 續集으로 續刊할 豫定이다.

○ 이全集의 編輯이 마무리 될 때까지 編者가 入手하지 못한 燕行錄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東亞細亞의 學界를 위하여 續

集에 있는 꼭 들이 갈 수 있도록 아래 資料의 所藏者들께서 積極 協助하여 주시기를 懇曲하게 付託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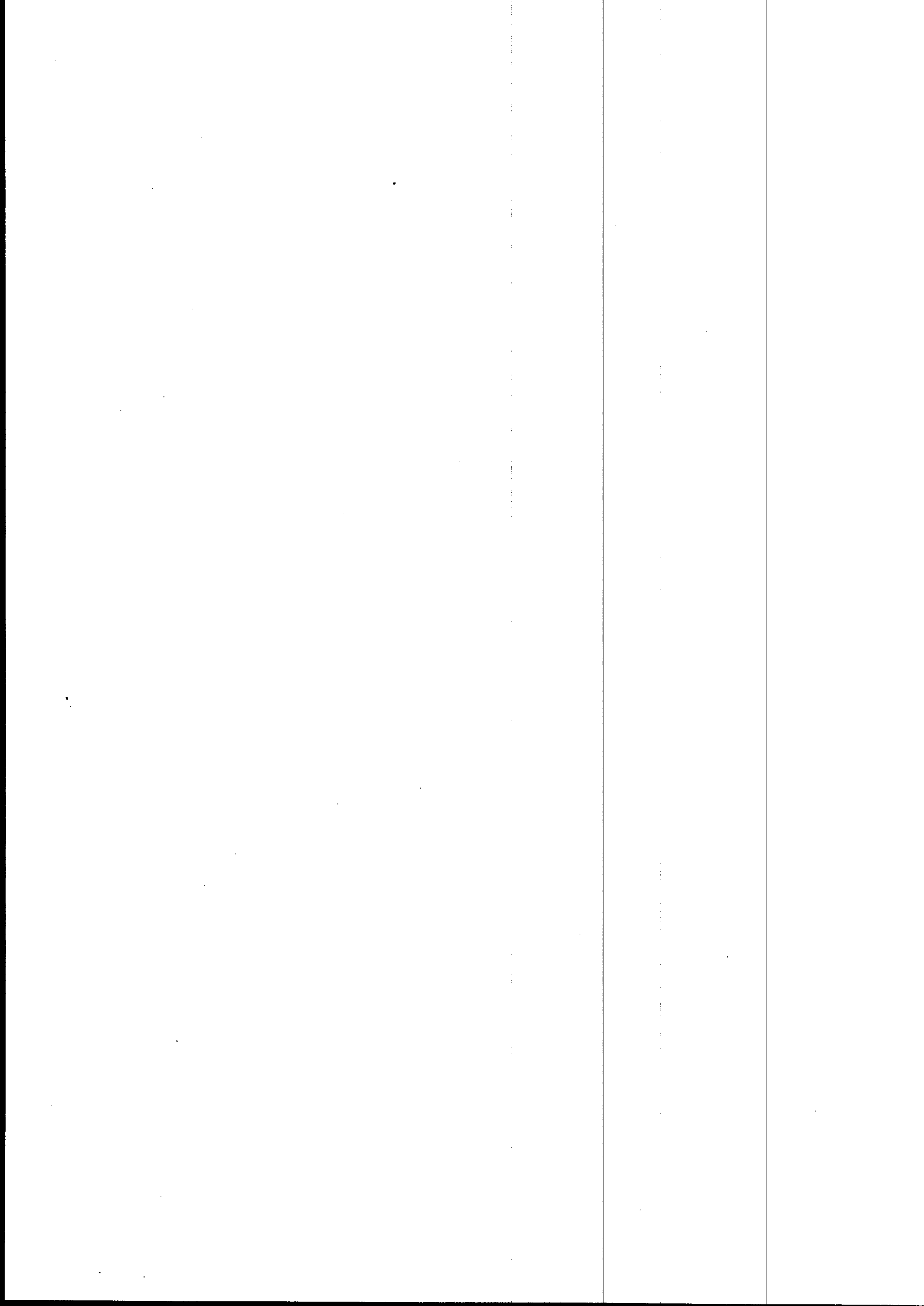
(電話) : 02-543-5415° 02-2260-3146° FAX 02-543-5485° 02-2263-7093° e-mail: limkz@dongguk.edu

- 갑인연행록(甲寅燕行錄) 황재(黃梓) 1689() 필의재유고(畢依齋遺稿) 英祖10雍正12甲寅 1734
- 경오연행록(庚午燕行錄) 황재(黃梓) 1689() 필의재유고(畢依齋遺稿) 英祖26乾隆15庚午 1750
- 경오유연일록(鏡泊遊燕日錄) 임백연(任百淵) 1802-1866() 경오유연일록(鏡泊遊燕日錄) 2冊 憲宗2道光16丙申 1836
- 금령연사초(錦齡燕槎抄) 이상(趙仙謫) 금령연사초(錦齡燕槎抄) 1冊
- 북연기행(北燕紀行) 이노춘(李魯春) 1752() 북연기행(北燕紀行) 한글본 正祖(乾隆48癸卯) 1783
- 북원록(北輓錄) 이상봉(李商鳳) () 북원록(北輓錄) 5冊?
- 북유만록(北遊漫錄) 이호민(李好敏) 1762() 간산북유록(簡山北遊錄) 純祖21道光26辛巳 1821
- 북행일기(北行日記) 나덕헌(羅德憲) 1573-1640() 장암집(莊巖集) 卷2 仁祖14崇德1丙子 1636
- 사양재외집상봉록(四養齋外集桑蓬錄) 최호부(崔浩溥) () 사양재외집상봉록(四養齋外集桑蓬錄) 6冊 憲宗5道光19己亥 1839
- 상봉록(桑蓬錄) 최호부(崔浩溥) () 상봉록(桑蓬錄) 2冊 憲宗5道光19己亥 1839
- 수사록(隨槎錄) 한필교(韓弼敎) 1807-1878() 수사록(隨槎錄) 3冊 憲宗5道光19己亥 1839
- 수사한필(隨槎閑筆) 권복인(權復仁) 純祖(때) 수사한필(隨槎閑筆) 1冊 純祖22道光2壬午 1822
- 수로도천록 미상()? 수로도천록 사본1冊 仁祖2天啓4甲子 1624
- 시북선생노정기(市北先生路程記) 남이웅(南以雄) 1575-1648() 시북선생노정기(市北先生路程記) 1冊 仁祖4天啓6丙寅 1626
- 심행록(溍行錄) 윤홍금(尹弘禽) 1641() 심행록(溍行錄) 1冊 肅宗24康熙37戊寅 1698
- 연사록(燕槎錄) 정원용(鄭元容) 1783-1873() 연사록(燕槎錄) 1冊 純祖31道光11辛卯 1831
- 연사수록(燕槎隨錄) 이삼은(李三隱) () 연사수록(燕槎隨錄) 1冊(卷3-4)?

- 연사일기(燕樣日記), 정희영(鄭羲永, 哲宗 때), 연사일기(燕樣日記) 1册, 哲宗 14 同治 2 癸亥 1863
- 연사필기(燕樣筆記), 정○○(鄭○○, 朝鮮 東亞大), 연사필기(燕樣筆記) 2册,
- 연행록(燕行錄), 김노경(金魯敬, 1766-1840), 연행록(燕行錄), 16册, 純祖 22 道光 2 壬午 1822
- 연행록(燕行錄), 이정운(李鼎運, 1743-?), 연행록(燕行錄) 1册, 正祖 8 乾隆 49 甲辰 1784
- 조천록(朝天錄), 이석형(李石亨, 1415-1477), 저천유고(樗軒遺稿), 世祖 5 天順 3 己卯 1459
- 연행시(燕行詩), 조석명(趙錫命, 1674-1753), 묵소집(墨沼集) 卷1, 景宗 2 康熙 61 壬寅 1722
- 연행일기(燕行日記), 박제인(朴齊寅, 哲宗 때), 연행일기(燕行日記) 3册, 哲宗 11 咸豐 1 庚申 1860
- 연행일록(燕行日錄), 미상(?,?), 연행일록(燕行日錄) 1册, 純祖 31 道光 11 辛卯 1831
- 연행일승(丁酉燕行日乘), 심지원(沈之源, 1593-1662), 만사유고(晩沙遺稿), 孝宗 8 順治 14 丁酉 1657
- 연행잡기(燕行雜記), 홍대용(洪大容, 1731-1783), 연행잡기(燕行雜記) 2册, 英祖 42 乾隆 31 丙戌 1766
- 연행록, 미상(?,?), 연행록(燕行錄) 1册?
- 일암연기(一庵燕記), 이기지(李器之, 1690-1722), 일암연기(一庵燕記) 5册, 肅宗 46 康熙 59 庚子 1720
- 정유연행일승(丁酉燕行日乘), 심지원(沈之源, 1593-1662), 만사유고(晩沙遺稿) 卷3, 孝宗 8 順治 14 丁酉 1657
- 조천일기(朝天日記), 최기(崔沂, 1553-1616), 조천일기(朝天日記) 1册, 宣祖 40 萬曆 35 丁未 1607
- 조천행록(朝天行錄), 황진(黃進, 1542-1606), 서담집(西潭集), 宣祖 20 萬曆 15 丁亥 1587
- 조천록(朝天錄), 이덕형(李德炯, 1566-1645), 죽천유고(竹泉遺稿) 1册, 仁祖 2 天啓 4 甲子 1624
- 천행록, 이덕형(李德炯, 1566-1645), 천행록, 坤, 1册, 仁祖 2 天啓 4 甲子 1624
- 지정연기(芝汀燕記), 원재명(元在明, 1763-1817), 지정연기(芝汀燕記) 1册, 純祖 4 嘉慶 9 甲子 1804
- 한포재사행일기(寒圃齋使行日記), 이견명(李健命, 1663-1722), 한포재사행일기(寒圃齋使行日記) 1册, 肅宗 24 康熙 37 戊寅 1698
- 해사조천일록(海槎朝天日錄), 오윤겸(吳允謙, 1559-1636), 추탄유집(楸灘遺集), 光海 14 天啓 2 壬戌 1622 (p. 37)

— 차례 —

• 연행록(燕行錄)	고시홍(高時鴻) ? — 八五九 — ?)	92	111
• 연행일기(燕行日記)	미상(未詳) ? — ?)	92	119





燕行錄

蓋歲在

丙午

上之十一年己未之十月二十八日 甲子 命以冬至使

狀官詣 朝與上使台 李亨 副使命 林泳 洙 八仁政

殿三使臣百官序立行禮畢入侍自 上下教曰西路

列邑屢經歉荒民疵政瘼詳細咨詢以來也三使臣俱

伏地受 命因 賜人各耳掩一囊丹木三段胡椒

一囊祇受後因下直 越慕華館是日曉微雨

文書查對畢即與各司員別登車越舞鶴瀆

族孫前寶城 與濟並及他處 伴符與

備依幕小憩登程一行員役或先或後及逐促鞭至

將論海高陽迎站已恭待

食物等節不過窮鄉迎賓時需頗可笑也從行次

會本倅李 請謁雲詒旋辭卽退燈 是日行四十里

二十九日乙丑晴往見上副房卽還諭禮房曰今番此行三
房何其草也耶禮房答以此行簡率爲上煩率爲下也頃
罷發高陽先行以從六代祖妣墳墓在坡州而取道省掃
故也到新酒店本府舉行已未待乘步轎由草路至禹達里
直奴家程路殆近十里而諸君皆隨後至歇站食物給直漢
直向墓所省拜由徑至府副房行已到倅備朴君 敬榮自
京始發亦未到少頃副房令來見雲詒本官 請
謁旋辭傳令開城府軍令以鷄三鳴後分付卽退燈 是日
行四十里

十一月初一日 丙寅

鷄鳴後起初以下盥漱倚枕待明聞

自外傳語則夜間雨下泥塵少歇矣。晨食後具油帳登

車時地閉東雨亦狀晴發坡州到長湍日氣雖陽風勢

甚消入次中火上副房皆躡後入來時承文院書吏告以

咨文一張有誤點不可不改寫查對云即具總狀往

房了事旋發至吹笛橋望見松嶽山氣勢凌極過於三角

欲為周覽而風高寒劇轆憲四下咫尺山川都不省記

突至索駝橋問巷市塵頓有京城物態然而衣尚白着

用簷笠戶多圍南其風土人請亦可尚已茶罷後經歷

金顯素親切間請謁總話之後往見上副房歸館飲

粟米飲府內居同宗執來見設酌以罷軍令待破藩分

付即退燈是日行四百里

初二日丁卯晴鷄三鳴早起戒行禪經未盡此去青石洞

險不可乘輿代用步輻甚便云如其言發松都轉到
青石鎮山險路隘及越峙金川迎站已來待歇次諸具
自松都亦預備少憩後登車至郡日氣旁午風寒甚
緊茶罷先發至平山並海西山川別無具眼處而風土瘠是
窮僻態矣至府谷山支站未待甚草二府倅金炳九素親
切盛備食物未見款語數頃後往見上房而歸本邑旅人

來見設酌夜修谷山遂安兩處書軍令以平明分付即

退燈

是日行四十里

初三日 戊辰晴平明發平山至葱秀三十里免山支站已待茶罷
肩輿越小橋至玉溜泉一脈從累萬丈石壁罅間如線湧
下有石承之自成白題刻乃大明人朱之華也摩澤食
頃爰不能捨去午後先發之令于本役坐涼人家由草路越一

覘數三村落不成貌樣入其屋，以石為瓦一間斗舍僅容膝
設酒麵以待喫了卽別由田間路至五里許復大路遂登車越
冬水涵峙始見雪行十餘里日已暮瑞興迎站未待舉燭至
府副房行已到上房行尚未及茶床至甚草二問知其信川殘
邑之出站也夕後往見上房而歸軍令以平明分付卽退燈是

日行五十里

初四日己巳早晴晚雪往見上副房及本衙發瑞興至鈞水驛
中火長連支站已未待午後發行未至鳳山十里雨雪微
作促鞭至郡觀其舉行凡節別無以此大邑有加於他矣軍
令以平明分付卽退燈 是日行六十里

初五日庚午雨雪快晴日氣溫和發鳳山先行越凍雪山嶺至黃
州牧邑樣舉行實海西名邑也茶後查對罷卽分付

妓樂登月波樓，在城頭俯臨數萬丈石壁，下則大江可容
漕艇也。乘暮舉燭入次，又續登樓未了之興，夜深乃罷。軍
令以平明分付，卽退燈。是日行四十五里

初六日 辛未 晴平朝發黃州，至中祀府日已過午。茶後副
房令及本倅來見，踞憲轉甚。未卽復謝，而夜已昏矣。軍

令以未明分付，卽退燈。

是日行五十里

初七日 壬申 晴未明發中祀申時入平壤，微雨霏，遠雲變。

十里官道物色生態，林木之蔥茂，江山之秀麗，真箇絕勝處
也。三千年古都氣像猶存，名實不虛。城勢之周遭，江流之
浩蕩，極目瞻眺，令人有古國愁也。因乘官舸，縱風入大同壘，
見練光亭，鬼城堞上縹緲之飛樓，因留累日。乘暇登覽，
缺界圓蒲，此果不偶緣也。入舍館，卽作廳而蒲灑清涼。

綺羅五六年可十三四者顏貌歌舞亦絕妙也

是日行六十里

初八日 癸酉晴查對後營門徐戴淳本府徐聯淳皆未見

穩話而罷

初九日 甲戌夜雨雪交作即入復謝自營門設樂竟日舉

燭就舍

初十日 乙亥寒風大作泥濘沒轍發平壤僅到順安王倅

金永應來見雲話旋辭

是日行五十里

十一日 丙子晴發順安未時入肅川王倅張厚植來見是日

也雖有陽氣風寒甚緊一行不堪苦極初發時距邑三十

里為日寒所迫少憩冷井店邑之西部面北二里居同宗四人

邀路設酒饌此可見百世之親情誼眷二其夜邑即未見

謝以食物至明作別以送

是日行六十里

十一日丁丑晴發肅川未時入安州此邑亦雄府也城堞之精
麗官舍之傑嵬人家之櫛比果如所聞查對後日暮風寒
一未登覽茶罷列邑守令與本營閫帥來見而自營門
有別贖感極而還涉不安矣 是日行六十里

十三日戊寅晴發安州渡清川江又一小港次渡博川上津凡三

渡津至嘉山本官上京兼官博川倅李 志昂 來見茶罷

漁川察訪金 昌獻 以夫馬差使自亦來見此邑剛山氣峻

警越嶺四五別無驍矚之處定州高生恭川白生來見而

歸 是日行五十里

十四日己卯晴味爽發嘉山越大小晨星崩又越數三峴未

時入定州倅柳 淑 以身病不即來見郭山郡守白 道鎮 來

見辭歸此邑剛山川麓惡未免胸氣而文官四十餘自云地

理未可知也高生四人尹生一人未見各饋酒饌而罷自安州至義

州四面山川摠是雪色北地之寒斯可推知矣

是日行六十里

十五日庚辰日氣甚佳發定州越九峴至郭山此邑巖石最多

古所謂巖邑也主倅白道鎮

與宣川倅李

奎燦

未見午後因

發未至十里許有一館即待敕使所也越三四峴入宣川佳處江山實

蓄眼處也定館于倚鈿樓君子亭水石清淺登眺顯敞綺羅坊甃

歌舞爛熳實平壤之亞西州之最也主倅李奎燦未見夕後三房同

就倚鈿樓携歌妓數十輩劇戲而罷歸館聽鷄就寢是日行八十里

十六日辛巳晴是日譙樂別設項莊舞消遣羈懷

十七日壬午日氣甚溫無異春陽凌晨發宣川未至三十里有一

山城即鉢山界而名曰東林雉堞完固松檜蒼鬱可五里許其

間大路坦然平易而出入皆由城門為中火鉄山館距此

拓濟永於匪所叙積懷真所謂眼終青留與飲食而旋即
作別去留之悵黯然而銷魂者也行未至二十里許又有山城
此亦鉄山界而名曰西林其城堞林樾一如東林蓋兩山城即臨
之關防咽喉也 祖宗朝經國規制若是宏遠苟得北門鎖鑰
之才烏有南城拾遺之患因到龍川館站本倅李詳考未見
而歸邑儒鮮于潤亦未見饋酒食而別夜深即退燈
是日行八十里

十八日癸未晴早發鉄山館站中火所車站顧眄左右則江山秀麗之
態亦平壤之亞也大抵西未默察地形則松都黃州平壤義州為
翹楚而人物之盛繁閭閻之構以山川之佳麗雖互相優劣而通言
之則莫相上下真所謂名勝地也越二嶺到灣府則城堞甚樹寔是
雄都名府而宏濶規模險阨形制天所以限西北也上統軍亭望

鴨綠三江襟帶隱映鶴野千里烟雲杳茫便若黃泉而登大室

不亦自小觀大者失於綏而喪所守歟茶後主尹台李參錄末見

暮川停膏登承亦以查對官未訪一場總話稍慰積阻懷也是日

行七十里

十九日甲申晴早起復謝主衙朝晚即查對因就舍鐘亭京中

書夕後見黃闕書所贖熟茶五斤足以供遠行保和之資雖初

面其情可劑也

二十日乙酉早寒晚陽往客館與主尹台看檢方物而歸此邑

接近大國物產則豐饒而價反騰踊者無乃平壤松都漢

陽等地商販輻湊賣買之所致歟所聞不如所見甚可訝

也

二十一日丙戌朝雪晚陽往上司房總話因往本府而回路上

軍亭周覽前人之題詠景物已備矣遂將拙構撤拾緒餘而歸夜深傳聞南門外失火此邑火災自前蓋多云矣

二十二日丁亥寒氣甚緊終日閉戶夜寒亦如晝實此行之難堪而前頭殊可慮也夕後主尹台方與上房軍官李進士欲題詠遣夜而有未汝之教時已解衣未往與焉因自吟統軍亭韻一首又有人來傳薛館小集故更欲次韻而未了就寢

二十三日戊子早寒晚陽白粘米四十餘石開門者檢夕後心噫至

夜感崇闈入不得安寢

二十四日己丑陽氣稍生晏起盥洗因進粥少啜獨坐無聊主尹台

設小酌見未汝之教暫往恭座因醉窮曠上副房先就舍館

余亦欲逃醉之際因主尹台之盪挽共對夕釀三更後就館

二十五日庚辰晴晏起叩櫺而坐主尹台與副房今借來一場體誌

而罷因同往上房合席酌乘昏各就館是夜微雪鋪地

二十六日 辛卯 陽氣雖生而雪意猶寒晨起巾櫛以燕行屏事

終日濛濛之際適見京中書平安二字喜不可量矣

二十七日 壬辰 晴陽氣稍溫發義州至江頭壬子台大張錢其吏

班及綺羅皆出待丹方離岑悵想可翁連渡三江之外即中原地

也江山草樹一僂生愁百十里地絕無人烟但城郭村落之舊墟

典型尚存依然如見昔日之朝市迄今二百餘年獨無陵谷之變

遷乎馬耳金石上龍三山明麗氣像宛如漢陽之三角朗州之

月出或為滔天洪水之艦或為方熾純火之勢磅礴精神魁傑形

容不可具狀名則鴨綠小西中江三江合為四江也而三江一名乃愛河

也至九連站設帳於野中火即向九連城或云此鎮江府也城堞

則陳明王所築今有遺墟歷恒頭河九連城店望隔嚴嶺

之一名襍所隔也塘之一名者云上也又歷石隅馬轉坡隅是金石
山中衙門一名質光規也坡亦一名沙窩子也夕投湯子池此亦名
溫井坪而古井甃石至今尚存矣 是日行六十里

二十八日 癸巳晴 蕩溫井坪歷乾浦細浦湯站陽山城池道孃宛
如昨日或在明時所築歟又歷葱秀站車踰犂項王八石架子
門此門卽柵門也其門百餘里許多川麓難以盡記或平原曠
野膏腴之處一望荒蕪而樹木連林只椽橋而已胡兒車騎馳
突其門而處_二燃火防戍古詩所謂山頭野火寒多燒者非此歟
申時至柵門則鳳凰城將開門引入城之距門三十里許也入其
境則第宅之異制言語之侏儻衣服之詭製都是生面也只得
見面而難以通語矣所館房櫳亦名以炕非突非廳而居處實
難堪僅得就寢 是日行五十里

二十九日 甲午 晴而風寒是日則南至也殊方客懷不禁悵然厨房

進豆粥朝晚自上房有末汝之教胡人進饌各色品制雖極精

潔而有可食不可食真異國味也乘暮歸館三更後就寢

三十日 乙未 晴而風氣尚峭往觀關帝廟及左右寺刹其殿

宇之碧瓦繡礎制度宏潤丹雘炫耀匪比於我東寺觀難筆

記因就上房宴話而歸答京書家說書姑未答夜深退燈

十二月初一日 丙申 晴羨桐門由透路十里許入內鳳城在鳳

凰山下而蓋蘇文所謂安市城至今舊墟猶存天險之莫

升果是一夫當關人敢誰何之地也唐太宗班師之故亭此可

推矣周覽寺刹及市廛則俱極萃靡雖三原村落皆立神祠

梵宇其尊尚釋教極至於此大抵中國之財用盡靡於寺觀云

者非虛語也以行促不能遍觀因中火乾子堡之名行四

半後散行入洞口則洞名卽伯顏也元將伯顏駐軍處故因以
名焉山高谷深經歷極艱越麻骨小窰北河大長崩三處凡持
燭行十里許也歷劉家河夕投黃家庄此地山川峻險行道間
關風雪夜吹氣像愁慘旅人之懷靡所底定所過處胡人男女
雜觀相顧笑語雖未通譯但所語者非以外國使未到之歎是

日行八十五里

初言丁酉晴寒氣尚峭羨黃家庄舉燭行五里許始開東歷林
家莊金鵝河橋項范家莊二道方身中火通元堡午後過石隅
和南庄其河口橋皆洞越分水高家俞家三巔夕投連山關大抵
中國里數長於我國程途而東八站尤極峻險每日窮曠所取不
餘矣瀋陽以內居民產業大率勤幹非東人之所可擬比而至於
用什物各有所長其規制可尚也

是日行九十六里

初言 戊戌晴日氣甚佳 蕨連山關越會原山嶺中 以謂水...
 青石嶺小石嶺夕投狼子山三嶺之峻險無是年賜九曲錦我東來
 雪嶺不及極此美自過瀋陽以來所居民都是快胡而胡女無所
 執事只以生育為主故到慶胡姓無不生教三子其人民之蕃息
 即此可見所過旅站驛極侈靡一宿之費則錢三四緡抵地三
 束弱子清心丸等物遠討康維虞時遊觀慶類皆如是客至
 之勢宜難地矣松林則自內鳳城十里外至青石嶺下數處皆然
 他都是椽木也冰雪則自鴨至此寒兢太甚山嶺以外則都無一點雪
 色此亦異哉所謂寒茶則自鴨至柵一百二十里座座之地則都無可論
 而自柵至瀋所耕種者黍粟稗秫豆太也而無羊麥焉公稅則以
 之耕不過五六錢身役則有土者有之無土者無之且茶種則不播也
 不日不論山連而高處則不置塚或於平原曠野往往一不土...

嶽而封形上尖且三石八許如望柱形而已自鳳城內外則山水雖極
秀麗而瞻眺之際無一杯掬色其俗果為火葬而然歟我宋之俗
惑於地理希覬陰陽而大同則如是而其子孫之居貴壽考者存
焉世與亦不可盡信矣觀其畜產之處則所經多有放羊坪而其
羣三百許意不誣焉牛驢騾雞犬猪豚之羣分類聚非乘陰之
可笑北地風土實畜產之所宜也三角取之俗則千里往來連絡不
絕無一振負者子以車馱物一車所馱穀或十餘石七八石下至五
六三四匹惟車是載其畜止之蕃息此可知矣
是日行八十里
初四日己亥晴而寒發狼子山歷頭關站越王相嶺、有王相墓
故因以名焉中火王廟甚盛一名冷井也午後歷彌阿庄水廠抵
遼東界越三大川過石門山嶺、有石如門故謂之石門者也夕投
迎水寺自此距遼更無一山嶺云矣亦有古今二遼古遼東唐

太宗勝戰處居民甚利尚今洞窟今遼東城郭之華麗人
民之蕃盛財物之都會市廛之奢靡百信於我京矣奉唐關
帝廟之左右廡有張翼德趙子龍遺像其殿宇之宏傑不可
橫寫又觀塔像則直百餘丈也而四方八面皆刻佛形層層累
數十層圍大近百餘圍以麗石與石灰造作而如此其精妙極巧
以我京之財力分數則一廟一塔未由制作真大國之規模也遼之
以東七百里無一塊山而平蕪極目茫無涯際顧我財然若大倉之
稼米大澤之豐盈空東西南北方嚮昧日始知天地之廣大矣洞庭
七百里亦如此否舉論方位則自我京歷三路則西路也自鴨綠
瀋則直北也自瀋至蘇越山海關抵薊州則又西也自薊至燕
則西南間也自資則鳳城遼瀋山海關薊州通州皇城諸處及
蘇杭山集兩浙廣東西也云

是日行八十里

初五日 陽雨風寒霧迎水寺過接官廳坊虛所三道
把中火爛泥堡午後歷烟臺鋪萬步石橋山腰鋪五里
夕投十里河堡橋此距瀋陽六十里也自遼以來右邊則大野
百里外山色點之重之隱映於雲表左邊則細無涯荒塵撲
漲天昏難開眼古人詩黃沙萬里之句果非虛語也曠漠之
間村落櫛比樹木雜植如柳遠望只是雲霧際而已自鴨綠
遼遠遼遠峻峻林木茂盛居民之推爨舉其曠三自遼外
則朝夕所燃惟石炭也林莖是已寒苦難狀夫居民則自
相至瀋清種多而漢種少自瀋至皇城漢種多而清種
少所過處清漢之接待東人厚薄懸殊漢人之不忘故鄉
可知矣 是日行五十五里

初六日 寺五 晴發十里河堡接橋屋長成度古京子少可送

皇文堡也長鋪五里其堡中大白塔堡午後歷一斯其堡內
鋪夕投漢流兩邊沙場依如我京之銅雀津一帶長河水陸
成路廣而數百步自度柵以來略論城郭庶民閭里人物市
廛之盛遠東之雄家十倍鳳城瀋陽之狀麗又倍遠東此
去燕都殿富可想矣迤右百餘里外隱映之遠山至此忽斷長天
接野方位難辨有一白塔似不及遼塔而奇巧不讓矣行入瓮城
之南門則中有四門東西南北莫適所向而六曹衙門羅列於大
闕之外闕門有守門將不得入觀市廛則房、金字揭板銅
刻懸畫、棟之朱綠玉礎之青碧其奇巧侈靡不可具狀矣
是日行六十里

初七日 壬辰晴蒞瀋陽出西城門、外又有土城門未及五里許有
乾隆嘉慶願產寺金碧珠翠制度極侈兩皇帝所賜寺矣

掛諸左右親製佛製佛徑一卷尊閣之青編玉序眩人眼目寺
側有老松二章檀香一株甚古怪直房有蒙古僧著黃衣者
身且有蒙古大人云故往見之則大人又手禮近余亦拈因欲進
茶辭以路北及出寺門望見一松林大處云是順治肇基王跡之
所也陵寢亦在標以白塔之高二五丈以路左未往觀歷白
塔橋捷路作行望見方士村大坪周圍作一大港其廣可數百步
其深亦三四丈積水闌干徑涉成路如是者兩港而後薄僅渡
投永安橋此則皇帝陵幸之路也橋形影妙後乃左右築路強
勝於我幸之橋梁矣 是日行三十三里

初八日發而晴談永安橋歷大方身渡磨刀橋中大白邊站之
一石老邊城也無乃古時成卒老於邊城故有是名也歟乎後
聖神農庄夕投孤塚于此示大都會也來而往實充滿道路

車輪輻湊觀其輪制則與我國大同而小異或以十序形或十字加畫或以文未形亦有以鉄葉兩邊而鐵釘則與我國馬鐵之制為車有大小大車則載卜小車有屋貴人所乘者也鐵羅錦備極其華殆勝我京之輦軒矣自柙抵燕京一車之費三十兩以我國錢計之則一百八十兩乘車極難矣錢貨則其規不一自開國以來世改錢名行貨則自順治至咸豐而互相通用道光以後銀貨極貴始用大小錢中錢則如扇環而至薄此所謂鵝眼錢也自柙以內雜用大小錢而滎陽則不用小錢滎陽以後則或用或不用至皇城則雜用云且有當十錢此則新鑄錢也一錢當十錢故謂之當十錢一國之錢貨如是雜錯而朋又用楮幣其財貨之罄竭可知矣

是日行五十里

初九日甲辰晴發孤家子越周流四其廣教百步乘水僅渡其

北有一城，城址在鞏昌國是，唐方南，意表遠，將防戍之處，字過西
唐字五渡河，四子堡中大新氏屯，此亦大都倉也，列屋開化，實無
異，遠藩謠傳，汗自藩征北時，此土人民先降，助力故，除役而謂
之新氏，或言此地空虛，難守，故移民居此，而謂之新氏，未詳孰
是，午後，歷小大黃旗堡，柳河溝，石獅子營，房夕投白旗堡，兀
此小大黃白旗為表者，無乃古昔戰場，立旗之地，故因以名，與站
營，房一名古城子，此亦古時築城之所，歟，無標屋如此，只掛一椽，以
泥灰塗之，或曰漢人，漢世如無標，故作此屋，以別漢清，云路過一
有負自廣寧，乘車而來，車平而餘人皆乘健馬，或帶長劍，
或提槍砲，從而閱之，則往藩陽捕賊，云蓋中國之法，捕賊則盡
戮，乃已，頃過藩陽，聞方戮數十賊徒，云此行，莫是跟捕，其餘
故盛平徒，而往，教自遼以來，左邊則不見山形，而右邊則成鏡道。

白頭山脉連綿百餘里而脈絡中斷數日不見矣至周流河野中

忽復見二大陵平地突起行四五十里又有二峰隱現於雲霧之表

不知自何處來龍續而既絕而復現乎蓋莽蒼起伏非席

地與造化真不可強觀矣

是日行八十里

初十日_己朝陰晚陽發白旌堡歷小白旌堡新方一板門之一

名牛莊門又歷靠山屯之一名王家庄又一各王八蓋于夫庄其一

稱多襲人姓者昔人金盛時置別庄於此地因以見稱歟中火

二道并午後歷神隱寺金家窩棚古家子胡家窩棚新莊築

路自此止歷一小嶺即月峰山未龍也自今_此右邊山脉或斷或

連越廣野而為山左邊亦有一山不知自何落來者也地理之四

象不可測矣胡人性好植木而白楊木最茂盛者故木材不槿

無原不植望之隱若有相守底竟歷土井十里杠子烟甚

大明時整頓之所也平曠之野無可登望處以甃築其地廣可
數百圍高亦數百丈置烽燧庫以備不虞今為崩頽猶留
其名自此以後往有甚前朝舊蹟感人多笑之投小黑山是

補卷一百一十一

十日丙午朝寒晚陽發小黑山歷羊腸河中火中安堡午後過于
家古八望崖二甚隆子太古家子夕投廣寧茲自此右邊山形連
續不絕而勢圍于野蒼盡明秀宛如三角未龍而植亘數百
里為山海關蓋白頭山麓起豆豉關中祖峯而落為山海
關者也廣寧邑在山下城樓闊闊不下於遼東矣是日行六十里
去日丁未朝陽平風塵沙彌滿行役難堪發廣寧歷獲河
徑壯鎮堡席與店中火悶陽驛午後歷二三四五甚隆望山堡
夕投石山店有十三山石尖削奇峯三五五彩玲瓏頗可供

廣而值暮未果夕與店主李姓人筆談一場而罷大槩中

國之山右邊則弱無間一支脈為白頭而渡鴨綠為朝鮮又

一支脈蜿蜒千里為瀋陽之白席為北京之青龍左邊則鴨綠

三江通于西海無邊大洋環繞數萬餘里則間無一点山形者

以此故也夏后治水之時弱無間以外封夷狄之鬼即今蒙古是

也此山之龍無處不注遍滿中國平降則為曠野高峻則為截

岳岳者崑崙之支脈乎自青石嶺以後今日始越五嶺現又越

山堡現而十三山前則雖一岡一峴皆自北而來者也弱無間之龍

脈不其大而遠也哉

是日行八十里

十三戊申終日寒緊無乃明日小寒之候乎發石山店歷三莊在

老婆店大凌河此自古戰場也每年使行時陰氣恁快風沙大

作如聞鬼淋之聲云今行免是幸矣信有寺身疑徒於戰

壯士之所也越一大河此即大陵河堡也又過四同碑明時將王平
發兵討賊士卒散亡無面還國與子勅文自到偏裨二人亦
從死是以有四同碑而二碑顛覆餘二尚在而路忙未見中火
獲陽店卒後歷小凌河堡又渡大河橋松山堡越小規過
官馬山夕殺杏山堡此亦古戰場也明時有崔翁之患命將
討之不能禁戰天子親征盡殲壁石紀功而閣焉路忙日昏
亦未得奉禧所過聞知穀匪則自柵至山海關大米則一斗
以我京錢計之則六兩零數一石價則至於二十四五兩小米
則三價近二兩若以我國年事言之則此國之兩大河也中
國人則且謂斂年而道路流乞比前麟山云矣

廣百里也

是日行九十里

十四日己酉是日小度也而陽氣快晴裝杏山堡歷十里河高

橋堡越一峴過塔山所至軍羅店路傍有三義廟金序揭板
意必桃園故事而期以復路入番中大連山驛午後過長春橋
未及橋頭而有一石磴門柱懸板自上書倫書下書箭風家
國右柱書竹箭松心若雅操左柱未及見而日將昏矣問知
其蹟則大明將曹大壽以世勲之象方清兵之變輟也不屈而
死故有樓有記以將大節義此是負樓記也夕投東八里堡之
與東西烟臺相望且松鶴寺虛亭寺嘔血巖、卽汗兵之太
燕也至此狼狽尾甲不返當時明將卽素臣煖也以番砲陷十
萬兵而汗乃脫身逃走嘔血於此其後行金反開殺素臣煖因
以得志云行鬪自錦州而來者路逢二盜一持長槍一持大刀威脅
恐喝棄二步禱而去幸無銀貨而免禍使人通諭于寧遠將
帥蒞護軍而啟行矣路邊有一青石碑大書錦縣西界之是

須樓記側也自十里河始見雪痕次第所經漸積成堆回想青
石嶺以外四五百里都無一塵雪至此始見戴記所謂大川廣谷寒
暖異候者非此三喻歟 是日行八十里海原百里也

十五日 庚戌 陰雪晚晴發八里堡歷青墩堡是觀日出處也以日

氣陰靡未得登眺過七星坡中火河沙所午後歷半拉店曲尺河渡

二河橋至東關驛二葦子此亦視日出處而今則烟障廢矣又

歷三葦子夕投中後所邑未抵邑而間有大河、勢洋、冬不成水

其深不可測邑有關帝廟亦暇入審此界程道甚濶雖免舉

燭問舍問處不可壯矣 是日行八十里海原百里也

十六日 辛亥 晴朝寒晚陽發中後所歷一葦二葦三葦至河沙站

越一大川過獲墩葦葉房墳、有碑未詳其績而問知其子孫

之仕於北方者多矣歷北道河志與橋高水河中火蒲井堡午後

歷前衛屯王家壘望江崖王濟洪越少大松嶺夕投中前所未及

此處而登一春岡有碑與旌闕碑面則題諸贈崇祿大夫太子少

傅劉公神道碑闕額則題旌表劉廷選妻胡氏貞節在左右石

柱有詩云金石存心永霜雪守死其年代雖未詳知節義頗可尚

已因感吟一絕自此右挾北山左挾西海而路趨西南間去寒氣比

諸東八站則減半矣

是日行八十五里

十七日壬子晴而寒散中前所歷兩水湖王家庄中火八里堡未及

堡有行底頽圯已甚傍有姜女廟詳其情則秦始皇築城

之時姜氏夫年十五姜氏于歸亦三日而其夫赴役不還有遺腹

兒年十五又赴是役不還姜氏日夜望其夫因往尋之則父

子俱死矣姜氏臨絕壁痛哭赴水死此之謂望夫石也揭板云

芳流遠海有皇王子詩曰千古無心誇箭我一身有死為緇塵

又有親王詩曰松葉一生常自苦梅花有後不知妍又大書
曰止此石曰望夫石曰振衣亭曰作如是觀曰而愛國俗餘刻
不可盡記畫像則仰蒙白衣滂沱之樣能使人起感因題一
詩以表觀賞焉乎後歷四方城乎此是李自成之亂吳三桂
欲要清討之而清人起其有異不入城之外築其障以觀虛實
而猶且不入乃毀城下寨清人遂自成因自取焉其城墉處更
不緩流只以鐵網遮之以防出入今則網亦毀矣此城即大明人
徐達所築而十年經始者也所以防濬清而反招入城也池之險
亦不可恃矣城外有將臺始未登眺入山海關萬里長城宛然
跨山截海城門八重城亦三重架城而有翅海亭右有秦皇島
是待樓船處也千古往蹟萃集目前過島英雄逆旅江山
令人有吊古之意矣歷十里許夕投紅花店自此始連五里許

及墩墜片埃則與我東長柱因而其數五也墩墜則築世屋
而置守護軍三里亦置幕識察黑包人護送商旅也未
及店而越一大川亦有行旅以久廢巡幸多有積地處矣 是日

行四十三里

十八日癸丑 晴而風午後寒甚發紅花店歷藥店棧吳家庄

二十里堡越陽何底大理嶺范家庄鳳凰聖海店中火深河
驛過皇城二大人之行，甚草，問之則一云德大人以山海關將
和賜牛羊於英吉利國人故罷黜還國一云郭大人巡撫復東
山海關防戍軍兵而還朝故撫寧知府領軍迎接如我國之得
別星行也午後歷高大嶺堡王子店馬朋山石子河，是大川也
過榆關宋家庄上丁白石堡越吳家嶺夕投撫寧縣之山水
朝麗西南諸峰文華特秀意必有才德之士生於其間問之則

文章科宦果多有之地靈人傑信不誣矣

是日行九十二里實百里也

十九日 甲寅 晴而風寒發撫寧縣過羊河五里十里堡蘆峰口

茶棚菴中火渡初聖堡午後歷兵達子店腰站越部落嶺又過

二十八里兩堡白河沙驢子槽涵澤園夕投永平府時與中朝

巡撫把守使俗行以言語不通甚沒味矣十八里堡即古之盧龍

塞也永平府即古之右北平也城郭完固少無頽圯可當方面之

寧也地誌云碣石在北平郡灤城縣西南河是地即今平州之

南也然則北平灤城平州即接撫也而碣石似在其間矣無可贊

質殊甚 是日行七十里

二十日 乙卯 晴而風發永平府歷大泉押子樂河三天河初美甚南

垣店范家店岳河店中火野雞屯午後過張家庄有東庄沙河

所夕投沙河驛即我東邦宦之類而城堞肇固人民殷庶真

大國規制也自永平至此竟日行沙路我國銅雀沙路不足說也

自張家庄始種果凡利亦東漢許章各有界限以白灰塗

而分別彼我使無爭競之弊矣歷路望首陽山下夷齊廟而以

行促未奉審期以復路焉

是日行六十里

二十日

丙辰

晴而風散沙河驛過紅廟馬鋪營七家嶺越二峴

歷新站乾河草新平店張家庄渡杠牛橋過蓮花池渡青

龍橋中火橋子店此亦鎮將所管之處也午後過烟臺鋪越

一峴歷白草窪鉄城坎牛欄山渡鈴河板橋過銀城鋪五里窪

夕投宣潤縣有太學館文昌閣其尊道崇儒亦可尚也所經

處略論中國風土則凡諸立法務從簡易內外之職久任責成故

官無輕適弊省迎送十年居官終有之輕徭薄賦邑無通吏

以無誅求百業不出於士農工商而已雖大臣子弟非士則不

工商居官者去官則為農工商為士者亦晝耕夜讀所以十年兵
革閑里店站是然不動防戍之兵定數送送無一飽飯一盃酒討
索之弊而自官廩給出車以送雖官人行次無把火之例三里置
一擺撥而軍從亦二三名譏察非常人而已或跟捕盜賊則不
容貸衣服飲食則務從儉約雖在饑饉兵燹之際決無寫
柝流離之患二百年餘經國規模大變皆此類也 是日行一百里

二十百

丁巳

晴暖此氣散靈潤縣縣縣趙家店張家店二飯還香

河又歷晉家店高慶堡始見水田數十里內惟此坪而已邑名
靈潤以此故也喜而有題涉沙河過延壽堡新防寺家店中
大沙流河午後渡兩水橋過兩家店十里堡十五里渡東八里
堡龍池養之之題板云數賜萬壽興陰寺右有行宮今已盡
墟夕投玉田縣此是陽公種玉子得璧處也北有無終山數十

里許有燕昭王塚今為陳跡因賦一詩以寓感焉

二十三日 戊午晴發玉田縣過八里堡黃家庄渡抹董橋歷

大小枯樹店山上有樹生而不葉故以名其店又過蜂山店螺

山店至宋家庄謠傳清兵入燕時宋寡婦以銀充墻垣

如城堅守不開清人始擬犒軍竟至見拒故其後因使生

居此庄者以米萬石銀萬兩每年納贖而年久漸減至石者

百兩矣今則蠲之以通州五里碑石之役使宋家信之而其

子孫因出任宦所居樓閣望之此然若城樓矣過椰子山中

火盤山店午後由捷路行五十里至夜乘月投邦均店始得休

憊碣石洋在經行處而問知則禹貢碣石在碣石也在北平郡

矣蘄州碣石左碣石也在望海亭海中去且屯戍兵則在望海

關望海亭天津橋三處各埋地雷砲以防英善利前軍及善

前英吉利國八船未泊而七船則以地雷砲坑之一船則逃走此
必係毒故思患豫防云矣 是日行一百一十里

辛酉 巳未 晴月出後鷄二鳴發邦均店雁白澗店有厄姑庵
昏黑未記過公泉店石碑鋪濼澗河渡銜阿橋至三河縣
平即古之臨駒縣載於史記濼泥非先武渡水之河乃燕橋之
河也朝次裴林庄過新店皇親店夏店柳河屯馬起鋪抹馬
燕郊堡又過方家庄滕家庄白河夕投通州路傍有一石塔
其規制與遼塔同矣州之城堞官舍市井民物之盛勝於瀋陽
矣白河一帶分兩歧而通西海以陸水論之則似不及露梁銅雀
而十二國朝貢及屬國皆自此路前年四月清運時江南派
卅三層樓閣船未泊以水漲水磚尚未回程觀其制度補戶叙
雲琉璃粧飾丹腹雕刻備畫奇巧彼且以存楫為家之人也幸

其妻孥裝其產禁船中無物不有矣河邊有龍王廟亦朱

欄畫棟眩耀人眼每清暉時大張旌幟致祭云問涼州程路

則此去水路萬餘里陸路二千餘里南京一百八十里蘇州四百

里杭州八百里云而舟人之衣服言語無異中國矣自入柵以來

九月九日而未見雪其間雖有宿雪之痕長時陽氣不甚寒

灑實此行之幸也

是日行一百一十里

二十五日 庚申 晴暖如春設通州石路始此五十里許四門外皆如之

四門則東曰東陽門西曰西在門南曰正陽門北曰德星門此皆

由東陽門入焉自通州歷八里橋百永通橋極廣濶乎均

大異於他橋矣過管家庄楊家開平間房定府庄大王庄

所經處胡子國人往雜居其中有諸八技之後八技以僧徒

往西域得見八萬大莊經者也其國距中國萬餘里而特

為唐此者言必亂離後流接乎至太平庄此去皇城十餘里
閭闔連絡不絕歷十里堡八里堡紅門補勒院至東岳廟關
帝廟諸寺刹蓋東岳廟者塑土為器山神像也廟宇之壯麗
碑石之鉅大門牆之華靡與關之廟相補行入東陽門則城堞
一層里壁房金殿珠樓玉門但見於文字而今始開眸真天下
壯觀也過東四貝樓歷玉河水玉河橋入玉河館此館即東使
處所也 是日行五十里

○大國之馴獸異於我東牛不穿鼻馬不銜勒一童子持一尺
箠而可御千萬羣雖豚羊之類驅策數百羣而一不散三矣
駘為物其頸短而過項長而乙字形項上之鬃短而項下之
鬃長而多其腹大其脊高足後兩而掌肉厚尾甚短而脚偏
長性柔易馴穀草無所不食前聞食鹽之說真孟浪矣重

載千斤日行千里蒙古所產而通論中國雖三尺童子無不

辟制也

二十六日 辛酉 早雪晚晴也初往禮部呈咨天禮部尚書與郎

中提督通官書史或著朝服或著毛具其官品之高下不以

膏褶而以金玉琥珀珊瑚等物分別之膏褶之制則文以獨

鶴武以虎及獅矣

二十七日 壬戌 晴午初詣鴻臚寺演禮三拜九叩頭興拜呼唱

如我國引儀之例而此寺設皇帝殿牌座位特書萬歲歲三

字而已國制內職則肅謝於闕內外職則肅謝於鴻臚寺之儀

亦外國人故拜儀於此寺禮畢歸館詳知市廛物情則近年

以來兵革飢饉無歲不有化貨路阻絕物價十倍於前至如書冊

等物業由交易甚昂價亦減行商之良具極矣蒙其民庶窮困

之由國人之豪華甚於前日而莫可禁戢故致有此耳是日
賜饌羊二史果梨葡萄等物而已

辛巳 癸亥 朝雪晚晴午後往副房靈話而歸得見朝紙
則文勢異於我國且內外職問皆自六曹長官自辟故無都
政又不教遊政事稀少為是夜通官未告皇帝明日幸太廟

三使當丑初詣闕祇迎云

二十九日 甲子 晴丑初三使詣闕歷四門一門三門五門之深如海宮

墻覆黃瓦門之前後立擎天柱長各三四丈全體龍文也
且玉石作龜龍頭墜垂引河其深皆三四尺兩房立欄干而五
門皆有橋太和殿外有金道房亦殿百間皇帝出宮時但聞金
奏而不聞車馬聲少頃入廟行禮還宮觀其威儀則所乘黃
屋輜扈從數十人前有黃陽之已凡諸冕仗預備而不設惟以

簡率為貴也皇帝傳王轎問國王平安三使叩頭答以平安
止此而已是日賜無羊二餅與棗肉乾柿棗等物其零星
不可喻也

三十日己丑晴是日公故書狀不參聞保安宴享但止副使庚
時詣闕皇帝在殿上賜酒餅果等物繼以雜戲散樂樂
畢還信上副使亦出表是日即除夕也終夜雷砲以除災殃
達暘張燈用祈福壽蓋國俗云元坐客館守歲實難言
念四千里外家鄉歸瞳欲方未得穩寢為

庚申正月初一日

丙寅

晴而寒寅時三使詣闕由東安門錦川

橋天安門又入端門午門熙和門右翼門暫歇門側直房而
入太和殿庭食頃後皇帝由殿後出座旌繪迎風舉聲過
雲文武百官東西序班而三使立於西班之側列儀序唱頌文

行三拜禮而頭禮畢上留上副使奉宴享具昨日則賜
酒頌床今日則止頌床云矣余獨先出由正陽門外觀闕帝
廟則彼人王女林立焚香拜禮紛至端門前見有一老象
其大如屋全體無毛其目小而黃其牙落而懸其鼻數尺
而鉤物其足五爪而肉厚尾亦甚短與象馳無異而力能
駕黃屋云矣太和殿間數則于一門而四面皆如之自明至
殿皆以玉石為雕欄不知幾層而殿庭通暢不可以目巧量
也四方八面皆儲蓋承以瓦蓋所以防火患也是夜通宸未告
明日午時又詣闕云
初二日丁卯晴暖如春是日午時皇帝入時應宿休息已初
出紫光閣宴享頌賞三使祇迎則初自東華東三才門
後出西三才門渡五棘橋出金鰲門入紫光閣東門歇於時

應宮而歸舍館往回里教殆逾三十里也祇迎時別教三使仰

瞻皇帝狀兒此是外國人初有之事也賞賜綺緞二匹薄戎緞

二匹大卷八絲緞三疋小卷五絲緞三疋香色大帶花大荷包

一封小荷包四封書狀與副使同上使則各緞加一疋以下同矣

初三日戊辰朝晴而風午後稍暖終日在館披覽小說不出門

○皇城内水道本自黃河一派導入西山海甸左右築引渠

注五龍亭玉鍊橋環宮牆而入玉橋河流西水口內城埭則

外城一周外官城又一周水城一周家城一周石城一周又家城一周凡

六周城也外城周回一百六十里官城七十二里城東有萬壽山

造山也有三處樓臺上三層中下二層樓皆縹緲壯麗玉鍊

橋土間而東題玉鍊西刻金鰲五龍亭萬壽寺皆在樓下百

步之地鑿渠注蓮塘窮極華麗一行五亭故謂之五龍亭

內則以五龍亭萬壽山及山上石塔為勝宮牆內則太極皇極
保和紫光為最正陽門外有闕帝廟朝陽門外有東岳廟
俱極壯麗也

初五日 己巳 朝寒晚陽終日者小說方物九款來到照檢無
頃姑未通禮部焉

初六日 庚午 朝寒午陽終日者小說往見上副房歸

初七日 辛未 晴而風寒終日者小說夕後往見上房台聖詔而歸

初八日 壬申 晴而寒終日觀戲才

初九日 癸酉 晴而寒終日杜門者書

初十日 甲戌 晴而寒是日丑時聖帝行太廟春享禮三使恭迎

加賞大綬一匹筆二匣墨二匣箋紙二卷此則唐進詩所
賞之例而雖不呈詩賞則施美午後賜食物饌頭二顆

餅及羊肉而已

十日 乙亥 晴暖快暢終日看書夕往副房歸

十一日 丙子 晴終日不出門看書清遣

十二日 丁丑 晴終日看書夕後往副房歸

十三日 戊寅 晴終日看書夕後往副房歸

十四日 己卯 晴是日皇帝祭天壇午時祇迎上房台則因病未祭

余與副房令偕往已正還宮後因出就館夕後往副房以今日上

元三房同會談話因與菓飯而罷

十六日 庚辰 晴而風

十七日 辛巳 晴暖甚暢是日皇帝幸西山寅時詣西三才門外

祇迎朝晚因往海甸歷路入大鍾寺有一巨鐘全體內外細刻

佛書真神工鬼護也因以留題乘夕歸館

十八日^{庚午}晴皇帝幸海甸庚初詣西直門外祇迎與副房令偕
往海甸周覽西山之文昌閣廊如亭月波樓洞庭樓及十七橋蘆
口橋則其制度之宏傑雕刻之奇巧不可以人作語也十里荷池前
築石架山上上羅三世聖觀宮殿而間補石塔其高皆數百丈層
節又奇又鑄黑金牛^傳請池傍望之詩真非假入是境者眼目
目炫耀如從錦繡屏幃裡行焉十七橋則注水之穴十七而間數六
十餘其柱平二丈層口橋則注水之穴一而間數二十八其柱三十柱用
玉石上頭皆刻鶴形洞庭樓環圍水面其欄干又皆玉石而窮極
侈靡不可具狀海甸之正大光明啟山高水長閣又遊幸燕喜之所
而甚是簡雅矣

十九日^{癸未}晴而風夕後往正副房穩語而歸

二十日^{甲申}晴庚時祇迎因往海甸入山高水長閣觀燈戲馬上

砲射試鈞等才遊覽山水則重置土峰林木最茂殿金池

引水氣味清涼真箇避暑之處也西時置宮舍亦出

門乘車直馳三十里到舍館夜已戌矣自十五日至二十日四次公故

上房告病未得參獨樂副房舍備為絕域飲水之行獨不可

以自安為慰也

二十日 乙酉晴而風使譯官呈封物于太和殿

二十日 丙戌晴該書狀啓曉頭封裝而無竹典洞書札往觀大學

則殿內主壁孔夫子左右則曾並顏思東廡閔子冉子雍端木

子上子有子西廡冉伯子宰子言子顓孫子朱子左右翼廊列享

數百有不可盡記揭板曰聖集大成曰生民未有曰萬世師表曰

與天地參曰聖恢時中各四字殿外墜玉石大碑十五左右雙立碑

閣又有殿門至殿庭連亘玉石欄殿庭外立科榜碑數百又觀

壁龕則左右翼廊亦數百碑刻七書周禮之記儀禮春秋左
傳爾雅孝經金匱經也大闕在其中而揭板三處曰萬流仰鏡
曰涵泳聖涯曰聖涵於樂各四字闕內設殿座龍床前面又有
一閣中暨碑數十盡刻古文又揭板三處曰文行忠信曰敬敷五
教曰樂德音材各四字自今太學之狀麗未知於古亦如是矣
因往丹雘琉璃屋亦一波斯今日消遺無以尚矣

二十五日 丁亥 晴而風夕往副房暫話而歸

二十六日 戊子 晴而風夕後往副房暫話而歸

二十七日 己丑 晴夕後副房令來見穩話而歸 禮部以初四日發

程通諭甚幸

二十日 庚寅 晴暖如暮春者午時請午門兩次三跪九叩頭受頒詔
及銀子一百八十兩奴子銀十八兩紋錦十四段而一段與通官二段

無用亦嘗夕後往副房暫話而歸服藥就寢

二十九日 辛卯 晴回營八度禮部為宴付子表到夕後往副房暫

話而歸

三十日 壬辰 晴詣禮部午時參下馬宴因歸館少頃進上馬宴

夕後往副房暫話而歸

二月初一日 癸巳 晴而風往副房暫話而歸

初二日 甲午 晴治裝滿日意甚愁擾副房暫在棹叙而罷夕

後因復謝同往副房而歸問知蓼價則每斤不過十五六兩行

中大失本雖時價使然見甚於問也

初三日 乙未 晴終日治裝不出門外夕後往副房暫話而歸因

一行治裝之擾未暇穩寢

初四日 丙申 晴而風發玉河館夕投通州行中以蓼價未決盡

爲落後惟只一人追後來到是日則天時有向暖之候物態有
敷榮之理江柳將舒川水方泮此所謂雨雪霽楊柳依之時
也青春作伴好還鄉真不虛語也因賦一律

是日行五十里

初五日

丁酉

終日陰冷沙塵漲天不辨方嚮發道州中火遊郊

堡夕投棗林庄

是日行八十里

初六日

戊戌

陰冷發棗林庄中火邦均夕投薊州亦勝地也翠屏

山盤山俱極秀麗盤山則上中下三盤之上皆有行宮而今已頽圮

翠屏則頂上有古寺殊甚閑適令人有休適之思矣

是日行八十里

初七日

己亥

陰而點雪辰時發薊州入城內有獨果寺有石佛

醉臥謗傳李白後身也石色淺紅如人醉顏故因號醉學士又

有觀音閣佛身十許丈閣之額亦李白所書云脩有瀟陽橋

側刻石爲安福山及楊貴妃像而祿山則乘縛而射貴妃則

院坐其前真好事者所為也中火盤山虎夕投玉田縣是日行八十里

初八日庚子陰而夜雪色鋪山上茅未知關外則解凍在邸前

頭之行殊極慮也發玉田縣中火沙流河夕投豐潤縣一行之落

後負役盡會於此是日行八十里

初九日辛丑朝陰晚晴春氣藹二野林舍生山度天暉所過川流

積水稍解物態之向榮行人之幸也中火榛子店夕投沙河驛

是日行百里

初十日壬寅晴發沙河驛中火野鷄毛夕投永平府奉審庚寅齋

廟遺像凜然百世之下清風可挹佳山麗水拱護廟宇而村墟

亦在其側丹雘之荒落鉅麓之頽圯殊令人起感滿江又有孤竹

君廟貌已古焉是日行七十里

十一日癸卯陰而東風寒山雨綿幕氣候不甚佳發永平府中

火渡望鋪投撫寧縣

是日行七十里

十一日 甲辰 終日陰冷東風不休發撫寧縣聞紅花店有屯兵故未

得前進中大深河驛夕投范家庄自是夕始服八味湯 是日行七十里

十二日 乙巳 去夜風雪甚酷至朝雖晴而寒則彌日甚於昨冬

職由青候之晚也發范家庄中火王家嶺夕投中前所邑所過

紅花店山海關八里堡軍馬屯聚間關出來四方始望海亭

亦有屯兵以日寒未即屯所而撲過焉 是日行六十六里

十四日 丙午 晴而冷發中前所中火蒲井堡夕投中後所其邑

舖屋里亦大城府也而糧糈紉吐等物皆出於此處矣 是日行九十里

十五日 丁未 晴而微寒發中後所中火沙河所夕投寧遠縣 是日行八十里

十六日 戊申 晴而微風薄寒發寧遠縣歷路入縣城周觀上下

樓則四層石門凡三間也皆刻以龍帝禽獸草木窮奇極上

題玉音中題忠貞曠智下題元戎四世少傅最下題祖承訓置

官爵後貝樓題登壇後烈兩柱題桓桓與歌國倚干城之重

絲綸錫罷朝隆銘鼎之慶云即大明忠臣立石旌淑之慶真

天下第一貝樓也歷路八審三義廟之即劉關張桃園結義也

皆塑像跨馬而左有卧龍右有子龍結縛曹操施以毒刑揭板曰

威武英靈又曰忠義昭彰百世之下宛然復見三國人物可敬可

賞中大連山驛夕投杏山堡

是日行八十里實百里也

十七日已酉朝晴午陰散杏山堡中大連陽店渡大小凌河大凌河

兩邊有橋之兩間有水自上游直下間關涉過此是古戰場也夕

投石山

是日行一百里

十八日庚戌朝晴午寒散石山莊中大連陽驛夕投廣寧此地有

北鎮廟桃花洞而路遠未見 是日行八十里

十九日 辛亥 晴而寒發廣寧站以風沙彌路不堪趨程中火中

安堡夕投小黑山寫家宛書於義州軍年先歸使聞自邑斬偷

剽棄馬上賊二十人於西門外云 是日行七十里

二十日 壬子 晴而風寒春冰堅凍終日不見水痕發小黑山中火二道

井夕投白旗堡近日行役連為寒威所迫關之内外寒暖極殊

不可恠也 是日行一百里

二十一日 癸丑 晴而寒發白旗堡渡柳河濛周流河皆乘冰順涉

一行首役云十年後初事也無乃節候之晚為吾行之大幸也

與中火新民七夕投孤家子 是日行八十五里

二十二日 甲寅 晴發孤家子中火大方身夕投瀋陽 是日行九十里二百

二十三 乙卯 晴發瀋陽中火沙河鋪抹馬爛泥堡夕投迎水寺 是日

百十里 每里一百二十步

二十四日 丙辰 晴 發迎水寺中火王臺夕投狼子山 濟府問安使來到

而饌盒一座酒一壺即別例也 濟尹及永安文書札併到又見龍

吉輿濟府通引告目而未聞厥信甚悶然自此抵義州乘轎

是日行七十里

二十五日 丁巳 午前陰風小雪午後晴 發狼子山越小右嶺青石

嶺中火甜水站午後越會寧嶺夕投連山關所經青石會寧

等嶺真天險莫比羊腸九曲自吾鄉抵北京所未有之嶺也

是日行七十里而每里一百里程也

二十六日 戊午 陰冷夜間大雪 發連山關中火通遠堡夕投黃家莊

終日之行渡一河凡七次傳聞明日又一渡此河云一河八渡名處真

不爽其四五艱險有如是夫 是日行九十六里而每里一百里也

二十七日 己未 夜間雪勢甚盛朝視猶未快晴散黃象在渡江

雪後江山晴景可賞兀坐車中開窓四望恍若玉京圖書爛

開於奎壁之墟而令人從琉璃世界中出來直是清虛通未掃

盡葦穢葉公所謂陰陽人道之患漚然祛體豈非飲水者

之幸歟往過四千里一日佳媿足以贊化工之妙也中火乾子堡夕

入柵門而修荅灣府箕營兩處書

是日行八十里

二十八日 庚申 陰冷或點雪乍霽夜風不休午後始見正月二十日所出

象宛書知輝節乎穩幸因作荅且寫瑞五書 是日留柵

二十九日 辛酉 朝陰甚冷水澤旋凍晚陽稍溫 是日留柵

三月初一日 壬戌 陽而風雪

初二日 癸亥 乍陰乍晴甚寒冷夕點雪夜又雪車上尚不到甚間

是日留柵

初三日

甲子晴而寒車下始到稍豁客懷

是日留柙

初四日

乙丑晴而濕分偏車下

是日留柙五六箇日

初五日

丙寅晴始設柙門渡江夕入灣府封進渡江狀啟

是日

行一百一十里

初六日

丁卯晴申時上統軍亭綺羅歌舞更續往時未盡

之緣

初七日

戊辰晴寄京中書及家兒書因上東軒與王尹台及上副房

齊會觀妓舞夕上統軍亭吟風而歸

初八日

巳巳晴而風發義州中火所率並夕入龍川館本倅及大同漁

川皆未見一行自後不得圍聚只有一庫直甚草草矣

是日行七十

初九日

庚午晴而暖發龍川館中火鐵山並夕入宣川其夜與本倅及

上副房齊會聆妓歌夜深乃罷

是日行八十里

初十日 辛未 晴散宣川中火郭山夕入延州堤雨細而乍下促鞭入
城意外 仁之 自春川來傳曹恭川書無聞鄉信甚慰幸 是
日行八十里

十日 辛未 晴而風寒土氣遍山日甚不佳散延州入嘉山見塚

兜書始知無事抵京甚幸於曹恭川書 是日行六十里

十日 癸酉 陰而風甚寒散嘉山越大令清川兩江入安州

聖見百祥樓以日寒未登覽往回之間俱未償願是亦有

數存焉者歟 是日行五里

十日 甲戌 晴而風寒將散延州與王倅趙 雲卿 及上副房同上

百祥樓十里明沙一帶長江眼界通敞猶勝於練光而奇麗

似不及西關勝地不過三四處而蕙州之月波平壤之練光浮碧

義州之統軍安州之百祥不相上下而其長短則互有不可無

騷人之覽自廣焉夕入甯川主簿上京空居甚無聊矣是日行六十里

十四日乙亥晴而微風日氣稍佳發甯川夕入順安是日行六十里

十五日丙子晴而風寒午後微雨發順安夕入平壤奉審筭子

廟是日行五十里

十六日丁丑晴而風寒與中軍金炳虎携酒傳歌妓上練光亭

了三絃一場因乘舟上浮碧樓越曠績羅密二水中分十里明

沙其窈窕佳麗真所謂第一江山也竟日遊覽至夜秉燭

而歸是日留平壤

十七日戊寅晴而風寒發平壤夕入中和府祥雲儒生金益

本邑儒生金光赫來見甚歡翌朝作別是日行五十里

十八日己卯微雨發中和府中火黃州夕入鳳山是日行九十里

十九日庚辰晴發鳳山中火鈞水夕入瑞興亭家院書是日行七十里

二十日 辛巳 晴發瑞興中火道秀夕入平山 是日行八十里

二十一日 壬午 晴而微風發平山中火金川夕入開城府 是日行一百里

二十二日 癸未 晴發開城中火長湍夕入坡州 是日行八十里

二十三日 甲申 陰午後陽發坡州夕入高陽 是日行四十里

二十四日 乙酉 晴而風發高陽午時詣闕復命 是日行四十里

詩

平山題玉溜洞 音

靈藥吾曾聞八還冥搜何必到三山朱生已指玉溜洞

名字留題石壁間

石骨應滋石乳還氣通於山穴於山試將玉屑和而

飲前路仙槎霄漢間

黃州題月波樓

星輅來任月波樓樓下長江深
流層欄斜日笙歌鼓
蕩作么區第一遊

撫劍樓

飛樓縹緲壓高城
下青蕪寧操平撫劍洪歌對尊
酒西路關防仗守成

鳳山凍雪巔望遠方山城

凌曉攀蹬凍雪巔松林扶路洞天成
何來孤角吹霜
月望東山城眼界平

安州渡清川江

行到百祥樓下川已凝瀨氣與天連
舟子停橈凍手
此時征役也同情

嘉山越大小晨星巔

大小晨星石運斜重雲壑鎖人家
才過三巔由平
路一任風埃半面遮

宣川停釣樓夜遊

征路遙迤入別區宣川太守好風流
華堂前燭笙歌
爛贏得君恩許壯遊

過鐵山東西林山城

王登列特守護

雪脊綠山迥且孤松林蒼蔚壓平蕪東西關防占要處
經國遺規備不虞

義州題統軍亭

隆冬氣候正凄凄，平楚烟雲入望齊
亭闌軒憲控遠通水分衿帶限東西
登高始覺清懷豁觀大方知眼力
迷從古濟州傳使蓋幾人到此有佳題

奉次萍館小集

高府尹在李參鉉題軒

征輶適踏雪中岑
嗟我西樓塞上林
薄酒萍鄉遊子興
清詩葦榻故人心
天寒歸夢江拜凍
歲暮羈愁燭影深
荷佳招仍未厠
宿緣何日更參尋

贈府妓竹香

二首

竹本無香爾有香娟、獨秀滿庭芳
鷓鴣天閣持相贈
慎勿驚飛雪上霜

灣徵初聞竹有香也稱貞操出羣芳
琅玕留結鳳凰
食待到寒天御史霜

奉次府尹李台韻

冬意方衝庾嶺梅灣州此日使車來
龔夔休欲淨心帶熟
境入漸佳念反仄關內咨詢憐歲儉
樓頭鼓角訝星迴
留連華榻成良覲故是停驂不下臺

渡江入柵門

舟經鴨水使車同馬耳三山指點中
平楚池臺寒日薄
大明城堞暮雲空架門下鑰當天險
葱青秀按藍費
畫工夜、很紅燃戌火橋林橡谷路交通

過鳳凰山有感

龍巖之夏天將李提督領援兵登此山望我
國山川因渡鴨江擊楫而誓成取耶

天師昔駐鳳凰山
聳洛腥虛指點開鴨綠
若無當日誓

萬年 宗社賴誰安

安市城

在鳳凰山下瀆太保非所處

安市城高天作山
庚宗遠略膏師還
帝日人和無地利

萬夫寧敵一夫關

過遼東

二首

平生蓄眼并陸天
今日望洋鶴野遠
相輪縹緲疑華表

蒸土淨燥想赫連
方位東西依日月
程途七里攬雲烟

人民財貨大都盡
未到中原已昏然

楊柳依、雨雪霏
行人自苦賦
遙歸聽鷄呼
僕凌霜曉

抹馬催裝惜凍暉
曠漠風埃迷遠目
浸淫瘴霧賦征

衣履馳原濕寧辭勦五事前頭恐失機

過瀋陽有感

瀋陽城外水西流遺恨無窮白草洲到此難禁忠憤淚行人今古幾同儔

石山店望十三山

蒼峭矗壘空十有三石文花卉爛森々如今善畫能模寫雕刻神工誰敢探

渡大凌河身古戰場也

長河墜腹已成冰朔雪關雲萬里凝過劫沙場秦漢夢可憐殘寺醉魂僧

過四同碑有感

明時王平父子與福禪二人同日殉節於此以空四同碑

碑銘記取四同墳遺恨當時在備軍三北應嗚雷並事矣

然同殉視巡雲

寧遠邑題曹大樹貝樓

大明臣子幾忠勲亦一曹公斷云竹節松心貝樓記後

人登眺每紛紜

東八里堡望烟臺有感

前朝如夢水雷迴到處防胡虛築臺百丈城池何所恃
時茹恨在遺才

中前邑偶懷

原濕駢馳日夜忙此行從古困風霜
任瀋陽道路長始識中原如許大
生為男子果非庸就中不禁關心緒
嬌女于歸日漸當

中前途中見劉廷選神道碑及其妻胡氏旌閭有感

草沒荒碑月吊開
歲年雖久姓名新
煌々金石水霜字
能感千秋外國人

歷路撒所見風土成絕律各一首

韶佛成風舉國同
仁祠到處關門紅
玉田種福元無理
殫君多羅枉費功

天賦良心共通
避範圍胡越卽同
家慈悲月掛禪門
磬
勤苦風傳海戍
旂載路香車高旒
富連荒麗屋巷閭
奢
當時若燮侏儒
俗千古中華玉不
瑕

過妻女廟有感三首

虛築長城送役徒
子從其父女從夫
千秋恨水流西海
山石
點頭若有呼

春城築悉丙庚秋
地老天荒此恨悠
幾荒風濤如有新
芳魂

化石不回頭

鮫箱一面帶深坑
眉際愁紅頰淚痕
髻髻英靈何處見
決、彼洛必妃存

四方臺留題責吳三桂

教築蕭牆卽此臺
規城指喉反成媒
內寇未防招外寇

當時大將是辣才

入山海關

中外樞機關一闕
天教形勝大江山
城高萬仞喉咽喉
隘海潤三方襟帶環
肇初皇圖如許大
當時民力困多艱
今行剩債生平願
自笑礪座辱兩閒

望海亭

填河鉄桶負長城
上架高亭四望平
仙舟不渡秦皇島

舊日風濤尚作聲

過撫寧縣之山水極清佳愛而有題

聞道撫寧山水佳地靈人傑錦添花流眺西南深秀處
摸來正欲向東誇

永平道中

永平即古之盧龍塞

今永平云古北平何年飛將掩英名碣石西南河口地應
知不遠薊州城

野雞屯路中即事

朝羨盧龍午野雞支離征役兩河堤身隨王取盧途此夢
踈陶沈入室携驛路迷烟官樹北店橋斜日水村西果時分
珍於此始梨栗清佳各品題

旅館戲題

吾行役、到沙河鎮日風埃拂面多行辟難成橫竹豎遊
觀成俗押花娥人情平地岸逢險客路迷津便沂波此
去玉河知不遠星槎早晚更迴過

客宵卧念多日經歷準備後考

經遠度剗幾千重雲際天長眼欲窮覽景全收山海野
趨程不計兩暘風詩情數舉敲推手玉事寧松進退躬
到底侏儒風未變文華自託小東中

路中即見

三馬榆關董葉堆胡沈指點遠人未歲華舟、寒將盡客
路倦、日幾迴缺畧難逢圓滿地一行亭倒淺深盡隔江風
便時聞折柳才終又落梅

過豐潤邑聞邑有大學文昌兩館喜而有題

邑名豐潤古來存民事徒且簡不煩大學文昌兼兩義也
知遺俗闡師門

早葭豐潤

星河明滅遠天西曉色沉一望齊霜拍寒槽僮抹馬風翻
踈曠客聽雞此行原隰無朝暮難向漢岑有品題孤角三
聲催啓蒺崩橋沙磧路猶迷

豐潤高麗堡前見水田

漠漠烟郊白鷺田野人秋事祝登年今行始見吾東俗
穠熟家之利說仙

玉田身今邑名而古種玉處也

玉以名田上田藍田種玉至今傳奇稱未必崑山玉別
是良田寶價全

玉田北無終山聞有燕昭王塚有感

昭王墓草宿于春北望無終祇愴神金臺擁篲成陳跡誰
是消南買骨人

過燕市懷古

二首

荆俠

我行燕市少相知義氣從何得見之轟政傳終人寂寞董

生序業俗推移愁雲影薄傳盃處落木聲高立馬時欲

問黃金臺上事遠遊歌闕只增悲

詩病年來白髮多此行燕路日將斜天寒忽憶金臺酒歲

暮如聞易水歌野老耕田應古市村墟落木空誰家瓦心

未照春坊鈿吳代相承氣吐霞

過望諸君墓

一盃欲酌望諸君憶昔齊城樹大顛可惜九原人未作荒

碑何處有孤墳

旅舍夜吟

明日征途百里餘
呼僮分付聽鷄初
遊觀違約謀何拙
行役關心夢亦踈
一箭須看夷險地
十年賴讀聖賢書
薰葭白露詩中意
方信秦觀守太虛

玉田曉發

我車早出玉田城
野店晨鷄喔々鳴
孤月蒼蒼迷遠樹
晚霞濃碧鎖長亭
鄉懷欲慰傾殘酒
旅宿多艱掩冷屏
水驛朝陽征馬駐
忙招痛僕問前程

邦均店夜吟

史漢前遊早未期
六旬方許遽瑗知
南為且學搏風鳥
老去寧同伏櫪騏
眼力茫然奈見形
使果如昔聞時柔
槎

直欲泛銀漢歸路成都訪旌奇

曉發邦均

侵晨瘴霧膩衣巾背後冥山漸遠人病僕肩輿頻失脚
平蕪指路或迷神天寒飲過席時的行促愁生到處津
鎮日間關雉下夜疎星低月兩相親

發邦均聞皇城不遠

行李間關路轉窮過三而後五河中要知真積工夫妙百
尺竿頭始見功

評中國地脈

山而復野而山中國山川此惚間誰遣南風吹忽散俄然有
力負之還公程敢謂天福覆漸續難形地四環巧曆休勞
追妙鍵化翁祇是弄機關

棗林庄午吟

冬暖如春日色遠雪殘沙路已多時
笑嗅胡姬醉小酒東人謀醉北人危

渡白河

白河渡口望通州眼力無窮錦驃洲
今來始見乾坤大何處江山盡頭

入通州觀涼州三層樓解

一解制度屹三層大匠經營意思疑
紋密繡戶千般巧詩亦難能畫不能

黃通州

路入通州第一霄今朝行役了明朝
金湯設險千年府銀漢分流八里橋
臘雪全消梅信早歲華垂暮客愁
挑篋人倦

我奇觀處東岳祠前乍駐輜

東岳廟 二首

從古皇王享岳神教將典禮致精神
瞻言廟貌丹青炳永鎮

東方出日賓

維岳嵩高峻極天混元淑氣配蒼然
春秋不忒燔柴典陰騭

旁流萬億年

闕帝廟

恢天遺像仰彌高一體尊崇兩國留
騰虜祇今應天恭陽秋

大義定雄豪

入玉河館

玉河館在玉河洲館是東方使節留
追惟萬曆年間事三世
吾先此溯流

紅白梅盆

四首

天姿紅白兩相宜
春入金盆保護枝
月夕徘徊供曼觀
一般奇絕可人知

紅何淡也白何奇
春趁羣芳未吐時
古槿多得黃昏月
來之清香遺所思

一種若寫兩色梅
好將清艷月金栽
照眼成詩堪遣興
恨無旅館故人盃

紅如妬白倩紅均
得東君造化功
今日殊方花信早
不須羌笛怨春風

水仙花盆

南昌雪月別梅仙
蓬底歸來賦水仙
翠羽紛敷溫玉靚
三花影裏十洲仙

種魚缸 二首

數隊銀鱗浸玉缸知渠得計合投江箇中猶有生、粟應

莫魚濡躍海獲

物類告招是魚苟知魚巢、無餘吾師死在滄池上自
得天機蓋取諸

皇城

行尋禹跡忽瞠眸也是龜書茅五疇列畝皆從東岳護九
天為遣長河流高麗城北四千里都會塲中十二州管見誠
難差數觀明朝試入月門樓

皇城宮殿

野鶴任風始出籠鳳城觀物却擔雄山粧石儼青來首傑倒
河源白用功殿角千天雙柱屹門庭臨海五橋通範圍手

何代緬憶紅羅舊會同

鴻臚寺演禮連日公故有題

演禮呈咨度昨今遠行餘德實難禁休言此日多公役受

命老君感悚深

留館述懷 二首

每食孰粗萬慮侵身靡底忘意沉、蒼茫原室言壽斷搖

落山歲月深隔枕胡諱徒聒耳伴燈鄉夢暫寬心多時坐館

詩思蓄強感雙眉傲苦吟

客意茫然入館初難將楚越與同居衣冠詭制辭期薄言

能殊音別味疎到處逢場知我少當宵話榻為誰虛前頭消

遣元無術局戲才終閱古書

皇帝幸太廟是日晦三使監當公故還宮百官散班余亦歸

館有題

公故頻繫日往迴今辰况值歲華催
俄然禁苑鳴金鼓道是宗
宮裸玉盃星斗闌于五漏盡烟雲捲却重門開
駕還不見行
塵動銀燭煌煌護衛來

公故時卽事依古詩戲題

殿角微風近暘天滿城佳氣浩無邊
將軍樓閣神仙畫光祿池
臺錦鋪筵千里邦畿平若水九街官路直如弦
五雲深處祥
光動夜海深玉漏傳

隔除小晦卽事

北城除夕問如何十二橋頭集事多
萬戶銀絲奉闕錦繡一天
皎潔動星河烟籠官樹輕
微風迎街鍾遠
過詩酒高情
常此夜珠櫳何處畫眉

五河館除夕

守歲羈懷轉不平，強挑短炬到深更。
天時正屬星回次，人事堪憐雪吐莖。
幾處傳砲除舊厄，滿街懸燭祝新禧。
屠蘇小酌難成醉，臥數丁東漏箭鳴。

元朝賀班

太和殿上歲華清，報道今辰賀禮成。
石面序班文武列，織文分隊席龍爭。
曉暎俄射黃金榜，人語遙聞白玉京。
雞髮朝儀那對此，皇明古制弁髦輕。

太廟春享當公故

公故關心恐失時，張燈假寐夜遲遲。
起看天衢星斗轉，忙拈符者促行期。

通庖未引使臣衣，路入午門待指揮。
玉漏聲殘天氣朗，金鷄

唱晚曙光微
宮橋列炬炫
黃屋禁樹斜
風動翠幃少
頃駕旋將事
畢幾人難
踏軟紅歸

新元夜懷

五夜知心一燭親
玉河館裏未歸身
遙知兄弟近
新處遍酌屠蘇憶
遠人

玉河館述懷

旅憲孤坐對斜暉
輕薄春寒入
葵幃陰隔江南
梅信斷天長
塞北鴈書稀
寂來謾興題
新句老去無
心換舊衣取
醉欲成歌雪舞
還憐顏髮昔
時非

玉河橋夜卽事

興來穿縠步橋頭
清夜漫吟破
寐愁銀浦流
雲天似水玉樓
捲箔月如鉤
不塵遠客來
千里席
伴平生第一遊
詩癖逢

春歸路晚胡笳何處我思悠

偶題

堆盡紅綉細茵陳
宿醉椒花興不貧
十二街頭行樂子
四千里外淹留人
客中已慣迎時節
鏡裡誰教感舊新
永日羈縻支枕臥
提攜黃嬭作芳隣

久留思歸

聞人晏睡日淨燥
我願從之夢不醒
千里呖輪雖有事
四局留館實無名
夜闌蠟淚紅頻剪
寒絮草心綠晚生
一刻三秋真善喻
歸心如矢故山程

五春

遊客逢春感物華
夜聽梅玉佳月人多時萬壑應殘雪
一氣千林返吐芽
酒欲忘形同甬醉
詩將寫景向誰誇
豈得

芒屨登高去，舒日東郊捲晚霞。

公故回路述懷

故園東望祇傷神，屈指新元又一旬。
曠地難窮懷土日，陰陽有惠飲水辰。
鈞歌到處休知己，詩話從誰與結隣。
惠好同歸前定在，時來勸勉賴何人。

上元夜吟二首

新年佳節上元迴，雲錦寧辭更剪裁。
萬戶懸燈何世界，一天明月此樓臺。
好將清景深盃倒，莫教良辰急漏催。
隨珥簪携滿袖，香車幾處動纖埃。

上元佳氣正漫漫，好把芳樽做話團。
五夜疎鍾傳月裡，九街明燭入雲端。
嬌娥行樂青樓夢，才子風流白玉鞍。
踏盡軟紅歸路晚，天懸拂面弄輕寒。

上元夜公故即事

律絕各一首

正陽門外祀天壇，寶輦輕轡動和鑾。
銀浦雲收星影沒，金爐香盡漏聲殘。
幽憂欲瀉登高去，許大難形自細看。
向晚團圓成一握，茶甌漱澆露華闌。

新春新月兩相宜，春正未時月正隨。
月好今宵春亦好，起教飽覺此心知。

觀市歎技巧眩人

行過波斯閱恠奇，眩人眼目見難知。
爭呼高價專謀利，可奈常情內自欺。

懷古述意

曾將款啟問於多，欲向燕南訪古歌。
原住龍門探漢史，客來牛渚泛張樵。
蕭辰鬢髮綠愁化，幾夜鄉山入夢峩。
憶昔感

時吾未及僂人休復問如何

海甸山水閣光明啟

一區海甸路逶迤山水光明啟閣後雕刻規模應是匠清和景

物又春時羈懷欲忘登樓早醉興方濃返駕遲箇是中華

真勝地洪纖畫入海東詩

聞道霓旌下翠藎五雲深處錦筵開葱蘢花卉當春鼓隱
映峩洋逐韻來酒爛星樓龍燭戲歌傳鈿幕馬弓才夜天

如海門如市更鼓三舞撒宴迴

觀西山水

水樓山閣神天選十七虹橋白玉剛萬像都歸明鏡裡一身如坐
彩屏間秋容粧靚池荷滿春景氤氳鳥樹環客路情懷
倜傥橫空步武暫偷閒

五龍亭下千佛萬佛寺

龍橋惟五，其亭兩岸芙蓉綠映汀。何年飛錫占初地，千萬
瑰琦丈六形。

蘆花橋

蘆花橋下碧波灣，幾處樓臺石假山。箇是中華真勝地，坐來
一望控新顏。

荷池邊烏銅牛

鎮地何妨鐵鑄牛，駝猶銅體犀石頭。依然蜀道黃金產，出
自函關紫氣浮。渤俗已應刀鈞解，周氏何用服箱求。送寒土
剗曾聞古地，四成形必有由。

太鍾寺有一鍾，投錢入穴則生子。云男女爭投積錢，因吟以警。

覺生寺東一鍾懸，全體經文細鏤傳。大匠勞心神妙運，洪爐

鑄器冶鑄專但聞太白僧持鉢半到楓橋客繫船上有中通
靈驗欠幾人到此要投錢

佳人

珠箔深、燭影闌滿庭花月上欄干金爐香盡茶烟歇更把
瑤琴試一彈

西湖

西湖秋水綠如苔十里荷花一色裁何處樓臺明月夜有人
吹送玉簫來

江村

江天暮鴈下平沙漁笛楓橋夜火斜客子停帆歸路問孤舟
移繫僂蘆花

思鄉二首

自慶潘遠鄉信稀旅愁如月減容揮手感日永支高枕夜
榻春寒掩薄暉酒為寬心頻覓好詩編遣興強吟非歸期
媿晚何須問芳草萋萋杏花飛

醉

世事元無兩美全遠遊雖樂少清緣偏何得月思家夜眼未掃
雲倚斗天醉裏冬春長短日詩中節序舊新年萬端心緒
帶眼暇借寒燈慢一邊

帶字元亦何媿也

偶題

掩屏欹枕樓上頭竟日寒風擾客愁不出門前三四步此懷
消遣與誰謀

觀戲才

誇道戲才妙入神瞿然偷眼在翻身欺人先自欺心術美假
場中孰信真

秦駝

頭小頸長兩鬣豪
宮隆背脊使人高
重載千斤能致遠
緣渠有力得偏勞

駝象

鼻長數尺腹如鍾
全體無毛一恠容
不知何處雲南貢
老力猶能駕取從

青猿

墨手粉顏稟性靈
天津擾亂做奇形
五河明月畸人在
慎勿末啼惱遠聽

觀太學

五典筆簪一種中
古壇文杏尚傳風
武雍宣鼓觀於此
扶樽斷門太闡功

辟雍

石角嶙峋儼列屏古今文字十三經
天光雲影徘徊處薄采菁莪于彼汀

偶題

春日逢、我鬼長星樗淹滯玉河陽
天風尚峭朝侵榻池水方添夕滿塘
衰髮自憐臨事樹拙辭尤覺和詩忙
客底又遣新元暮故取深盃欲相忘

夜坐吟

深之館裡坐如聾不到諸天色相空
循鐸点更時夜半浮槎復路夢
竟中俄然散步階前月俟爾提醒
枕畔風轉轉鄉思難遣了
嗅愁何處唱鷓鴣

畫咏

蒲城佳氣惱詩寬
畫影重掩館門酒後紅顏春過跡
鏡中白髮雪添痕
微風搖樹應花信
暖日升簷任鳥喧
一枕頽然
仍就睡願隨蝴蝶起
黃昏

玉河館夜聞柝聲

春邀客意轉相移
畫思悠一夜夢違千里
襟懷明月在平生
心事一燈知
自料留館無多日
甚喜還家不遠期
寂觀書
推枕起胡兒
循柝警人時

倣蘇子瞻秦少游置字格戲吟寓懷

朔風吹送夕陽時
送夕陽時夢亦違
夢亦違
回思遠別
四
遠別朔風吹

遠游人
雁泊天津
雁泊天津
夜月新
夜月新
曉霜
雁回
霜雁回
遠游人

未歸人在玉河津在玉河津見歲新見歲新憶世日候憶世
日信未歸人
願言歸客意如飛客意如飛燭影微燭影微時難做夢時
難做夢願言歸

十日叢行

離館返鄉隔兩霄青春作伴好相邀歸心縱喜治裝早滯跡
旆愁復路迢萬里咨詢應費日幾時櫛沐始還朝此行未除
陰陽惠靜思中霄髮欲凋

發行前一日

陽春解凍玉河中三竹明朝路出東客日淹留懷靡定別時
惆悵量無窮身如籠鳥條方解志似鷹鵬海欲通待到長
安明月夜更將詩酒故人同

離五河館

星軺早發五河邊
驛路風烟政可憐
輕騎能濃供勝狀
古柯崩動卜新年
啓程今日難違約
留館多時定有緣
識面山川旋作別
行人到此更悽然

盤山

山在薊州復路時始登眺

昔聞今見薊州城
水麗山明繞翠屏
行宮寥落三盤上
能使今人百感生

獨樂寺臥石佛

寺在薊州城內亦復路游觀

古庵臥佛面如新
落日空標認後身
當時草創金臺殿
醉倒玉山名不泯

護法果谷先生談步陳光亭

歌妓爭嬌前送盃
西遊幾處北邊關
山圍大陸千重立
江抱孤城萬壑環

扣門恍若魂迷登漆園
飄如羽化踰蓬萊
未了清歡肉席散
夕陽客思正徘徊

浮碧樓

畫簷朱欄水上頭
東風三月坐西樓
白沙小島居人滿
紅樹孤峯
速客留一葉
船中纖唱
恍石花叢
裏艷香浮
始知好事多
違約恨未同
班共此遊

追和八仙九老韻

誰獨障遮未敢違
諸公到處不期之
幾名亭上多呼酌
八大家中恣賦詩
皓月襟懷爭說道
瘴梅心事貴相知
假僊便做香山老
何必風流弄昔時

七事封疏

批當此元之初七事可陳其以管官發公

伏以臣至庸極陋之品疎遜卑弱之踪策名二十六年厚
 蒙我兩聖朝陶鑄之恩八踐瀛署出掌雷封自簪
 筆而升緋土非臣夢寐之攸及人亦何學以此期臣也際
 曠絕涯分踰濫而才識俱短塵刹幾刻每自循省惶
 汗浹背夫安有一分此冀侍於禁林之間哉不令退伏鄉
 里追誦洪造以寓於戲不忘之思以畢頑忍不盡之院即
 臣區區至願矣臣於此際更何敢妄論時務自犯出位之事
 也顧今聖上嗣服文母垂簾萬姓攢手八方拭目此誠
 一初履元席政咸新之會也於是乎領史思見之願更切於
 餘生追先報今之忱益激於方寸茲陳龍章寶書以獻
 效芹曝之獻伏願聖明垂察焉天

國治忽之義。專係在。殿下施措之如何。則其真。顧不重。其出治之
本。經國之務。何莫非。急而第。其至大。而最急者。厥有七事。一曰勤學問。二
曰廣言路。三曰立紀綱。四曰恢公道。五曰尚節儉。六曰擇守牧。七曰整厯弊。政凡
此七者。皆。殿下所當勉勵。而不可闕一者也。所謂勤學問者。進德修
業之本。而其目有三。一曰正心。二曰躬行。三曰求賢。夫心者一身之主宰。萬化之原本。而原
於天理之公者。為道心。生於人欲之私者。為人心。天理至微。人欲難制。故書曰。人
心惟危。道心惟微。惟精。惟允。執厥中。此實千古帝王傳授之心法。而發其
擇之至精。執之純一。得其中正者也。所以求心之道。莫切於學問。學問之工
莫先於正心。為之惟陰陽之曰新。所以為學之無間斷。而治心之本也。高宗
之終始。典學成王之緝。淵光昭乎以講學之有進。而存心之要也。苟或半輟
無常。寒暑有時。則此心已自走作。撲捉不得。後望其學之進而心之正乎
伏願殿下日開講筵。延接儒臣。共之討論。講確從以沉潛玩繹。漫故而知。

新密問而明辨日復可進進不已必求乎正心之方而無或私意間之則聖學司

璿於高明道心底於中正矣夫躬行者實踐力行之謂也學問之道無他

心得而體認以行其當然底道理而已人有百行而孝為之源故孟子稱帝

舜之德而必曰大孝子思講武王之道而特曰達孝人君之躬行孰有大於孝

者乎伏願 殿下盡誠致敬順志無違奉養 長深必勤三朝之

禮 親視膳御備致千乘之養其心焉罔 屬 其樂也融 洩 雖

於造次之際建步之間不敢忘而不敢懈以承 太母止茲之至意盛念

奉 裸薦而必致僂見之誠法 祖宗而恒思繼述之道 聖

孝既立準海而格天則其於齊家治國化民成俗由是推去而敏於蒲

簞偃如風草矣夫賢者經明行修可以需五者也處乎試計而所禁者

堯舜之道棲於巖穴而所誦者孔周之言以之輔德則可以陳善則

任職則足以經邦安民而恒其所抱者大所守也正故不登 任職則足以經邦安民而恒其所抱者大所守也

皇而力起者非自重其身也即所以重斯道也伏願

殿下降心

賢之講學求林樊遺逸之士首諸惟惟橫經之列講究性理之微與

聖之治訪政事之得失以裨

聖治擇其博聞積行才德兼備者不次任用以

共天職則伊呂之佐不倚於異代唐虞之治可挽於今日矣

殿下懋武懋

或可謂聞言路者廣聽聰補遺闕之要而其目有言詢朝野口容直截古者

聖王舍己從人以決壅蔽故問治於朝野而又立諫鼓未言於官邸而至及

上藝無事不詢有善必納故朝而公卿大夫百執事野而士農工商無非進

言之職而後古以來特置臺閣之官委以言責則規諫之路固已狹矣今則臺

閣之言議亦復寥上下之情壅而不通得失之幾漠然無聞此豈非大可懼

深可憂者乎伏願 殿下諭勵臺閣導之使言廣聞不諱之門洞決無隱

之路使之隨事繩糾盡言闡陳以冀 清朝讜諫之風連接大臣講究致君

之道周諮百官各言林時之策而經濟之要問於道逸矯革之方責于牧

伯至今四方之民各陳痼疾覓醫之狀微乎 九重則中外無瘳大小盡情

而良謨嘉猷悉陳於前矣然直截之言人君之所難容辱下之所不敢言夫

朋友責善而苟或不聽則固難再言家人警戒而苟或不從則猶恐隔恩

况乎人主之尊如上天威之嚴如雷霆觸之而必摧犯之而必傷雖和顏而

之虛已而受之猶且畏懼慄慄不能盡言矧乎落殿聞訖非人者乎是以古

之聖王徒諫弗辨聞者若夫必曰爭違汝爾又曰乃言底績求言而如恐不聞

之言而猶恐不盡設旌木以來諫懸犀鞞而求道致嘉言罔伏而從欲以治矣伏

願 殿下峽山藪之樛度連梳續之聰明其言可採其策可用則論

辭以廢之爵賞以勸之雖或有狂妄觸犯之言亦當置之不問怒而不罪然後

言路乃廣而政法無闕矣 殿下懋哉懋哉吁謂立紀綱者可以廟朝

廷嚴宮禁振風教而其日有言清仕路曰正名分夫紀綱者有言

有氣血也導氣而調血然後榮衛實而四體運矣之

之

教成而維繫矣苟或氣虛而血耗則人不得為人綱弛而紀廢則國不得為國夫所以王者
之制治也摩修人紀以振國綱使之有條而不紊表準而示則上下遠近咸歸德
刑獲之中者皆用此道也夫立綱之道必自朝廷始而朝廷之肅不肅惟天子任
路之清不清賢者在位能者布職爵秩無濫名器無玷然後始可言治矣
伏願 殿下重繁縷而不輕予人愛弊袴而必符有功不使賤者而踰貴
不使不肖而間賢明品流之尊卑整官方之清濁使荷役吹竽之類無得
冒干而雜進且官寺只供灑掃之役而宗秩高爵太無限節其非立法
之本意也亦須嚴立科條無得僭襲則階級肅然朝綱始振矣夫名分者
以尊朝廷下至鄉閭可以辨上下定民志也義易之以陳牢高軒章之以表貴賤
皆挈綱提紀之大經大法而孔子之必先正名良有以也伏願 殿下整飭統
紀申明法意正其名位無有踰越至於閭巷匹庶之賤男而者袍女而乘輜
者一切禁錮屬一德而別人知定分而法綱乃立矣 殿下懋德武可謂恢公道

者禮曰天無私覆地無私載日月無私照王者奉三無私無私即所謂公也人君致治

之道莫大於公而其目有二曰慎賞罰曰嚴科規夫賞罰者有國之大柄也同功而

濫賞有罪而失刑則其可曰國有法乎伏願 殿下以大公正之心遵無

偏無攸之道進用賢能而責當其功退斥儉邪而罰當其罪勿以毫釐怠

行乎其間則人知勸懲而公道以敷矣夫科規者所以試功令而選人才者也試

之而不辨優劣選之而或用偏私則亦可曰科試有法乎伏願 殿下正興

文治嚴明詳法京師之舉儒則必經縉紳之薦而視其資級定其薦類多

少錄名于京兆而使之應舉解甲之舉子則必經守令之薦而較其鄉邑

之大小限其薦額之數及收冊于巡警而使之赴試從以摘發其僞手冒應者

罪其薦主則冒舉自息而士趨必勉矣考官則擇其素嫻課程持心公正者使之

常主考試而糾察私運施以重勅則考不遺珠而私不得行矣

集會試放榜後 親自臨講如有不通講章者限於三日內

試之官一並嚴勸則經術自明而人皆勵節矣

殿下懋武懋哉莊謂南

節儉者裕財之方在于節用節用之本在乎儉約而其目有二曰躬事曰

設禁夫人主身為四方之標準而躬事以正羣下化之故唐堯之茅茨土階克
致康衢之樂衛文之布衣帛冠終復楚邱之業則節儉之形率而化俗
者其非明效大驗乎伏願 殿下體大禹之菲食法文王之卑服之御惟

帳必取樵素常膳進供亦須裁損身先儉約政先樽節尚質之風行於
上則浮靡之俗寢於下如影之隨形如響之應聲矣夫設禁者所以節民
性而移民俗也上施法教而未有不行者法有禁令而亦有不從者則設

禁之若導民化俗不亦大乎伏願 殿下懋法象魏以示萬民嚴立

禁法以戒禽風朝士之翳徒甚盛者抑損之閭里之狀歸諭制者嚴新
之法死官而不使苟祿減吏類而無益煩費絕苞苴而勿使公行則侈俗
自禁而財用自紓矣易曰節以制度不傷財不害民 殿下懋武懋武

所謂擇乎政者所以分其治民者也。藩臬之責係乎伯方州縣之責係乎守令而方伯非其人則一怒被其害守令非其人則一邑受其毒可不難其人而慎其擇乎。其目有三曰嚴嚴最曰懲貪墨曰責成績。必積方伯擬薦之際擇其廉明位望之素著者而論而遣之。如有不稱則依律嚴處決無曲貸守令則先於初仕擬入之際選擇恒念簡他日守令之任及夫守令之擬差也則加遴選時遣繡使察其不稱者漸以常律處而繡使不可常遣則糾察之方只是嚴最而已。復令方伯到任採探列書每劑治政之大者錄以可否而六條之中條一皆可置之上課三可三否者置之中課二可四否者置之下課勿以八字句法輕為題目亦勿以親嫌雅約惟怠輕重則治之得失政之能否可以綜實矣夫牧民之不職其職者固非罪也而貪墨最重蓋以專事肥己流毒生民邦本不寧故也。等司覈之繡使擇之嚴最考之苟有贓汙之現發者必施極嚴之典又廷終錮之律聞師鎮時之法行其奉者一體嚴勅則貪風自斂而民生可保矣夫責成者要在久任而後其責成易

輕選列生民焉疫亦迎送好吏焉利於竊傳而治績不可以或終後上慎廢之
考熟陟又倣漢代之增秩勉勵雖有治績之著聞者勿為遷移必使著績
則吏身其職民樂其業矣伏願 陛下懋武懋文乎謂革弊政者何事非政
何故不釐而故之最大弊者厥有三焉曰田稅曰軍籍曰雜稅夫田賦者即所謂
惟正之供而今也則濫執結價添徵軍通守令吏胥皆有隱結武斷豪富並為
防結武排捧而再徵身無土而白徵至若官典吏之偷竊失結而澤不下究各
司隸之濫討情費而民被沉匿者莫非厲民之政也伏願 陛下嚴勵外方隨
其身分之上下取其結價之平正而許多奸竇一杜絕則田民少息矣又 飭守
令擇吏民之幹信者改量田制而積以歲月次第釐整則田賦輕而經界正矣夫軍
籍者收布於保軍以供京外之元軍者也今也則襍防募村冒縣投托不應納而
偏侵於貧殘無依之氓尺籍之多闕窮窮之真保者聯由此也宜令列邑查核
閱民填補簽類而項其黃口白骨之名筆其姻族河里之徵則軍有餘丁

而民不偏苦矣夫糶糶者可以均分歟而備賑綱也今也則反歸走濟者專利之實乃
 作營邑充廢之空虛分而實捧拔石而分色捧路而拔糶積道而徵民者吏
 者之弊也移實而權作小詳定加作而必取倍從債者營邑之弊也積聚細履
 之私積剽取為子之糶債者又廷京師之弊也蘇外眾瘠指不勝撻矣宜令傷破糶

糶之法而付之田無則每糶之添收者要不過二三饑而百奸類進一規自成矣 殿

下權或權或此三者有國之大政而依此矯革則庶可補苴然而徒法不可以為政亦

在於身令之得其人而已矣亦願 殿下權或權或蓋上頃所陳其事則七其

目則十有七焉而若其行之本則誠而已中庸曰誠者天之道也誠者人之道也夫

誠之為道也苟能體天道不息之誠推人道純一之誠指諸施政行事之何則而度

此頁庶績咸熙矣伏願 殿下不以人廢言逐條 鑑察仰稟 東朝怒

臣 俯忘之罪 諫臣 枝漑之悃 裁擇而詳行之則 宗社幸甚

臣 無任展啓祈懇之至謹冒昧以 聞

同治三年正月

日臣高

政院夜吟

不脫衣冠坐夜深 天顏咫尺效微忱
消埃未報恒存懼 寸識俱空每愧心
強拭昏眸書拙字 偏憐衰髮做狂吟
禁門催鑰聽鷄起 仙瀆銀臺曉色沉

夜海深 涵鼓新雨過 禁苑泛香塵
十年玉署登 遙客此日仙樓坐
真人斜倚欄 子寒月在更
將書籍短燈親幸逢 聖世奈 宮列頌祝微
誠仰北辰

夜話

前緣復續好逑園 一片秋光射酒盃
氣鬱青霞燕士醉 歌高白雪郢人來
清晨無寐頻看戶 落日多懷不上臺
詩料和今何處在 渭城垂柳漢濱梅

次國老歸拜贈別韻

逢傷不覺喜顏開萬死餘生復見來
長髮偏憐為客地昏眸遙拭望君臺
二年塞北風霜飽一路江南日月迴
為賀今行恩宥重還家應夢度公梅

謹次扶風索濟金公御賜硯韻

寶硯煌煌出紫震
聖恩偏重錫奇珍
羽毛神化長生日
花葉天機不老春
風雨南城持史筆
衣冠東國做臣隣
雲仍五守青氈
茶臼澆家聲
介石身

僑居偶吟

幸逢日老 聖明辰新
卜茅廬坐想人已往
相從京洛士晚
未還做野村民
浮沉賀俗饒
開口交結親情
強此
讀於和隨地樂生
涯澹泊暮年春

瑞石

願南瑞石歷東頭磅礴精靈太古沉大島磨天風路濶長鯨吸海
清浮青嶽八九吞雲夢氣傑萬千上岳樓禹斧餘痕神鬼護
名賢鍾處真雄州

贈朴君守登韻

粧點幽居近野天清閑先據此君年爽氣偏生能克俗虛心不
改夙林賢漏影扶疎琴弄月密陰綿幕案凝烟知君清福
兼楊寫守介生涯任自然

步書齋韻

為遣幽懷假日臨坐來晴徑却塵心潛淵魚泳同羣戲喬木鶯
迂叟友音萬谷長風平陸澗一天明月大江深幾多詞客先題咏
靜聽松篁好合襟

護風休亭韻

一登萬念總休，吸起浮生曠感愁。空有閒雲徒遠岫，惟餘孤月
下長洲。風烟已入前人述，詩句那無此日留。大陸茫茫窮眼力，幾
多遊客壯規秋。

閑居偶吟

草屋深處畫掩門，靜看柰樹倚格存。園近月閒棲息洛社人，
年忙夢覺阮耽托襟期。金_魚處問強將書籍與誰論，徒知漫興
難消遣，賴得隣家做讀喧。

詠柰

大柰當戶影樓榭，春到枝頭鎖綺霞。根托雖非和露種，華開堪
作向人誇。休云此日風雷寂，何者他時日月遮。莫向滄流傳
裏渡，舟愁或訪儂家。

夏日懷

不眠睡醒一枕長
覺來西日已斜陽
雲散遠處天光晶
風入疎簾半枕涼
閒情自適田間事
榮辱任他夢外場
好待新秋明日夜
願同村老采餘糧

贈別杜君法師

落花芳草故人稀
別令朝張感止三
尺梧桐未算十年
苦雨斗牛黃
一宵聯枕前緣續
昔論詩雅韻清
尔杖屨時旋把
稱羨知離合是
人情

村友法師遠來一宵留宿

故友逢場興欲飛
逸身老福出柴扉
林風吹枕披襟去
夢雨聲涼枕和微
藉草為茵甘膝健
看雲免日程
遠揮真那何似
同鄉兒短策停
程伴之輝

德山雜咏 次東谷先生韻

未日掩柴門
棲身端屋裏
憑欄空佇立
靜看白雲起
田家活計一心同
村拙家私不處
無事閒人惟我
在起居任意
寂寥中

倚欄望遠天際水前村
願暮烟四月初和餘
後日來秋太早身

謹次許舟所寄

聞斯聖訓慕如斯
以此扁寓不問知守分
安閒山靜日持身
謹把水清時
言禁諫忘誠能反事務
統詳信必剛二字
雖名義重行無欲
速束心廷

自述

休官歸老近於斯
榮辱何閑認不知
幸世得沉水界
百年務見
聖明時清閒心事
雲罔契淡泊生
睡日與期大夢
人間嗟恍覺
冰看遠却日廷

憫農

田家夏至過秧期
一雨胡然尚此遲
來事稍登鉅
稼功差晚反懷疑
風何競力飛揚處
雲亦無心
如逢秋不熟
民生其奈沾艱危

六月廿九日始聞蟬聲之聲有感而吟

羽毛山野各生涯
杜宇寥寥一布穀
曾聞語初驚江婦
聲聲
聲備灑故人懷
憑軒惟聽蛩喧壁
款枕徒看蟻闐階
嗚呼
帶非依悠自未自去少無差

伏日

序屬三庚火暑驕薰
天大氣燥金朝狗
美白飯親朋會豈
秀紅醪勝事邀老柳
衰耗焦日葉癯梅
蕭索物霜栢農人
莫嘆今由若炎後
陽春亦不遙

中伏甲辰六七日村老登風詠亭

後人人生不暫休
登臨此日却塵愁
蟬聲高聒風前樹
鷗夢初驚雨後洲
一自閑知不易百年
過半若難留幸同
村老觀魚樂鷄酒
前期又菊秋

樂鷄酒前期又藉秋

中原見物錄

中原見物錄

中原見物錄

中原見物錄

中原見物錄

中原見物錄

中原見物錄

中原見物錄

燕行日記

以燕行錄天

卷九十二

燕行日記

庚申二月初八日回還冬至使正使李坤副使林鴻諺書狀

啓來到京師狀 啓中具言皇上聖壽三十稱慶陳賀

在於六月初九日千秋節云： 廟堂議遣別价進賀

初十日拜聖節進賀兼謝恩副使正使李判書百經

閏三月二十四日首品方物於戶曹

二十六日封裏方物於議政府仍叅查對

三十日晴自慕華館至弘濟院十里新院二十里高陽十

里共四十里是日通行四十里趁早詣 闕下直有留待

之 命火間三使同為入 侍於熙政堂 上下教曰近

日中國賊匪須詳細探聞矣節長途安保往旋是所望也

仍各以椒盤丸藥扇子 賜給臣等伏地承 命惶恐感

戴而退與諸僚行禮於仁政殿陪表咨文出慕華館香
對畢直向弘濟院姻親故舊及門人輩俱為來別於店舍
少憇即發到高陽四十里本官李富在上京下處于吏廳
上使向春軒書狀將校廳上使書狀聯袂來訪余亦即為往謝平邱承
李胤鎮以夫馬差使負請謁上三房軍俱為來親見帶戶
叅辭疏上送報狀之自本郡呈送於畿營即是例也而本
郡禮吏之不有稟定自下直送事極駁忽故決杖禮吏
四月初一日晴自高陽至惠蔭嶺十里坡州三十里共四
十里是日通行四十里書狀來訪日出發行到坡州四十
里本官鄭斗源上京下處于東軒上使圓閣書狀使廳上使來訪夕
飯后往訪上三房撥便付家書
初二日陰自坡州至臨津江十五里長湍二十五里共四

十里中火自長湍至板橋三十里吹笛橋五里松都五里
共四十里止宿是日通行八十里平明發行到臨津鎮將
具戎服來迎過東坡入見趙卽到長湍四十里本官李仁
奎請謁下處于吏廳書狀使東軒中大訖發行到松都四十
里留守李叅判晉翼經歷金顯龜請謁下處于聽候堂使
使廳書以轎馬之太劣屢致顛蹶快棍驛卒夕飯後上使
書狀俱為來訪仍與之偕往留守所對話移時而還夜已
深矣

初三日朝陰晚晴自松都至青石洞三十里金州四十里
共七十里中火自金州至平山三十里止宿是日通行一
百里留守及經歷來別平明發行青石洞三十里秣馬到
谷峴海西倍行營吏祗迎通棋隣驛馬於餅壘街到金州

陵館四十里本官金胄鉉請謁下處于西大廳白川支供

郡守沈友澤上使東大廳海州支供判官錫書伏本邑吏部本郡支供海判韓圭錫

鉉書賸行俱獐承朴周雲以夫馬兼方物差使負請謁遂安

郡守任憲榮以都差使負請謁中火訖即發科平山三十

里本官金炳九請謁下處于鄉廳延安支供府使李源弼

上使東軒本邑支供本官金炳九金郊承金瑛默請謁本官

脩送夕饌書狀來訪五鳳下來見象書

初四日時自平山至車嶺十里慈秀二十里中火自慈秀至

屏巖四十里端興十里共五十里止宿是日通行八十里

平明發行到平山地慈秀三十里寶山館下處于西大廳

信川支供郡守金箕錫上使東大廳遂安支供郡守任憲榮書狀南道小室克山支供縣監金商濬

慈秀自是西州佳勝山水明麗林木叢蔚清川環流層壁

削立峯頂石竇玉溜噴出澄即澄澈飲之能療人店病壁
面刻曰玉乳靈巖即 皇明翰林劉鴻訓所題又曰玉溜
泉曰聽泉仙榻即翰林編修朱之蕃所書又曰懸珠太監

盧維寧借筆曰玉乳曰珍珠泉即副總兵程龍所題最高
處太監丹登刻其像此皆為古蹟也中火訖發行到瑞典

五十里本官金教性請謁下處于吏廳載寧支供郡守南

東善廳使東軒本官支供書狀鄉往見南晋州芝者於謫野

以酒肴送饋之入見本倅倫送夕饌及夜饌又有賧

行上使及書狀同為來訪余又往謝黃海兵使宗秀遣親

牌問安

初五日晴自瑞興至土橋十里鈎水三十里中文自鈎水
至鳳山三十里止宿是日通行七十里日出發行到鈎水

四十里鳳陽館下處于西室殷栗支供縣監金在獻東室使
文化支供縣令林勝沐書狀 中火訖發行到鳳山三十里
南室長連支供縣監李圭浩 郡守金鍵上京下處于待鳳軒松木支供縣監尹而自本
 邑舉行上使車軒自本色支供書狀 上使及書狀來訪以
 處所之軒暢坐話移時仍同啜夕飯
 初六日晴自鳳山至洞仙巖十里舍人岩十里黃州二十
 里共四十里止宿是日通行四十里日出發行踰洞仙關
 巖路不甚高峻而山勢雄偉樹木鬱密儘是一路關阨關
 外有舍人巖巖石峭嶮俗稱古舍人吹笛處云至龜橋因
 輜板之破陷下坐店舍上使書狀繼到同為下坐少話先
 發到四十里黃州城外有六世祖牧使公遺愛碑閣守直
 人府吏崔載崙舖陳於碑閣下以為下馬之藪矣下處于

鄉射堂安岳支上使供郡守洪爽鍾上使豐川支本邑支供書狀

本官金夷均請金郊永猗隣承俱以香對官請謁書狀來訪

香對於齊安堂堂是本牧政衙而背山顯野棟宇宏暢城

之東南隅有高亭翼然扁以月波取黃園竹樓與月波樓

通之意而今無一叢竹矣其慕效也以名不以宗難免識者

之譏也查對狀 啓便付家書兵使宗秀虞侯南錫玄俱

為請謁龐津水使李章瀛遣親裨問安

初七日雨自黃州至駒峴三十里中和二十里共五十里

中火自中和至永濟橋四十里大同江五里平壤五里共

五十里止宿是日通行一百里開東發行到芝突撥所通

馬即魚川驛馬也至中和五十里下處于鄉射堂上使軒書狀

使代錢關收西來則自他本邑舉支行供云並以 本官白樂源以都差使負請謁

大同丞朴賢楷以夫馬差使負請謁梓京郡守徐老昂以方物
差使負請謁閩西陪行營吏祗迨中火訖上副三房次第前行諸
裨譯官備從使之一齊隨後冒雨作行。數十里因輜馬之
橫迭下輜乘馬行十許里復來輜到湟江邊上使書狀俱下輜
而待之見一葉小艇彩閣縹緗粉黛掉約絲管啁啾汎中流
宛轉來迨與之登舟溯流而上泊舟浮碧樓下從轉錦門登浮
碧樓西州風物曾所歷覽無容更述今馬十數載之間以使節
重過江山樓臺依稀昔日面目矣本官趙然明請謁內從弟龍
岡縣令李正曾以查對官來到與之欣叙於樓中少憩進茶啖
下樓過永明寺復乘舟而下日已暮矣回舉燭至大同門外
按使徐判書戴淳亦乘舡來迎與之欣握叙話仍下舡由
大同門共登練光亭少話而罷乘輜子冒雨歷訪龍岡停於

所住處轉到宿所即本府鄉廳也

上使練光亭書
狀本府吏廳

初八日陰書狀來訪龍崗倅入謁飯後查對于宣化堂查

對官本官及龍崗倅也狀 啓便付家書查對後觀鈞舞

往見本官江西縣令金性根請謁夕飯後與上使書狀及

本官江西倅俱登大同門觀燈旋即下樓登艍湖上中流

聽妓樂觀落火夜闌復從大同門還宿所龍崗三登江西

與按使本官皆有贖方物差使負祥原郡守有頃以大同

承差代云

初九日朝兩晚晴自平壤至七星門五里箕子墓一里順

安四十里共五十里止宿是日通行五十里書狀來訪午

後發行歷別按使及本官由七星門與上使同登兔山箕

子墓周覽古蹟而行到順安五十里下處于鄉射堂

上使
東軒

書狀 本官金永應及大同承請謁

肅川三十里

初十日兩自順安至冷井揆站三十里共六十里止宿是日通行六十里本倅請謁日出發行冒雨抵肅川六十里下處于鄉社堂書上使東軒本官金尚奎請謁以前站橫迭馬之復為駕立決棍驛卒上使書狀俱為來話本官有驢行派定赴燕下人

十一日朝晴晚洒兩自肅川至雲岩揆所三十里安州三十里共六十里止宿是日通行六十里平明發行抵安州六十里終到外城門內民家數十餘戶新經回祿景色愁慘一隊民夫來拚輪扛啼號求恤雖極矜憐使行苦乏救濟之術可歎下處于本府吏廳書上使東軒查對于東軒查對官本官趙雲卿魚川承趙光濟本官及兵使鄭岐源虞

侯崔承祖俱為請謁魚川承以清並夫馬差使負請謁江
界府使鄭夏應寧邊府使朴麟夏俱致書賸行本官及兵
使亦有賸此亦閔西雄府鐵瓮峙其此薩水環其西城分
內外居民櫛比誠一閔阨重鎮而丁卯之變節度使南以
興死節處也伊時其從弟南以恭奉使赴燕一日 皇朝
以金字大書於黑錦長旗曰朝鮮國安州將軍南以興為
天朝死節揮之於殿門蓋庶嘉之意也以恭始知其兄之
死於虜而中朝卿宰皆來吊云其貞忠毅烈至今使人興
感不已也城西有百祥樓樓即高麗恭愍王所構而其扁
額亦恭愍筆也壓臨城上平挹江色棟宇宏傑比之練光
浮碧不啻過之古則江路直抵檻外今則蒼桑寔迂江路
稍退隔以林藪平野只見水色帆影而已北門外有七佛

寺諺傳隋煬帝發百萬兵征高麗六師抵薩水方其行渡
也有七僧從流不揭而徒涉隋兵知其水淺驅兵直進前
鋒沉水軍中大亂守將乙支文德縱兵大伐遂大捷蓋七
僧是江邊七石佛化而為僧以誘致隋師也以故勸此寺
於江邊云

十二日朝陰晚晴自安州至清川江十里細浦五里博川
津頭三十五里秣馬嘉山二十里共七十里中火自嘉山
至曉星嶺五里納清亭二十里定川三十五里共六十里
止宿是日通行一百三十里平明發行渡清川江及細浦
清川源出江界狀踰嶺南注與香岳水合流百餘里為此
江又與大定江合流入于老江踰赤峴到博川津頭即博
川界也自邑畧供酒饌預待於舟中秣馬後渡江。廣稍

濶江色不能清漣江名有三曰孟泗曰大寧曰大定昔東
明王自北扶餘南奔渡北江關舟楫魚鱉成橋得利涉云
源出昌城府浮雲山南注為此江西流過廣通院與清川
江合入于海午浚低嘉山七十里邑是炭邑松檜滿山民
居鮮火頗有幽僻之趣下處于鄉社堂書上使東軒本官黃
鍾林上京無任恃川郡守李志鼎熙川郡守任誠模俱為
清謁中火訖發行踰曉星巔：路迢回不甚高峻過納清
亭又踰舊長壁巔到定川六十里本官柳琬上京下處于
鄉廳書上使東軒此亦西路雄府城雉之登固邑里之繁索
足為一方閼阨

十三日晴自定川至當我巔十五里郭山十五里共三十
里中火自郭山至宣川四十里止宿是日通行七十里日

出發行踰小峴踰而又踰者九九處到郭山三十里下處
 于鄉廳書上使東軒本官洪台慶請請中火訖發行到宣川
 四十里下邑是防禦重鎮官衙雄麗風物可觀軒上使侍觀
 德本官李奎燦熙川郡守俱為請請伯氏曾於丙辰別
 行時於府妓處生女今五歲矣招入見之稍慰客懷
 十四日晴留宣川府中有妓樂頂莊舞等可觀戲具使
 行例多留觀云而因上使之私忌未得設施適有過去伶
 優與書狀同聽一場安令又觀群妓鞞鞞夕飯后又與書
 狀本官同聽安令
 十五日晴自宣川至東林山城二十五里東鞞館二十里
 共四十里五中火自車鞞館至西林山城十五里良榮館
 十五里共三十里止宿是日通行七十五里與上使書狀

及本官魚川承望 闕禮日出即發過東林山城之將具

戎服出迎城是彈丸周遭扁小宗無緩急之可恃矣到鐵

山地車輦館五十里距邑為三十里下處于西大廳東上使

廳書狀鐵山府使具昌植龍川府使李祉秀及宣沙浦西

林兩鎮將請謁廳壁有詩云輦玉車金仰帝朝銅龍門啓

迓星輅郵筒記日鄉懷功繡隴鋪雲野趣饒遠樹綠搖蟬

翼薄輓塵紅襯馮啼嬌平密淺水秋偏麗莫羨江南十四

橋道光丁酉仲秋月作昂雲明訓中大訖茲行歷西林山

城之將亦知東林例出迎城堞亦如東林相等矣到龍川

地龍泉館三十里龍泉館又名良榮館以聽流扁其堂之

前層巖壁立清流繞檻水聲潺湲林風滿洒頓有清閒

意想下處于西室上使聽流堂龍川倅請謁夕飯后書狀

來話撥便見家書

十六日晴自良策館至義順館四十里中火義州三十五里是日通行七十五里日出發行西望龍骨山城山勢坤天石角律兗丁卯之亂清北列鎮長第陷沒而獨龍骨守將鄭鳳壽堅守得捷地利可知歷明州坪望白馬山城雉堞崢嶸橫截雲霄此是丙丁之亂林忠愍敬崇自白馬大破清兵高壘堅守民賴以保儘是天作鐵瓮日未午到義州地野串義順館五十里下處于西大廳上使東大廳書然西廳中火訖發行踰加老介嶺過烏木橋到義州府三十五里下處于吏廳上使來宣閱書狀訓鍊府尹李叅判及熙川郡守請謁往見上使上使之曾任是府也有遺愛於民自入義州境以後居民設供帳於途遮迎其行者甚多以是之故上使

之行值暮到府灣府即西塞雄府土地肥沃利兼山海貨
通燕代居民稠疊或值邊警每患先摧古邑城址太廣
難於防守丁卯之亂兵民魚肉李莞死之厥後減築而小
之云

十七日晴與上使書狀會于本府同啜朝飯仍為香對香
對官本府尹及魚川承也狀 啓便付家書適毛倡與甲
來留府中招入聽歌申後罷歸薪島僉使趙萬赫以柵外
夫馬差使負請謁

十八日晴往訪上使書狀及本府尹同登統軍亭在城
之西北阡截處俯臨三江平挹大野遙瞻塞上諸山簇立
樹木葱鬱成幕分列徃獵烟起於^林莽之間魚子威化獐子
諸島碁置於江中眼界浩渺風物佳麗使人登臨頓有懷

鄉之意焉。伎戲方張，忽歎伎春雲病風癘，顛倒一座驚還。可謂殺風景，仍罷還。

十九日雨晴，晚本府尹與書狀封畏方物，仍與之來會同。啜朝飯，薪島僉使請謁，與上使書狀同往本府，晚還。

二十日雨雹，晚晴，與本府尹及上使書狀約往桃花洞，為兩野阻而未果。暫會聚勝亭，即我宣廟播越時駐蹕之所也。堂捐揭聚勝堂乃宣廟御筆也。扁端有小識：雲漢璀璨寶墨，猶新追憶往事，不覺起感，仍同還本府，晚罷撥便付家書。

二十一日晴

二十二日晴，朝飯後與上使書狀及本府尹同往東門外桃花洞，府淺露泉石無奇，但見小壑中，莫林園池而已。

日晚罷還新島僉使請謁

二十三日雨終日不止入送行卜於本府使之照檢蓋例也皆按例照檢只貼一片印紙而已本府尹來話

二十四日朝陰晚晴自義州至鴨綠江五里小西江一里中江四里方坡浦五里三江五里九連城四里共二十四里中火^自九連城至恒頭河子二里九連城站四里望隅八里者音卜四里碑石隅二里松隅三里馬轉坂一里石隅五里金石山七里中衙門三里溫井坪五里共三十八里止宿是日通行六十二里今日即渡江日也修付家書於渡江狀啓便日出發行本府尹設供帳於江頭酌餞而後發此是我國地盡頭鴨綠江也鴨綠江又名馬訾水又名清河又名龍濟源出靺鞨之白山色苦鴨頭故謂之鴨綠

白山即白頭山。海經曰不咸山與黃河長江並稱天下之三大水者是也。渡江時搜檢之法自昔至嚴。蓋聞舊規則本府尹與書狀凌晨出坐於江頭。校閱人馬。人則並錄其姓名。居住年紀。髻疤馬則錄其毛色。立三旗為門。搜其禁物名目甚多。而人參黃金。竅為難慎。現捉於初旗者。重搃中旗者。配三旗者。梟首現捉之物。並云屬之。裨譯則鮮視行裝。隸徒則撥衣披袴。嚴防姦細。云矣。挽近以來。非徒法久解弛。今此別行。包皆空。無足可搜。徒為文具而已。再渡中江。行未及十里。又渡三江。本名受刺河。今云三江之意。似緣渡而又渡者。三故。仍以三江稱之也。與鴨綠異源。清濯如練。亦不甚廣。到此即是彼我交界。江岸多甲軍。成幕。甲軍葦簇立江干。見我下隸。雙手端揖曰。爾們的不

時節緣何朝貢長途辛苦麼下隸輩亦皆答揖面：相告
曰好：麼吾們的為是皇上聖壽三十千秋節進賀事去
了蓋甲軍輩之有苦勞迎者曾與灣隸輩每有宿面故
也見江中役人數三乘著小舸而去舡制與我國不同劈
取巨木鑿為長筒狀若馬槽矣始渡鴨綠自不覺悵望底
意想及渡三江登岸回顧猶可見灣府城堞遠：指點益
不禁依斗懷土之戀轉到山回路曲之處但見雲山疊重
前途杳茫惟有促駕趨程言邁言旋之想而已抵三十里
九連城：址宛然古者九城相連故名九連又曰發陽城
金時將軍翰魯拒高麗時築城於此 皇明時為鎮江城
月沙李相公迂屯丙辰朝天時立遊擊坦鎮守此城出候
於十里外設供帳至以彩棚戲助歡張軍樂脩大小膳禮

遇甚隆云及清陷遼鎮江民不肯剃頭或散授毛文龍或
投越我國其後並為清人刷還以其地仍作空棄之地云
此即中火所而乾粮所供始於此站自灣府來設幙帳於
山隈林莽之中倚樹為架藉草為茵臨溪為厨撐石為鼎
饌具醇淡宛若山穀野菽猶勝於灣府官厨之供三房同
坐吸罷即發轉入炭口山川秀朗林木葱蔚谷之開野土
地肥沃可算人居况聞鷄鳴犬吠之聲恨是累百年廢棄
之地不得開拓是可嘆也抵四十里溫井坪例是露宿處
也又自灣府來設十餘處人字幙帳見幾十群人馬下馱
散處曠野開設厨房堆積火具亦一壯觀入處一窠幙裏
下設火坎足以度夜然初頭若况亦極辛酸夕飯後與上
使書狀露坐移時而罷金石山在九連城^北三十里 皇明

人康世爵所隱處世爵本荊州人其祖霖從楊鎬東援死於平山其父國恭萬曆間坐謫遼陽世爵年十八隨父在遼陽時清兵陷遼世爵父子從都督劉綎出毛嶺劉綎自燒死國恭中流矢死適朝鮮都元帥姜弘立副元帥金景瑞陣山上世爵投之弘並不戰而降清人搜明兵之攬入者縛之世爵亦被縛艱圖解脫換着朝鮮死者衣攬入朝鮮軍中以得免於死至鳳凰城隱於金石山中明木葉穀月死不遂渡鴨入會聚東婦生二子世爵年八十餘子孫蕃衍至今相傳云

二十五日雨下霏微平明自渥井坪至乾浦三里細浦七里柳田二里湯站九里慈秀站三里魚龍堆一里車踰項四里至八石十里上龍山三里柵門十里共五十二里止

宿平明冒雨發行二十許里有古城址卽湯山城明時所築云而來詳所據澗谷中林木夾路樹枝上多掛草根水痕距平地殆近十丈知是往潦餘痕可想當日懷襄之勢窈為還到時可怕又行數里到葱秀站山形水勢宛似我國平山之葱秀皇明倪文僖謙奉使東來見平山葱秀與此相同取以為名云北望鳳凰山而荆棘塞路蹊途迷茫趨出穀十里路漸平易野稍恢豁茅見綠茸芳草地上有幾百群馬牛驢騾羊豕等畜之放牧者甚多諸牧子頭戴草織笠子如我國之涼子樣身着青黑衣執一條長鞭向空一揮響礫砢震動天地畜群之散處者一齊來集分隊相聚各從其主無揮雜橫迭之弊甚可異也五十里柵門卽是三間草屋中間設板扉兩扇高幾丈餘至於木柵則盡

為破壞無所存焉我人謂之柵門本處人稱架子門內地人稱邊門三使俱卸轎於柵外路在設三使幕次蓋自灣府來設者也仍坐轎內以篋開門湏臾無數彼人引類招朋爭集窺視皆口啣烟竹或衣黑緞或衣紋綉野繭絲袴襦亦如之呼佩纈紛繡囊珮刀烟竹袋如葫蘆狀扇子匣如竹筒皆刺繡花草禽鳥之形負手環擁睥睨指點而相語曰他的多乙人麼他的乙大人麼他的山大人麼紛紜喧咭語音啁啾蓋漢音以大為多大乙人者指上使也漢音以二為乙乙大人者指副使也漢音以三為山三大人者指書狀也使報門通事報于鳳凰城將俄頃城將及稅官出坐門內開門許入從官以下皆下馬步過見門左廳上設交椅列坐者數人而着紅毛帽子羅立於臺下者甚

衆威儀可觀下處於鄂家坑柵內間舍櫛比街術平直市
舖擺列之物亦皆齊整鮮楚於此際可見其規模制度曾
於壬寅^內舅氏蒞尹灣府余自成川舍伯任取轉到灣府時
值使行越境之後邊門無碍為是觀玩越往柵門歷覽鳳
城安市等處留數日而還意以為平生壯遊止此已矣今
當此行將直達幽燕奇翫異觀可以次第搜閱固知世
事之不可自期亦不可自料者類若是也書狀來訪家書
自灣入來二度書續^連來到甚欣柵之北隅有閔帝廟又有
財神廟未知安何錢神而俱無教麗之觀
二十六日朝霧晚晴留柵門往訪上使書狀聞柵門後里
許地有此土巨富哈福全家舖号延昌而使行之留柵也
每夕往觀云與上使書狀乘步輜而往洞壑不甚幽邃門

庭亦極廣豁以方軌等面墻與外門相對有吾屏障之塞
門馮外門揭金板大書杖鄉榮慶四字重門又揭金板大
書籌添六秩四字門內又以板木設為面墻當門而障之塗
皁青朱光澤澄潔卽我國所云板墻也迂回而入有屋當
中橫截正面洽訃十數間乃此地所云廚房而凡飲食之
需克物不匱如王黍之粉可以探麵黍稷之米可以為炊
甗饗：酒醴盈：油盞醬醋之屬無不畢備見簷宇之下
懸以累：黑物皆猪肉也蓋間臘且殺猪用塩漬之滓以
烟煤懸之簷間經春過夏隨意割食無腐敗之患云廚房
之前左右有内外舍相對如翼廊之狀右是內舍婦女釋
兒居馮左是外舍凡炕內所設之物頗多精巧如體鏡硯
具石獅及書畫楹聯之屬縱橫交錯又如交椅方凳高床

之具甚多而書冊等屬初無擺列者主人為者田庄出在他處而其侄慶年在焉年令二十七為能對賓酬接其子五歲小兒自內舍踰門出來一個樣髻髮薙髡襦袴青黑頭戴刺繡小帽鉢盂樣子之一般眉目頗清媚有人指導至前曰這位面前叩頭即拜謁之禮也而但屈一膝頭一叩而已蓋其拜法本自如是初不識拜于稽首折腰屈膝之制其豈周孔制禮節旋儀文如是也其必滿人拜套只用一膝也第其拜迎款接之意要在討得清心丸藥彼人之酷好丸藥不啻過於他人而且我人之過去也每見貽贈故也乃以一丸給之且能獲手擎持點頭叩謝以致感頌之意傍有群兒讀書之室一學究踞椅危坐見我入來能知起身端揖賁飾禮數可嘉也學

童十餘個或讀論孟或誦詩書講聲急促可駭可聽只能
誦讀未嘗講義久之習誦自然悟解云以其所習章句乃
是日用恒語所以易於曉解雖婦人孺子目不識丁而口
能吐鳳以其因文字而入于言語故也對門之家即哈福
金從兄家而曾為進士出身者也又往觀之屋舍制樣與
福金家相同炕內所設之物稍下於福金家而亦多新鮮
之物矣又有十餘歲小兒即是主人孫兒也見客來到亦
屈一膝拜謁於前又以一丸清心給之茶僮各進一鍾茶
擎以白鑷蕉葉敷猷之床上吸罷又進一鍾隨吸隨進必
聞再不也之語然後不復更進此其對客進茶之禮然也
非徒進茶之節如是茶僮之意亦專在於清心丸不獲已
每給以一丸遍覽既畢與上使書狀回來各還下處

二十七日朝晴晚陰留柵門往訪上使書狀午後上使書
狀俱為來訪

二十八日晴自柵門至安市城五里襟坪二里鳳池四里
舊柵門三里鳳凰山十三里鳳凰城四里三入河六里二
臺子四里乾子浦十里共五十里中火自乾子浦至四台
子一里伯顏洞九里麻嶺姑十里松站十里小長嶺五里
瓮北河五里大長嶺五里劉家河八里黃家庄二里共五
十五里止宿是日通行一百五里平明發行過安市城下
蓋安市城四面皆山峻只有城門舊址可通徑路騎不得
上矢不得穿直是鐵瓮宜其唐文皇之累征未下而千載
之下想見親自囊沙填壑之狀城帥城上拜天子之儀矣
城將楊萬春遠此彈丸小城能拒百萬之師其地勢之險

峻可知文皇之賞以三百匹絹者亦可笑也其時麗將近
壽惠真陣於城東南八里以地勢推之乃今之柵門等處
也到鳳池見一輛大車滿載無數女伴駕以六七騾牛似
是遊玩之狀皆着新鮮衣制樣與男子所着無異首飾則
皆魁結而挿花耳着明璫足穿繡鞋或載草織笠子吾行
過處駐車而觀之火無羞澁回避之意可異也歷鳳凰山
羣峯挿天山勢縹緲即天將李提督出師時刺駐處也昔
學士汝芳素官隱居于此月翁詩云廬嶽遠師同結社鹿
門龐德竟携家金堂玉署夢魂斷白石蒼松生計多可想
其高標出類也抵四十里乾子浦中火三行俱會一處蓋
中火同處例也中火訖發行過顏洞俗稱元時伯顏駐兵
處踰麻姑嶺嶺不甚高峻馮到松站一名薛劉站又名雪

裏站太宗東征時薛仁貴劉仁願駐兵處也薛劉與雪裏音訓相近又東俗釋松為率之音又與薛劉相近蓋一站之互冒三名未知本他人而當渾冒否也然茅以東人而稱推之似因東音之互用俗音轉相訛謬之故而苟究本名似不外乎薛劉駐兵之義也書狀先到不坐於李姓舖中余因下轎而入上使亦繼到與之火憇舖中所設之物別無可玩轉往對家李姓舖即新設之舖也門上揭金板書謙受益三字舖中又揭居奇二字所設之物只是香封青布等屬亦無可玩舍後新起大家土木方張工匠齊整制度廣豁規模可見矣即與上使書狀俱乘步轎踰小長嶺渡三家河又踰大長嶺少憇渡劉家河抵四十里黃家莊黃姓炕止宿村多黃姓居之云日昏聞鳴鐸墨鉦巡

夜之聲蓋使行止宿之站例自村中巡警言云

二十九日晴自黃家庄至八渡河五里獐項一里林家臺
九里范家臺五里二道步身五里通遠堡十里共三十五
里中火自遠通堡至石隅五里和尚庄八里草河口橋十
里雷洞二里分水嶺十五里高家嶺六里俞家嶺四里連
山関五里共五十里止宿是日通行八十五里平明發行
渡金家河即所云八渡河一水八渡故謂之八渡河也炭
路迂回渡而又渡者不啻八渡抵三十里五通遠堡之有
典當舖屋舍頗宏豁門外建一大柱檣以丹碧雕鏤金彩
懸一瓦鏡金牌書以一當字牌旁書惟軍鬼不當五字
此其牌標也所當之物不一而足付籤書物至姓名居住
及所典之月日若過期限便即許賣殖不過付二云中火

訖發行到草河口橋見樹林邊設五六處架屋皆覆以蘆
簞男女數百群擾々來往卽是唱戲處也書狀已過去上
使先到下轎於樹陰下余亦下轎同往戲處見最巨架屋
之上設高棚以紅碧繡帳中分而障之帳內卽是諸戲漢
粧着戲具換面改頭做出戲本之地而帳外卽是戲臺設長
卓有吹笙弄笛之人踞卓而坐左右欄邊設交椅使觀光
者踞之與上使設交椅於棚下而坐且有女群之來觀者
皆粧盛飾乘車而來駐車於棚下仍乘車觀玩容止極其
都雅所駕驟牛舉皆卸却啣勒放散於山隈草間任其
飽吃以至罷時各自牽致人無雜運擾攘之弊馬無橫送
換錯之患其他規玩之人或立或坐棚上棚下如堵如海
諸戲漢進一小貼子錄衆戲名色請設臨潼山戲未知此

戲始自何時而亦未知演起何樣杜觀須臾一個漢自帳
中出來身着白本絲畫衣頭戴一具烏帽腰繫一條黑畫
帶衣似章服帽似紗帽帶似角帶未詳何朝冠服立於棚
上或唱歌或諧語或咆哮詞曲嘈晰語音急促俱無以解
悟那漢入去又有一個漢歸女子巾服而來所戴所著不
甚華美制樣極其平常又能嘲諧或張袖而舞或牽裾而
語少頃入去又有二個漢頭戴赤帕身着畫襦唱歌而來頃
臬入去又有四個漢出來二漢頭戴黃金堯身着彩畫戰
袍二漢頭戴黃帕身着黃衣或稱漢昭烈或稱張翼德馬
超趙雲手提鎗鋒咆嗚呐喊如交戰之狀幾回所見盡是眾
漢之迭着戲具嘲諧唱喏而且未能解曉言語但觀服着
動作而已殊覺沒味也使上判事馬頭給數鈔錢數為藥印

與上使乘輜登途踰分水嶺蓋水源各分東西嶺東之水則東流嶺西之水則西流故謂之分水又踰高家嶺劉家嶺抵五十里連山關止宿於哈家炕連山關一名鴉鶻即皇明總兵李如柏賀世賢閻鳴泰兵將六萬由清河路攻遼州處又丙子春信使羅德憲棄清書逃歸處事見大清開國方略自此有捷徑可以不由瀋陽直抵山海關成化十六年朝鮮清改貢途兵部尚書劉大夏奏以為朝鮮貢途之迂回即祖宗微意仍不許云

五月初一日甲午朝陰晚晴自連山關至會寧嶺二十里甜水河十七里甜水站三里共四十里中火自甜水站至青石嶺十里小石嶺五里狼子山十五里共三十里止宿是日通行七十里朝起聞砲聲蓋俗於月朔放砲以辟鬼

云義州將校回去便付家書平明發行行至數里山頂有
叢祠即所云娘廟也卸轎於峯前攀壁而上廟不過數
間與佛宇相等畫為傾頽而無侈麗之觀塑像甚多或抱
孩兒或美孩兒又有一像抱九個孩於懷裏負三個孩於
背上檯外有像手持一短杖揭扶一個大眼睜而坐審其
像則眇一目為扶一睛眇一目之故殊未可知也廟左屋
中有一軀金像焚香其前廟左有一間高閣懸以小鍾廟
後有炕陋穢不堪坐即僧徒所居也有二碑一錄施主姓
名一書重修記文乃乾隆年間所豎觀其記文中有碧霞
元君之稱而通巖上人曾居此地云然未知何像是碧霞
也楮上揭天仙聖母四家娘之義亦未有的據蓋民間
祈福求嗣之女娘多會于此故得此名而多設众孩之像

者亦由此欵廟前左右立二箇紅漆大柱高可三四丈懸以青布小旗一書風調雨順四字一書國泰民安四字每於朔望則懸之以祈禱云凡闕廟及諸廟祠之前皆立彩紅竿者蓋因此也上使及書狀次第來到與之周覽訖步下山坂復乘轎至會寧嶺下入關帝廟別無可玩內相上書大丈夫三字即年前奉勅東來之景廡筆也又揭亘古一人四字外相上揭五峯觀三字西邊小宇有一佛像相上揭慈悲大士四字又揭慈航普渡四字皆用金彩別無侈玩行過村間之間家走出婦女無老無少皆施朱鉛挿花垂璫口含烟竹手持鞋襪底所縫連針帶線簇立觀光蓋此地女紅惟是鞋底縫衲之工而已五六歲女兒亦能口啣短小烟竹趨走觀光者最為絕倒與上使書狀乘

步輜踰會寧嶺，甚高峻，轉至嶺顛，關帝廟下。火憇又來，步輜而下，渡甜水。河南望山上有塔亭，至四十里甜水站，中火蓋。此處水性皆不潔，獨此站之水稍勝，故云甜水。路見二人各乘一車而過，以黃布小旗書鳳凰城邊門章。京七字，挿之車上，未知是何官人，而似是護送我行之章。京護送官也在途，初無相關於我，故同行幾日不識面目也。中火訖，發行乘車者皆撫青石之險，由希狼谷，迂回二十里而往，云矣。踰青石嶺，不甚峻，截而但石角磋砢，馬不能進，艱辛抵嶺上，關廟下。火憇乘輜下山，踰小石嶺，與青石相連，踰稍平易，馬抵四十里狼子山王家炕，正宿。狼子山，唐太宗東征時失途，夜聞鷄鳴聲，尋林藪中得一狼子，會歡，天明視之，身在一塊石上，倚其石，狀如鷄，因達。

鷄鳴寺祀之云而今未詳鷄鳴寺尚在於何處否也
初二日晴大熱昏後雨雹

自狼子山至馬蹄嶺八里頭關站八里三流河四里五
祥嶺十里石門嶺四里王寶臺六里共四十里中火自王
寶臺至高麗叢十里阿彌庄五里木廠五里太子河九里
迎水寺一里共三十里止宿是日通行七十里回送義州步輜
軍平明發行踰馬蹄嶺渡三流河自此山氣漸覺低平稍
有開野之意遼城知在不遠踰五祥嶺登石門嶺皆坦
易無石齒之嶮峻擡頭憑眺眼界浩渺大地茫茫頓有望
洋憑虛之想嶽巖所云當法嬰兒好做一場真聲者此也
到四十里王寶臺或曰王寶即王八漢語之聲相近也俗
稱王八為嶮此地有嶮峯故云中火訛發行十餘里下

輜乘車過高麗叢蓋高麗人之被虜者因居于此故云高麗叢自阿彌庄前南望遼陽白塔聳出雲霄塔之高截蓋可揣也至木廠即遼東城東門外也東北之巨材羨木盡輸在此國北界所產之材率多檉筱而來連抱杞梓累之堆積殆不可以數計矣東門入遼東城門是重簷門上刻綏遠門三字門外等半月曲城而不設譙樓此亦東州之一都會也人民繁殷屋舖宏麗尋常層閣特立競出金彩塗丹比屋皆然向北以後初壯觀也見塵市之侈高設架屋覆以蘆簟見樂工七八人列坐架上美茄吹笛置鉦鼓角音調急促不堪聞問之則俗有喪張樂受吊至於葬前率以為送死之大節矣禮教之掃地人理之蔑絕莫此為甚安有哀戚下地鼓樂相加之理哉此可謂夷虜之風也

適見一輛小車轎。過街街上去車前有四個人着紅毛
帽子乘馬前導車中有一婦人端坐服飾儼然車板前有
一女子出坐蓋乘馬前導者即其下隸出坐車板者即其
父鬢而車中婦人未詳誰家婦人其尋常出入之節固如
是也自東門一道直從西門出來門額曰順安歷入閔帝廟
上使書狀已先到矣周覽廟宇制度宏傑雕鏤丹雘極其
燦爛正殿楣額揭伏魔殿三字殿內揭元精當中又揭萬
世人極中天行宮亘古莫及至大至剛至聖至神光明正
大隣經聖業扶日開天等語不可勝記而皆用金碧彩大
書之章多列朝御筆而神卓上即設香爐之屬皆極精麗
殿內列侍之塑像甚多皆未詳其誰某像也左右翼廡亦
有塑像甚偉左是翼德右是子龍其下甍廳廣豁多有扁

揭左右壁面用金片大青石為之刻重修記文、中盛此廟
之壯麗甲於天下殿前小字扁額書加封忠義神武靈佑伏
魔大帝十二字以青彩書之又揭我武惟揚大丈夫等字正門
之外有高楼設彩九極新鮮揭摘錦樓三字又揭飛雲誦三字
蓋此樓即唱戲處也九闕廟寺觀之前特建一樓者皆為唱戲
而設也左右有鍾鼓二樓當面有牌樓三間樓上揭額如日萬
古英風協天護國等語者甚多其外有石壁面牆刻以龍文蜿
蜒之狀極其精巧殿後有二小閣一安閔氏位牌一只設爐藝
香而已少憩訖復乘車出闕廟由城下行半里有白塔蓋
八面十五層高七十仞下層面皆安小佛像第四層書
碧漢流光四字每角懸以風磬錚有聲寂上頭挿以鐵
籤繫以鐵絲遠望之猶可指點其縹緲之狀世傳唐

尉遲敬德平師伐高句麗時所築也。又傳皇明袁崇煖改
修云塔。後有寺名曰白塔寺，又名廣祐寺。中有自來佛
尊。俗傳古有一鄉民往廣寧路，遇一童子曰：我欲往廣祐
寺，能負我以往，當以銀布相酬。其人負其童子，毅百里之
間，不終朝而至。寺始見之，乃一金身佛也。寺僧異之，酬
以銀布，仍供奉於寺中。云仙人丁令威乘鶴而歸也。見遼
東城郭，人民已改，悲鳴作歌。此其令威所萃，表柱非也。萃
表柱在遼陽城外西南十里，地有數尺石柱，丁令威化鶴之處。
後人作丁公祠，云轉迴北城下，還至東城隅，始出直路，循
城而迺回者，凡十餘里。東望山隈，里許地有遼陽舊治城
址，宛然。民居尚存。按遼東舊城在漢襄平、遼陽二縣地。秦
曰遼東，後入衛滿、朝鮮、漢之四郡。大半跨據於遼界。漢末

為公孫度所據卒入於曹魏五湖之世鮮卑據之隋唐時屬高句麗契丹稱南京金稱東京元置行省 皇明置定遼衛今墜為遼陽州城周二十里或謂熊廷弼所築也

明時貢路自舊遼東向西南就鞍山路行此距鞍山為六十里云渡太子河橋世傳燕太子丹避秦入于行水處史載丹亡匿于遼東斬而獻之于秦又名行水源出遼外永吉州到四十里迎水寺止宿蓋店名之稱寺者無有所據今無寺觀於近地抑未知舊日寺址也欽炕壁有二幅書此地有崇山峻嶺其人多好仁強義朝鮮星沙一幅書晉人稱名教樂地漢代有孝弟力田 朝鮮星沙二幅書俱是姜判書時永筆也

初三日朝風微涼晚晴自迎水寺至接官廳十二里防虛

所六里三道把五里爛泥堡五里共二十八里秣馬自爛泥
堡至萬寶橋六里烟臺河堡四里山腰舖五里臺五里十
里河堡七里共二十七里止宿是日通行五十里辰時發行過
接官廳即舊時接使星之處而仍作地名者也到爛泥堡秣
馬此是遼野中寂稱沮洳地而近為久旱反見塵埃漲昏
飛撲滿面不辨馬首雖謂之乾土堡亦可也秣馬訖發行
到十里河堡宿站日尚未午矣

初四日朝陰晚雨旋晴卡陽自十里河至板橋堡五里長
盛店五里古家子四里沙河堡六里暴交奎六里禮匠舖
四里火燒橋二里白塔舖八里共四十里中火自白塔舖
至一所臺五里渾河堡五里渾河一里瀋陽九里共二十
里止宿是日通行六十里自梅至瀋四百五十五里平明

發行至白塔舖中火店舍之傍有白塔高不過十餘層甃
磚皆脫落別無可觀中火訖發行過三義廟之安劉關張
三人驟雨注下不得入玩馳渡渾河一名阿利江一
名小遼水源出長白山合沙河繞出盛京城之東南與太
子河會又西流合遼河為義河入海津舥狹小從人之騎
馬者皆亂流而渡三使皆從下流乘小舥如馬槽樣者冒
雨呼渡向瀋城東門而來望見瀋城之南門外樹木鬱密
隱隱有朱樓彩閣玲瓏於林叢之間若宮闕寺觀之狀未
知是何處所也馳到東門外闕廟裏少憇廟貌宏麗稍有
可觀待雨霽歇三使俱着袍乘車陪表咨次第而行即使
行入瀋之舊剌然也過外城門之內左右列以臺市傍有
藥王廟不得歷玩從南門而入門設甍城重門兩簷巖樓

但門額則未能審視市舖夾道金甌玲瓏榜^碧淨嶮轂擊肩
磨熱閭如海可見雄麗之制度矣下處於南門內周家炕
聞朝鮮館隔在不遠不得往觀瀋陽本朝鮮地或云漢置
四郡為樂浪治隋唐時屬高句麗遼與金皆為中京皇
明時為瀋陽衛今稱盛京奉天府奉天將軍副都統管轄
八旗又有承德知縣設各府佐貳衙門置戶兵禮刑四部
惟吏工部則不設云蓋此地東界遼陽西連山海北距大
漠又多控阨誠千古必爭之地清太宗自興京因熊廷弼
之罷去襲取此地仍成其叢故稱為盛京火懋訖與上使
書伏乘車同往太學由一角門而入題曰儒學即夾明也
三使皆着袍整冠祗謁聖廟位板用朱設色以金字書至
聖先師孔子神位正殿揭先覺斯民四字殿內揭萬世師

表聖集大成與天地參等語而皆列朝御筆也殿內左右以五聖十哲及朱子配之其下兩廡以郡弟及歷代諸賢配之明倫堂在正殿之西于內揭均沾化兩四字明倫堂之前有瀋陽書院門內左右有孝子祠節婦祠皆堅鎖不開當中有炕屋即居齋儒所居也廳內揭化兩時承敬崇樂郡等語齋中有一儒生容止端雅年貌老成與之筆話儒生自言姓劉戊戌舉進士止留於此云且見儒生之來往於城裏及太學者甚多聞瀋府方設秀才科四方諸儒時適來集故也太學之傍有文昌星君所安之處而截置書板之室也設兩簷高樓樓甚宏亮下層揭桂籍稽賢四字廳內揭截書閣三字當中有小龕以黃緞幃垂之以觀乎人文四字揭於龕楣自宇內緣梯而上有一人開鎖前

導循欄而上樓中安文昌君像左右置大龕蔽以書板堅
鎖不許開玩仍下樓由舊門而出與上使書狀乘車回來
歷入花草舖別無可玩花卉只見金池中五色鯽魚涇泳
响嚙而已與書狀同往上使所處暫話而還
初五日晴風悅驟雨旋晴自瀋陽至顯堂寺五里塔橋七
里方士村五里壯元橋五里永安橋八里瓊家子五里大
方身十里共四十五里中火自大方身至磨刀橋五里老
邊城十里神農店十二里孤家子十三里共四十里止宿
是日通行八十五里通事譯官以方物留待事落後平明
發行由通衢過府衙以黑松木立為欄於門前南瞻殿
闕雄麗解署分布衙街深邃望之隱約向西門而行通衢
上有二層飛閣等以甃磚其高甚巖四面設虹霓以通車

馬四達衢蓋城府之中央及四門之內皆有此樣高閣雄
府城制類多若是出西門之制與南門相似又過外城門
行五里許有願堂寺寺蓋瀟西大刹也寺前有牌樓三間
左右相對由夾門而入即諸僧所居之炕也炕甚淨灑僧
徒多着朱衣黃衣皆蒙古人也炕上有一老僧身看黃衣
年可五六十歲鬚眉皓白顏貌光澤言語與漢稍異頭戴
之物制如我國戰笠以金絲絡之屬以金紙內塗真紅麴
毛毳制樣可異也諸僧進茶又進圓糕味甚甘甜仍以清心
丸及扇把卷之入玩法堂之楮揭以海月常照四字覆以
青朱尾色甚鮮妍棟簷之間刻鏤龍螭之屬細瑣精巧字
內安以無數佛像大小形軀羅列左右不可殫記第見花
龕與趺跏爐桌雕飾之狀璀璨玲瓏獅蹲龍交形之色

塗以金碧。覆以青朱。帳幔之屬皆用錦緞。左右翼廊之內亦以彩龕。安金佛之像。凡殿宇之宏偉。排鋪之殷麗。不可稱述。又有太平保靈兩小刹在其傍。行忙不得入。玩行不里許。有行宮甚宏。見方頽毀。荒廢無人守護。抑未知幸瀋稍久不復修葺而然也。望瀋城之有北塔。崢嶸兀都。邑城府皆有高塔。而其高下侈儉自不同。焉從此更向西南而行。遠見白塔。迥出於林木之間。即所謂塔橋也。瀋城之北有三五處黃瓦高閣。峙聳於樹林葱蔚之間。此是大清朝世之陵寢也。開運山在奉天府西北。清之永陵在焉。天柱山在承德縣東。清之福陵在焉。隆業山在奉天府北。清之昭陵在焉。但能指點未得往見。亦不知開運天柱隆業之壇界。是可欠也。到壯元橋。極宏傑。以甃磚。等為虹霓水門。另

以青石雕刻欄干廣可五六間長可十餘間修治未久石面不磷此蓋皇帝幸瀋時御路也自此道路埋豁每值幸瀋等以石灰為馳道自瀋達京且為木梁以防泥淖今則幸瀋既久灰等及木梁盡見頽泐夾道左右列植柳榆繁陰可愛而但斷續無常未能一道連亘此亦幸瀋既久不加種植而然也到四十五里大方身中火訖發行至神農店與上使弛轡少憩於柳樹下適濛雲蔽天雨意淋漓遂點檢雨具而行未幾里果遇驟雨冒雨到四十里孤家子止宿自此始見無柵屋往訪上使書狀初六日晴微風稍熱自孤家子至周流河十里巨流河堡五里西店子二里五道河三里四方臺七里郭家屯四里新民屯四十里共三十五里中火自新民屯至小黃旗堡

四里大黃旗堡八里柳河溝八里石獅子十五里營房十里白旗堡五里共五十里止宿是日通行八十五里平明發行到周流河即遼水都會處故又名巨流古之遼水也近因天旱河流不廣只有隻艇五六篙工艤舟而待橫繫大索於河之兩岸拚索而行舟不施篙櫂之勞人馬車卜次第渡來兩岸多有行客之將渡者而屯結津頭不敢爭渡每於使行之過涉也例不得爭渡且未往車輛若遇使行於道則必讓路而避走此蓋勞遠之風也過巨流河堡城下雉堞之完固不下州郡可知為巨鎮也到三十五里新民屯人物之殷盛廛市之繁麗稍可有觀亦瀋西大都會也蓋清朝以後因東北之空虛募民而居之人家櫛比相連十許里矣中火訖發行渡柳河溝過石獅子書狀為漲

塵野圍下坐店舍余亦下轎上使繼到休憇移時發行到五十里白旗堡止宿初昏有彗星見西北方土人云已於三日前占玩而尾帚之長殆過數丈矣

初七日晴大風塵埃漲起殆無以作行自白旗堡至小白旗堡十二里新方五里一板門十三里靠山屯八里二道井子十二里共五十里中火自二道井至神隱寺八里新店二十二里土子井二里十里杠子八里烟臺五里小黑山五里共五十里止宿是日通行百里平明發行行十許里始見一大山橫亘於西北近北者大黃山近南者醫巫閭山即周禮所云幽州之鎮焉者此也。皇明時賀欽先生之所隱處其北乃蒙古鮮卑之地而太行山北走為醫巫閭山橫障東北為戎夏之界者也過一板門亦一都會

塵市民居稍成白茅自此復向西南而行到五十里二道
井子中大訖發行踰一小峴即月峯峴也到遼後初見初
踰者亦云奇矣至十里扛子書狀又為塵埃所困下坐店
舍余亦下坐上使結到少憇而行過烟臺站店傍有高臺
即我國之烽臺也世傳戚繼光所築或云袁崇煥所築每
五里設一臺以瓦甃等之周體或圓如筆筒或方如削立
高可十餘丈徑可數十步上設砲穴女牆當中建一間小
屋或設置火砲而見今無起烟報邊之狀抑待其有變始
許起烟也欽到五十里小黑山止宿此亦一都會也民居
殷盛頗有可觀此土素多驢騾東人之買驢騾者每於小
黑店云

初八日晴自小黑山至羊腸河十二里中安堡十八里共

三十里中火自中安堡至于家岔五里朝陽舖三里八壘
臺三里舊店里三里二臺子六里古家子三里大古家子
五里焦家店五里廣寧店五里共三十八里止宿是日通
訃直路為六十八里然而為觀北鎮廟從小路迂回過廣
寧城中轉至桃花洞迫暮抵廣寧店較之直路迂回程里
者洽為三四十里也平明發行到三十里中安堡即中安
堡虛日也滿市排列交易之物如我國之野市別無奇異
之玩見街巷中交繫繩索以彩花箋紙雕刻累々物形而
掛之有一隊衆人頭插楊枝手執彩紙小旗前行有一
隊人鳴金鳴鼓吹笛弄笳鼓譟而往問之則近因天旱方
訪禱雨之舉云中火訖取來從人之車輿上使書狀約往
北鎮廟轉向桃花洞從小路向北而行至廣寧縣由永安

門而入亦雄府也城在醫巫閭山下即古箕子國也古有箕子冠皞及塑像嘉靖間燬於兵云人居廛市稍有可觀然而殆有荒落箚條底意抑未知或有疾苦困瘁而然否也人家門楣門楣上多揭金扁碧榜或書以錫光篤慶恩及一堂青萍結絲經明行儉等語而似是庶士授職者及棹揆旌表之家也城內護塔高聳東門外橋頭松螻雄持此亦奇觀也出自西門行十餘里抵北鎮廟書狀已先到下坐廟傍佛舍楣額曰萬壽寺僧進一紙印本墨畫古松乃乾隆朝手寫也刻於烏石坎置岩腹如揭扁額傍有一詩亦其自製自筆也詩曰鎮廟門西似蓋松半存枯幹半龍葱鬱神如見抱朴子菑貊慙非陳野翁立下忽疑晴與雨現前可悟色方空何當六月其根坐讀疏化聽謬

風廟前有碑樓五間純用石材不資一木雕鏤精巧難以名狀五間連亘中樓最高其次左右二樓各有層等樓下舖以磚石有石獅四個相向而蹲踞將有吼號之勢碑門之內有虹霓高門三間覆以青紅瓦塗以朱紫彩堅鎖而不開門上刻北鎮廟三字左右有小角門堂宇上下階級層層：螭蛟蜿蜒曲欄井：石面如玉磨磷耀目殿廡前後通明皎潔纖塵不起門內有廳事甚廣空無一物左右有二層高樓左懸鼓右懸鍾其傍列豎列朝御製御筆記文詩句之碑：高皆數丈餘廣亦稍是筆勢俱是雄健最厚極其壯大過此而往又有廳事空蕩廳內以金彩雕鏤交龍設為位板之狀書皇：以上萬歲：：萬：歲九個字當中而立之楣內揭以壽慈佳氣四字其後即正殿也楣額

曰乾始神區殿內安北鎮神像北鎮神乃北方玄冥帝君也形軀甚偉袞冕儼恪並其從神皆服冕皞佩玉奉圭頓然有嚴毅整肅之想香鼎石壺亦皆宏特雕刻神姦鬼恠之形且有畫像之揭在壁上者甚多設彩新鮮翼廡連亘於左右碑閣棊置於庭中殿後有一殿安以玉妃娘娘之像傍有一塑即文昌星君也有兩童子列侍左右凡腹雕彩之羨殿宇宏傑之狀不可盡述而年久不葺多致傾圮可歎廟後有一小亭扁曰覽秀亭。邊有一大石。中空通可容偃僂刻曰翠雲屏又刻補天石明巡撫張學顏筆也石面畫以老松一樹俄者所進畫本蓋印出於此也其傍豎以一碑大書此鎮幽方四字禮部沈荃書也廟古有行宮重修一新強請開玩則以鑰匙之藏。在邑衙不許入。

玩蓋廟址卽起於平野之中如衆鍾狀四面低平大野滄海環控前左廣寧城治壓臨東隅按舜封十有二山以醫巫閭爲幽州之鎮夏商周秦皆因之禮視嶽瀆雖未知廟創何時而唐開元時封醫巫閭山神爲廣寧公遼金時始加王号元大德中封貞德廣寧王皇明洪武初稱北鎮醫巫閭山之神歲時降香祝國有大典遣官告祭云少憇記發向桃花洞至洞口卽醫巫閭山下也下車步上石路險巖攀壁緣梯轉入幽深處石角齒、蒼壁削立石嵌窈窕中安無數金佛石壁上多東人題名嵌傍又有紀蹟碑二本石壁上刻醫閭佳勝四字山坳處有一法宇扁曰觀音閣中安金佛左右有諸僧所居之炕亦皆淨灑設以茶甌酒盞書畫之屬山頂山腰石卽高截處皆設佛龕安以

金像山後谷中有一小菴馬規音閣之傍有亭閣舊址磐石平鋪眼際開豁俯臨七百遼野皆可以指點壇界矣有兩個儒子適在寺中招與之話一人姓李名光斗一人姓李名誠貴皆居廣寧縣自言閭山之下有七景即聖水金蝌蚪碑桃花洞呂公崖雲巢松道隱谷曠觀亭而皆大皇帝所到之處云給以清心散丸與上使書狀復由舊路從北鎮廟後生廣寧城下向廣寧店而來日已昏矣止宿廣寧店北距廣寧城為十里料想今日行役洽為百餘里較之直路迺四三四十里而九况程站之遠瀆西中最近者

耶

初九日朝陰曠晚晴自廣寧店至興隆店五里雙河堡五里壯鎮堡五里常興店五里三臺子二里二臺子六里閭

陽驛十二里共四十里中火自閭陽驛至二臺子十里三臺子五里四臺子五里五臺子五里望山堡五里石山站十里共四十里止宿是日通行八十里平明發行抵四十二里閭陽驛店傍有穀間神宇揭扁曰呂祖廟未知呂祖亦何神明也中火訖發行十餘里遭雨冒雨而行抵四十二里石山站止宿店舍東止偶有十三石峯科立於平野見無斷麓之過脉而大野中有若飛落者然石堆縹緗特秀即錦州府東界也以其峰巒十三故或稱十三山站店舍墻垣多用石等石面皆有紋彩宛成草木花卉之形點綴玲瓏極其奇異蓋十三山石性本自如是自義州距北京程里至北為半

初十日晴風因排站之遲緩以今日五十里站為九十一

里站自石山站至三台子四里二台子八里大凌河十三里大凌河堡五里四同碑十二里獲陽店八里共五十里中大有獲陽店至小凌河堡五里小凌河橋三里西店子一里松山堡十里四官馬山十三里杏山堡五里共四十一里止宿是日通行九十一里平明發行過老婆店上使下轎於道上余亦與書狀同為下坐少憩於店舍旋即發行渡大凌河即明將劉綬戰沒處一行皆亂流而渡蓋此河素稱遼河中險渡而近因久旱水流全減風濤平順一行之利涉無如今番云見浴河上下有累千群放豚布列沙場麴野方濃往、承群中有牧水者亦皆就睡蓋商販之人驅買眾豚於瀋陽等處每驅六七十頭十餘商人分伍列隊次第而行共計承群洽過累千頭渾是一隊黑

陣騎亘幾里手執一條長鞭隊、驅去各隨其主無渾雜之弊行途遲速一任豚兒所之众豚行疲而睡則商人亦皆共睡众豚睡罷而行商人亦皆睡罷而行行一日之行或至二三十里俗路別有猪店、壁大書猪店而別之塚以墁牆列以石槽以糞米屑和水而飼之俾得安歇積累日始抵北京豚兒則已於行途中肥大每頭直銀二三兩云行至大凌河堡人家店舍稍成自樣店舍之傍有指成均首逸四字必是被逸上庠者之家也行十許里見路傍有大碑二本即所云四同碑也古有四笏制度相同故名四同今只有兩笏巋然在平野之中今就古本四笏而考其一笏萬曆十五年八月二十九日勅以王盛宗為

前屯遊擊將軍上印廣運之寶碑文中虜首二字皆

豚去之其二笏 萬曆十五年十一月四日勅以王盛宗
為遼東都指揮躡統行事守修金州地方其三笏 萬曆
二十年九月三日勅以王平為遼東游擊將軍上印勅命
之寶其四笏 萬曆二十一年十月十日勅以王平為游
擊將軍錦州統轄上印廣運之寶王平是宗盛之子 神
宗皇帝以其善備虜酋降勅嘉獎以移觀瞻馬使行先來
者例到此碑書某日時出關某日時過此以示後來者云
到復陽店五十里中火訖發行渡小凌河蓋大小凌河之
間大坪廣豁即遼西馬牛群放牧場也豐草膩菊彌滿一
坪牛隊馬群放牧處、此即謂冀北馬群若使伯樂臨之
則當不知拔出發群駁蹄也過松山堡與上使書狀下憇
途上見一山峙立在南路傍即官馬山而乃錦州衛官馬

放牧處山上有官馬塚云蓋自昨以後或踰小峴或登斷
隴化諸前站可謂炭路也到四十里杏山堡止宿松杏兩
堡之間即崇禎庚辰辛巳之際魚肉之場也戊寅清人
繕修義州衛廢城先為根本距錦州八十里翌年己卯大
發兵進逼錦州總兵祖大壽告急時圍寺用事題本皆止
於司馬門以故毅宗皇帝漠然不知者三年辛巳間帝
始覺悟以吏部侍郎洪承疇為總督軍門領兵十三萬進
駐松山部曲總兵是燕代勇士累挫清師幾乎解圍緣我國
積砲之法勝負未定先是清主脅徵吾東穀千積砲者成
四五年總兵積砲故也清主弘院盡掃國中兵督戰明
師敗績遂進圍松山是夜寧遠總兵吳三桂率部萬餘
騎潰圍馳出時我昭顯世子及孝宗太王俱在汗之

陣中以帷幕之不便甫移他所適漢兵潰圍而騰踏於初
設帷幕之處此宗天之攸佑也翌朝清人率護軍鰲拜蒙
古固山額真庫魯克等拒戰外無援兵糧餉匱乏壬午燕
趙搃兵王廷臣曹變蛟翻松山內應軍門洪承疇搃兵祖
大樂祖大弼祖大清俱降及其論功也王曹反恥降虜不
屈而死曹本流賊王是世臣三祖乃大壽從兄弟皆勇士
也大壽聞松山敗設諸祖投降遂屈膝清陣獨蒙古兵數
千伏羲不屈清人大怨誘以宴會使去弓鈎駟出平野以
鐵騎蹂之蒙兵以空奉冒刃崇朝鏖戰骸骨堆積前後殺
死者五萬三千餘人此其松杏戰也

十一日朝陰晚晴自杏山堡至十里河八里高橋堡十里
朱家店二里紅旗營五里塔山所五里朱沙河五里內卓

羅店二里罩羅山一里二臺子四里連山驛六里共四十
八里中火自連山驛至烟臺河五里長春橋五里瘦樹堡
一里瘦石城一里乾紫巔二里東八里堡八里東頭臺二
里永寧寺一里寧遠衛五里共三十里止宿是日通行七
十八里平明發行渡十里河過高橋堡慶市亦頗成樣至
塔山所觀日出處也然日竿已高不可議到大海萬頃一
望盈疇舟楫之來往歷々可毅遠望亦可以指點我國壇
界而眼際杳茫瘴颶彌亘殆不能憑眺矣與上使書狀下
翰少憩而行渡朱沙河過罩羅山：上有烟臺至連山驛
四十八里中火程站甚遠人馬俱罷可悶溪邊有一崇碑
書曰皇清故中憲大夫佟公神道碑知是故大夫墓碣而
瑩域蕩然已作稻秫之畦只有一碑歸賸北俗墳塋之制

率皆若是全乏久完之計殊可歎惜店之西隅有財神廟
中火訖發行過烟臺河路傍有石碑門數處即旋閭之門
也前面書聖旨二字其下橫書烈婦某孝子某之間云云
凡旋門之制每若是而亦多在於平野無人田畦之間矣
過長春橋至東八里堡南望鷄鳴山上有嘔血臺巋然若
烟臺之狀世傳清太宗嘗攻寧遠毀破其城明日將陷守
將袁崇煥一夜间作大布帳周圍其所毀處畫作粉堞詰
清朝主登此臺望之崇墉宛然不勝念志遂嘔血而殂按
明史綱目奴兒哈赤與袁崇煥戰大敗嘔血痛哭而歸俄
而死豈伊日清聖登此臺而嘔血歟臺下山谷樹林中有
鷄鳴寺山之越崗有東頭臺若烟臺其嘔血臺相望為
對未知何時所等行忙俱未得登臨其書狀入永寧寺

在路傍即崇禎間祖大壽所創寺楹揭以維嶽降神四字寺傍有閔帝廟寺後有烟臺大松盤屈於寺中鬱之可愛少憩訖乘車與書狀向溫井而行約與上使會于寧遠城東門舍大路從小路行數里許至溫井之傍有佛舍揭曰大乘正宗東南隅又有法字揭以堯率大乘四字以金彩刻鏤成劃排列於板上而字劃皆浮汎於板上掛在空中不見粘着之痕殊極奇巧矣以石等井作為八角深可數丈餘周可四五十步薰熱之氣湧沸之勢烟起雲騰不可嚮通激濯於井邊小溝不堪着手殆若探陽酌之於盃投以茗芽能成茶湯味極清甘引水注之以為浴室楹上揭以珠泉二字沐浴者游泳其中與書狀向寧遠而行曰車道之迂回從南門而入城是瓮城樓亦兩簷上使自

東門而來會門內數十步有碑樓三間跨距於通衢之上
高可十餘丈當中者最高左右一間稍有層等棟瓦柱樑
交回瓦當之屬全用白石而為之不資才木坯土雕刻交
龍蜿蜒盤屈石材之宏傑制作之精緻真壯觀也前面最
上層書玉音二字其下層大書忠貞瞻智四字又下層大
書四世元戎火傳六字又下層書四世職名內面最上層
書玉音二字其下層大書廓清之烈四字又下層書四世
元戎火傳六字又下層書四世職名又有三間碑樓相對
於北街數十武之間石材雕鏤之巧縹緞迥出之狀愈過
於南樓而但東簷端石瓦一瓦脫落在柱下矣內面最上
層書玉音二字又下層書登壇駿烈四字最下層書四世
職名外面最上層書玉音二字又下層書元戎初錫四字

宸下層書四世職名內面石柱書桓趙興歆國倚于城之
重絲綸寵錫朝隆銘鼎之褒外面石柱書松檟如新慶善
培于四世琳瑯有赫貞永譽於千秋一是祖大樂牌樓一
是祖大壽牌樓大樂樓列書三代誥贈曾祖鎮祖仁父
祖承教大壽樓列書四代誥贈曾祖及祖與大樂同父承
訓萬曆壬辰以遼東副總兵領三千騎宸光赴援我國
者也祖家是遼薊世將崇禎二年十一月虜兵逼皇城
十二月督師袁崇煥率祖大壽何可剛入援帝甚喜令盡
統援軍清人設反間言袁巡撫有密約帝執崇煥磔之大
壽大驚與可剛東走毀山海関出沒錦州松山之戰祖大
樂祖大成祖大明皆被擒大壽守大凌河舉城降今其牌
樓猶未免後人之耻點也職名則但記宸上行所書如曰

詰贈榮祿大夫接勳總兵官左軍都督府左都督云云而
仰視眩暈餘不能盡記徘徊上下復由南門而出止宿於
城外城上有二層八角閣知是文昌閣也上楣書雲漢維
章四字下楣書奎星樓三字望之縹緲矣

十二日自昧爽大雷電驟雨暴注至平明連續不止晚始
晴朗日暮又雷雨自寧遠衛至青墩臺六里曹庄驛六里
七里板五里橋七里中右所五里共二十九里中火
自中右所至乾溝臺三里烟臺河五里半拉店五里望河
店二里由尺河五里三里橋七里東關驛三里二臺子五
里三臺子五里六渡河橋五里中後所三里共四十八里
止宿是日通行七十七里平明發行過青墩臺距海幾里
許到三十里中右所一云沙河所適有猿戲者過去招而

觀之先以一個小黑狗兒為戲有一人鳴鈔周行列置四個篩輪於庭中狗兒隨人周行出入於篩輪之內周而復始一回而再回之而一回一聽人言不失尺寸掉頭撓尾千態万狀又設一個小木磴使狗兒輪之狗兒以鼻端推而碾之疾徐行止亦一聽所指須臾退伏於一隅牽出猿兒着以朱衣兀然起立踉蹌屈伸行動宛似小孩跪云則跪坐云則坐立云則立拜云則拜旋去旋來情態巧惡戲漢擗一椽於場上猿兒直走攀踞於椽上體極輕儇一似小孩據床之狀又有一人出置一小橫於前猿兒直到橫前手自開橫取出一具紅兜而戴之一回周行復至橫前脫去紅兜又開橫門取出紗帽而戴之一回周行復至橫前更以小孩像及銀兜紅帽金冠之屬次第換

着而來俱是奇絕可玩。頃率出一頭羊，使猿兒騎着於背上，羊兒馳走而來，即以黍米少許給以誘。羊兒之疾來取食，如是馳來馳往者，數度而緊拚羊背，一不翻落。又一人以丈木作十字樣，橫木之端懸以連環二個，豎之場上，猿兒直走上去，高坐上頭，上下左右出而復入於連環之中，倒掛橫懸，旋升旋降，即一奇觀。恠物以三吊錢給于戲漢，猿兒奪以取之，作穀錢之狀。適見場邊有一大柱立焉，使猿兒升而搖之，一簇直上，以雙手搖之大柱之搖動無異乎丁壯之排推，亦可見小猿之力異於他獸而體樣大小如三四歲小兒，耳目口鼻一如人形，四足恰似人手，前脚屈伸如人，兩臂後脚屈伸如人，兩股兩乳亦如人乳，兩鬢毛脫色紅毛色如山羊，而微青毛倫潤澤，許酒

則飲許水亦飲飼以黍豆之屬以前足拾取而嚼之宛如
人吞豆^吞太之狀众技既窮罷向他處馱看猿兒於驢子背
上而去觀其同行者六人驢子四隻狗兒二個羊二口猿
一口共十五個活口賴是而資生良可笑也中火記發行
過望河店與上使書狀下輪火憇渡六渡河至四十八里
中後即止宿於城外城小而完壘市殷盛人居櫛比此地
多禮帽東人每於此站買留云城南有財神廟又有閔帝
廟可玩日熱稍甚下人之生病者頗多製給養胃湯者凡
八九貼

十三日朝雨晚霽自中後所至一臺子五里二臺子四里
三臺子三里沙河站六里渡墩臺四里板橋四里葉家墳
四里口魚河屯二里口魚河橋三里亮水河七里滿井鋪

四里共四十六里中火自滿井舖至前屯衛四里王家臺
五里登江臺三里王濟溝四里頭封河五里高嶺驛五里
小松嶺溝三里大松嶺溝五里中前所七里共四十一里
止宿是日通行八十七里平明冒雨發行到四十六里滿井
舖中火訖發雨快霽發行到四十一里中前所止宿於城
外城堞之大小與中後相同而廛市人居則稍遜於中後
矣路見一輛大車插以一白旗似哨旗樣其後又有大車
隨之車中多有蒙古兵之把守替歸者未知其把守於何
方也

十四日朝雨晚晴自中前所至大石橋七里兩水湖三里
老軍屯五里王家庄二里八里堡十里共二十七里中火
自八里堡至四方城子五里二里店二里山海關二里自

瀋至關共七百八十六里自山海關至深河一里五里臺四里
紅花店三里共十六里止宿是日通行四十三里平明冒雨跋
行上使遵直路而行與書狀歷入姜女廟。蓋古貞女許氏之
廟居長故稱孟姜而仍謂之姜女其夫范七即陝西同官人也
廟前有三碑。長中有曰秦將軍蒙恬等長城范即隸役死於
六螺山下夢感其妻孟姜手製衣獨行千里歷憇于此聞其已
死北望長城痛哭不止因化為石或曰孟姜聞其夫已死獨行收
骨負而入海數日有石出于海中或曰其夫赴長城之役久
而不返女遠覓到此則已死矣遂哭而死土人立祠祀之云清
明以來多立碑紀蹟而所記各異語多近誕又云有姜氏塚而
亦不可攷矣祠中姜女像當中揭芳流遼水四字乾隆御
筆東壁上又揭而愛國俗四字宗親鳳翔書左右柱上書

千古無心誇節義一身有死為綱常皇五子書又梅花終
古不知妍柏葉一生常自苦果親王允禮所題又板上詩
云姜生祠前秋草黃姜女祠外秋風涼高原凡望夫石
遙看海水何茫茫乾隆癸卯十月五日皇十一子題又松
老頽垣見古祠崩城姜女事堪悲藁砧望斷成奇節環珮
空餘識旧姿石洒淚痕當日恨水流嗚咽後人思振衣亭
畔淒涼甚猶憶凝眸瞬曼滋乾隆乙亥仲冬皇三子藤琴
居士題多有板上題詩不能盡記祠後有佛寺安以金佛
佛宇之後有巨巖即望夫石也刻望夫石三字太原白輝
書曰鑿石為毅三足痕如階級然以為日望夫時所登
處云石上刻作如是觀四字康熙時內閣纂修賀廷佐書
世多望夫石太平武昌二處皆有望夫石王建所詠山頭

日、風和雨行人物來石應語之作非此石也乾隆八年
十月皇帝題詩刻石曰涼風頽樹吼斜陽尚作悲聲吊乃
郎千古無心誇節義一身有死為綱常由來此日稱姜女
畫道當年哭祀梁長見東羹公懿好訛傳是處也何妨石
面多有列朝御製詩只記乾隆朝所題曰叢祠舊等海山
邊善哭偏因姜女傳金鑄應嫵范蠡譎墨胎可比伯夷賢
蕭風高樹無絃 明月清波古鏡懸路便一臨緣節義行
譎意已其前篇 詩亦忙未記得諸篇詩皆刻以烏石
作坎於巖腹而置之如揭板之狀石上又有振衣亭三字
想舊有亭而今頽也周覽既畢發行至八里堡則上使已
先到矣中大訖發行登四方臺或名威遠城即山海關外
數里之地也臺体方正周可數百步而各七堞前面有虹

寬小門入其門臺中空恢四壁環立如坐井中壁間為圭
竇可容數千人者共二十四竇下為隧道以通長城之內
四壁皆有層級緣而上其高十數丈世傳戚繼光所築又
云吳三桂守關時從地道不時登此臺出聽砲則關內外
諸屯兵皆一時響應吶喊云俯臨遠海控引長城眼界暢
豁盈騰無碍北望蒙古地界山岳重、峰巒點、長城一
帶跨割其間古磚粉堞駕山度壑崢嶸巒峯完雄威壯猛可
想羸皇當日氣力之所暨城內峰岳之上每有墩臺知是
斥堠守備之機關山勢之高截者逶迤至角山寺漸覺低
平前臨大野右挾滄海禹貢所云挾右碣石者是也後到
平地置五重城名之曰山海關挈控長城橫截於皇城之
半仍以重城為翼護焉。皇明洪武十七年大將軍徐達

移榆關而設備云長城正幹南走里許蕩然中斷者洽為
穀十步即是崇禎年間所毀奴兒哈赤之所猖獗處也至
于今修葺不得使萬里金城空作屢百年缺毀之狀誠可
欠也又南走十餘里入于海鎔鐵為址而城其上其上有
三簷高樓曰望海亭又曰澄海樓皆徐中山所築也只可
遠指點於瘴颶之中而且聞近因洋匪方設屯戍於亭
下是不得登覽亦可歎也臺下東北有蒙古兵屯住處環
以屋宇如村落之狀幅圓稍廣當中有幾間屋宇提督居
之兵馬擾攘且有兵卒之來往店舍馳騁途上者甚多如
是者凡兩處為海洋夷自昨年春來屯於此云適雨至與
上使書狀避而於臺下圭坎中屯卒之來往於途者見我
行過多有趨集臺下者觀其容貌猙獰得言辭喇心與萃語

不通問其居住則皆居黑龍吉林等處而其中一漢年可
廿餘頗有純實意可與之語自言前春來屯地旌戈巡鐸
已極勞止而家鄉千里竟夢迨大人此去見我皇上為
吾們備述此矜憐之狀以為早即解還之地是所望也仍
相領微哂語刺不已為能假設不可必之辭以做暫時
諧語者亦可見其發出真情也待兩歇發行先使道事報
知山海關將出坐門內許令入來三使以外從行者
皆下馬步過稅官及關將皆滿人前列軍卒簿錄人馬詰
奸防偽守備嚴肅門凡八重初入是甕城門再入是二層
門額磚石刻山海關三字即關鎮門也三入是三層門樓
額揭天下第一關五字即長城正幹也傍有鎮將衙門四
道是四通門跨據於十字街上衛衛四達車馬擾攘五道

亦二層門樓額揭祥壽壽四字雍正帝筆也亦過亦關
鎮門七過亦甕城門八過即新等之土城關設以雙板扉
城上皆設火炮城下又鑿濠池重門之設極其堅固城內
壘市殷盛人居稠密城之北有榆關書院街上一碑樓
書大成坊三字即書院之洞巷也傍有玉皇閣頗宏峻行
忙不得入玩渡瀋河至十六里紅花店日終過午矣店後
又有兵屯凡三處屯住之狀一如關外凡關內外所屯諸
兵皆是蒙古黑龍吉林等處兵也據來往棧店舍及沿
路者甚多或和與之話皆頑鈍無足與語問兵卒捻穀則
或對以九千餘或對以八千餘又問捻督譚誰曰管姓珠
氏云而並不肯實對抑謂其軍中機密不欲與外國人傳
說而然歟

十五日朝陰晚晴自紅花店至樂家嶺二里吳家嶺四里
二十里堡六里范家庄十里湯河堰三里大埋營七里王
家嶺二里鳳凰店三里望海店十里深河驛五里共五十
二里中火自深河驛至高臺嶺八里王家店二里馬棚山
六里石子河一里榆關三里宋家庄三里上白石堡二里
下白石堡三里吳家嶺四里撫寧縣八里共四十二里止宿
是日通行九十二里平明發行經過紅花店有小菴揭曰
德勝路由寺下過范家庄村有范文正後裔古有義倉扁
其門曰范家義倉云至大埋營又有小菴揭以普結良緣
四字與民家連牆矣到五十二里深河驛中火訖發行經
過店舍有廢城址即深河古城也東西城樓盡見頽圯但
餘甃穴兩區城內塵市不成貌樣比諸關外殆有菁條荒

落之狀城周窳小行未幾步即見一窩寬門卽西門也門
內有小菴揭曰白衣過馬棚山渡石子河路由榆關城中
亦小縣也適值市日賣買物貨不過菸草烟臺葱蒜菘糕
等屬無二可玩至宋家庄與上使書狀卸橋小憩到四十
里撫寧縣東門外止宿

十六日陰微雨自撫寧縣至羊河一里五里堡四里盧家
店二里十里臺堡三里蘆峯口五里茶棚菴六里餘馬河
三里背陰堡三里獲登堡八里共三十五里中火自獲登
堡至吳捷子店三里腰站二里部落嶺二里二十里堡三
里十八里堡三里白沙河七里驢子槽八里漏澤園三里
永平府二里共三十三里止宿是日通行六十八里平明
發行入自撫寧城東門人居荒落廬市蕭條街並通衢有

牌門半歇外面題曰兩京鎖鑰內面書保障哉三字即是
縣衙也城中十字街上有四通虹寬二層高閣衝過其下
向西門而出門額曰迎恩門。外有龍王廟。不甚壯麗
只安在一軀金像城北有八蜡廟未知享以何神也渡羊
河過背陰堡固轎內之塵鬱下轎步過數十武復乘轎到
三十五里獲望堡中火訖發行經過店舍有廢城舊址譙
樓頽毀已久只存虹寬典型由此而入廢墟殘市極其荒
涼行未幾武又過頽地門地門內牆壁上刻獲望堡三字
即嘉靖年間所刻想是舊日鎮堡而今荒廢不葺令人愁
歎至部落嶺遇雨而行到二十里堡則上使下轎避雨余
亦下轎火態雨尚不止冒雨而行路逢十餘輛車前行者
有儒雅狀以紅布小旗書會試二字梯之車上後車載以

少年婦人及小兒其後諸車多載東西皆以黃布小旗書
戶部二字而插之問是拜官赴任之人云而會試二字未
詳何據過十八里堡即古之盧龍塞也到三十三里永平
府即漢之右北平地也望見府南城上有六面二層閣縹
緗迤出在雉堞之間安以兀然一軀小像未知何像也又
於城上有閔帝廟揭以莫不尊親四字東城隅泃澤園傍
有碧霞宮城中又有藥王廟中安伏羲神農黃帝岐伯
扁鵲諸醫祖塑像又有廟祀以前世善用兵者姜太公為
主張良諸葛亮管仲司馬穰苴分東西從享之云皆未得
入玩止宿於城外自此稍見有椽屋矣
十七日朝陰洒雨晚晴以夷齊廟二十里中火車站改定於
野鷄地四十里中火車站自永平府至青龍河一里南坵店

四里灤河一里鴨子河四里范家店六里堽夫臺四里安
河店八里赤紅舖六里野鷄坵六里共四十里中火自野
鷄坵至沙河屯八里張家庄八里沙河驛四里共二十里
止宿是日通行六十里平明發行聞永平府南十里有李
廣射虎石有碑曰漢飛將軍射虎處云而行忙未得往見
上使直向野鷄坵與書狀及五六從人迺向夷齊廟而行
般渡青龍河又般渡灤河此古濡水也。皇明時御史韓
應寅歸西軒釣魚處尚有釣臺遺址云舍大路浴河而上
遙望一巒聳翠樹林葱蘢即首陽山也山北峭絕處有毅
蝶殘郭即孤竹國之墟也城門揭賢人舊里四字又刻孤
竹城三字門左有牌樓三間書曰清節廟樓之左右有碑
二本一以草書大書忠臣孝子四字崇禎癸未季春陳恭

來書一以八分大書到今補聖四字萬曆甲午江右李願題又
於左右牆壁間大書清風百代四字又見一碑在牆壁中以隸
書大書聖賢遺墟四字乾隆壬子永平知府闕里孔結敏七十
四歲書牌門之內左右有虹霓小門右門上書天地綱常四字
左門上書古今師範四字當中有正門設虹霓三窠額曰清風
可挹門上有亭閣飄然門內重設虹霓三間入門始見正堂
面揭曰古之賢人即乾隆筆也有二位塑像皆具冕服裏玉圭
而一具綠袍而居左一具紅袍而居右像之前設高卓其上置
青玉石香爐：面篆刻泰稷非馨明德惟馨八字堂壁多有
石刻御製詩篇只記道光朝所製云巍然廟貌景前賢昆
弟同心節義宣叩馮精誠貫天地千秋信史美貞堅崇祠展
謁慕高風立懦廉頑濟世功樂道得仁又何怨浮雲富貴捲空

堂前多有崇碑刻以重於記文等書堂後一宇揭曰揖
遜堂、後高臺截然臺面刻曰清風臺、上有閣軒宇暢
閣之後有六面小亭、之後斷岸削立疊石撐拱凜河上
流環抱而來舟楫之過往者皆從檻外掠去掉歌漁唱憑
欄可聽廟之東有行宮殿閣列峙層榭崢嶸凡戶扁楣闥
之間皆以美材雕鏤龍獅葡萄梅及凡字之屬施彩塗丹
極其精巧竅後有一小亭宇內有榻刻為巨筮仍以筍竿
透迤蔓迤挺拔屈曲作為門楣作為楹牖密葉綠籜脩々
撼々隱映交翠於肉牖之間潭是一叢竹林孟殿閣及廟
宇俱見頽毀楣闥雕飾之屬破碎無餘荆棘荒蕪不復修
葺甚可惜也按皇明憲宗時贈伯夷曰昭義清惠公贈
叔齊曰崇讓仁惠公而見今記文甚繁俱未能詳證孟緣

行忙而然也。廟之西隅有佛宇，僧徒居之，揭以心境俱空四字，與書狀火懃寺中自廚房進蜜水茶果，蓋因設站故也。使行若值中火於夷齊廟，則例供薇蕨而作羹，云雖欲援引故事而不但首陽盡為童濯，今無可採之薇，無論四時例自我國帶乾薇而來至此為供，抑何意趣。東人之慕援故事，若是之甚，宜其海州之首陽祠以夷齊者也。夫河之越岸有一廟，云是孤竹君之祠，而河址中有一巖聳起似釣臺之狀，未嘗渡往觀玩，只能指點而已。與書狀同，蕨抵四十里野鷄地，上使已先到一頓睡，笑中火訖，發行見浴路田畝間列植桑柳，盡是叢生之抽莖者，用此造紙云。又見棠梨桃杏果樹，分類成列，栽之田間，一望盈野，行伍不差，可想栽種之法亦極精略也。抵二十里沙河驛，有

城堞荒廢不葺但餘寬窠而已由東門而入止宿於城內較諸直路迺回十里矣

十八日陰酒自沙河驛至紅廟五里馬舖營五里七家嶺五里新店子五里乾河草五里王家店四里新平店四里張家庄二里扛牛橋四里蓮花池一里青龍橋九里榛子店一里共五十里中火自榛子店至烟墩臺十里白草窪七里鐵城坎三里牛欄山五里小鈴河四里板橋一里銀城舖五里五里臺十里豐潤縣五里共五十里止宿是日通行一百里平明發行由驛城西門而出到五十里榛子店即灤邑鎮東門外也中火訖發行入鎮之東門內廛市民居亦極蕭條城中有連揭解元文魁武魁之家亦云壯哉由西門而出門上安一軀金像即文昌星君像也過

白草窪遇雨而行踏見三輛車滿載楛矢而來問之則自北京送致于山海關者云到五十里豐潤縣止宿於南門外望見二簷六角飛閣迥出城上云是本縣儒學文昌閣也儒學中有牛足鼎即一彝鼎古兕有篆銘而鼎足似牛足故名南門外有白塔遠之聳峙南門之傍有精忠廟即岳武穆祠也城南又有電神廟

十九日朝陰洒雨晚晴自豐潤縣至趙家店五里張家店一里還鄉河二里魯家店二里高麗店五里沙子河五里軟鷄舖五里茶棚菴三里李家庄五里沙流河七里共四十里中大有沙流河至兩水橋十里兩家店五里二十里堡五里十五里屯五里東八里堡七里龍池菴三里玉田縣五里共四十里止宿是日通行八十里平明發行過高

麗村亦于丑年間朝鮮人被虜仍居之地也每使行之過此也下隸輩或沽酒食村人以本國舊誼或不收直婦人亦不避匿言辭委曲以示款誼情義親密下隸輩因以乘間多沽喫酒食誅竊兇服戲弄婦女村人以此厭若我人近日則閉門不干視若仇敵云此土絕無水田而獨高麗村前有水田數頃至今播耘禾苗茂、尚傳高麗之俗可橫也到四十里沙流河中次訖發行過兩家店有城址似是廢鎮由東門出西門到四十里玉田縣日終過午矣玉田縣古幽州無終國即召公所封也無終山有燕昭王塚城東有三官廟藥王廟、多塑像亦頗宏傑止宿於南門外城南有閔帝廟、對有宣和臺亦唱戲處也又其傍有火神廟連報祠而未知享何神像也

二十日朝陰洒雨下陽自玉田縣至西八里堡八里黃家店七
里彩亭橋五里小枯樹店十里大枯樹店一里蜂山店四里螺
山店三里梯子山七里鰲山店五里共五十里中火自鰲山店
至二里店二里現渠八里三家店三里雲田寺四里翠屏山三
里八里堡二里漁陽橋三里貫日庄二里薊州三里共三十里
止宿是日通行八十里平明發行過蜂山螺山兩店望見西北
山頂有大樹不生不死者于今幾百年不葉不花不枯不長望
之依然一株古木距路稍遠未得往觀螺山店之西有宋家庄
城址宛然明天啓間宋家所築也宋之宗族殺百人皆能
富饒當明清之際等城守備及清人既並天下諸宋不即出降
清人患之歲罰銀千兩至今宋家後裔尚居之云過梯子山
到五十里鰲山店蓋蜂山螺山梯子山鰲山皆因其狀而得

其名店傍有門似里門入自東門出于西門到店舍中火
記發行至三五里捨直路迺向薊州未至漁陽橋船渡一
小河見浴路田間雨痕沮如黍苗委損新經風雹之灾問
之土人果於昨日雨雹云而後過穀里無復雹痕可見雹
神之威亦不能廣施也抵三十里薊州城由南門而入亦
雄府也然而雉堞蕪樓率多壞毀不復葺治民居廛舖殆
有荒落蕭條之狀城門皆設甕城三重而蕪樓則頽已久
矣門內有穀處牌樓而盡為壞毀只存石柱但見一牌樓
敬然上層題曰大司成下層題曰國子監祭酒成憲街北
有高門揭古漁陽三字想是州衙之門也逶迤向西而行
到西門內獨樂寺在大路街上寺之外門揭曰獨樂寺
門內有二層法宇極其宏暢上層揭曰觀音之閣宇傍小

書太白二字抑青蓮之筆欵下層揭具足圓成四字即今
皇帝筆也宇內揭普門香界四字有金身大佛當中而立
此是佛家所云丈六金身者而仰視佛面料其身長不啻
丈六也傍有無數金像或立或坐列左右緣梯而上到最
上層始見佛面頭載無數佛像以鐵絲籠罩佛頭極其雄
偉層欄申折丹腹精麗而但塵埃堆積穢惡之臭彌滿宇
內不可久留最後有一字安以四位金佛左壁間有一大
金佛醉卧榻上睡痕方濃右壁間安以閔帝像矣出寺門
從西門而出門上書西拱神京四字譙樓則亦頽已久矣
止宿於西門外城內有白塔甚高迥出雲霄漁陽橋路傍
山上有祿山廟越阜又有楊妃廟云雖未足尋玩蓋亦淫
祠之尤者也薊門烟樹是燕京八景中最稱奇絕者也然

而自昔見之者罕焉為其天氣晴朗洞無纖埃然後可得
而見故也嘗聞是氣非烟非霧洞澈空明不高不低常在
樹間乍隱乍見透映閃忽變幻頃刻不可名狀蓋其氛霽
所化輕清玲瓏而已獨於遼薊見之者以其野色秀潔海
氣稍近樹木葱蘢而致然也且北土最宜白楊種樹之法
必以行伍排列不差尺寸樹本樹末齊整如簣氛霽纒結
橫秣成紋也東人之數十次來往薊野者有之而未嘗一
見者以其度野之日天氣之適值氤氳為難故耳
二十一日朝陰脫晴自薊州至五里橋五里徐家店十里
邦均店十五里共三十里中火自邦均店至白涧店十二
里公樂店五里段家嶺三里石碑舖十里漚沱河五里三
河縣五里棗林庄六里共四十六里止宿是日通行七十

瓣小色紅葉細莖軟無足稱賞又名西方蓮莖葉似茵陳
花瓣大如菊華色則深紫可玩又名仙人掌木體青而且
柔葉大而厚宛若展掌之表裏及莖幹之上疣贅遍生一
似草荔之殼一幹所附之葉不過二三莖葉同色無花無
宗經秋經春不改柯而易葉又名霸王鞭者莖似仙人掌
而色微黑葉如柳葉而厚摘而取之液白如乳未知花宗
之有無而此等花卉之創觀者甚多不可殫記廟後有佛
舍安以众像金佛楣揭佛光普照弘願光覺等語矣上使
書狀次第來到與之周覽從邦均鎮東門而入門上書衝
衢二字樓中安文昌星君鎮內壘市稍殷鎮凡六門皆因
人家墻垣而設初無周環之城堞矣從西門而出中火於
門外店舍發行過白澗店入尼姑菴是女僧所居俗傳

順治之妹早寡為尼居於此菴壽逾九十而歿云菴畔有大樹白幹松鬱可愛傍有行宮堅鎖不許入玩即蕞渡濤沱河又舡渡三河過三河縣即古臨朐界也城外有閼廟揭以金字曰神功協契抵四十里棗林庄止宿公樂店段家嶺之間山麓盤踞惡石增峻車馬不便蓋薊州盤山下麓之盤旋者也

二十二日陰大熱自棗林庄至白浮圖六里新店六里皇親店六里夏店六里柳河屯六里馬起舖六里蕪郊堡八里共四十八里中火自蕪郊堡至方家庄三里滕家庄五里胡家庄四里習家庄二里白河二里通州一里共十七里止宿是日通行六十一里平明發行過新店盧市頗有可玩里門之對有樓揭曰同慶昇平亦戲臺也抵五十里

燕郊堡中火訖發行過里許見塗上反田畝間行潦盈尺如經大水向於土人果於十二三兩日大雨連注云矣渡通州中江又渡白河即潞河也襟帶於通州城下漕船來舶之地也使馬頭輦呼渡各以清心丸給于篙工蓋上判事馬頭整舟上流而虛仔故也見城下民居櫛比商物船貨多聚於此有大王廟設以二層門覆以黃瓦揭以護漕利運四字廟蓋龍神廟而每於漕船之來泊也賽報於此云沿江店舍有揭戶部稅所工部稅所者似是收稅於江上者也沿江上下多來往之人有若流民之狀蓋南有諸匪且近有天津洋匪方創攘於百里之內南民及沿海諸民之逃難者多從水路而來聚於此云與上使沿江而下往觀船書狀已表到於船所矣與之登船三樣與我國有

異狹而且長廣可四五間長可十餘間蓋云船之小者也
舳艫俱圓皆以鐵釘裝造畫綵龍雀奈以朱紫用鐵為錠
一本四鈎纜用連環鐵索帆用白布船樓之制皆以板木
為障壁為仰板為艤板載穀物於艤板之下處篙工於艤
板之上左右皆設絞窓雕鏤卍字梅菊之狀粧以琉璃塗
以金彩無異陸宅窓內所設雖不侈麗而如射鏡畫瓶茶
鍾筆床交椅及鷄犬花卉之屬無不畢具船窓之宸一隅
即厨竈也鍋釜之屬醬醋之需亦無不具脩上層設彩龕
妥奉閼神有三個女子屏坐於厨竈之傍其中一女子年
可五六十歲自言本以南京人曾於九年前率子女五人
來泊於此近因南邊之擾攘不得回去云又有一年少船
二進茶與之筆話自言姓李名處高船名滿江紅久滯未

歸浮家資活生計澹然云遂緣梯登艀樓之上望見浦口
無穀船檣掛看布帆彌亘海上亦一壯觀與上使書狀由
通運門而入即通州城東門也門設曲城譙樓壞毀塵市
殷麗民居稠疊通衢之上舖以磚石有大川跨割城中而
來等以虹橋、邊設彩木為欄橋下等石貯水、聲硤、
如臨巨瀑止宿於城內望見城並白塔聳峙

二十三日朝雨晚晴自通州至八里橋八里管家庄二里
楊家閘二里三間房三里定州庄三里大王店二里太平
店二里十里堡三里八里堡二里紅門三里彌勒院三里
東嶽廟五里朝陽門二里玉河館十里共五十里是日通
行五十里自山海關至北京六百七十五里自鴨綠江至
北京共計三十三站二千七十里自北京至北京通計三

千八十六里日出發行自通州城中等石為路連亘皇城
鐵輪相擊車聲益旬乘車者至此心神震蕩皆言石路之
苦所等石路年久磨泐多成坎坑且因雨下泥土潤滑馬
不能着足向西門而出見街上有高門揭日理事府門巷
深邃有似衙門之狀想是州衙也傍有一碑門書總理軍
儲四字城之西門刻神京左輔四字門內有漕倉此是百
官頒祿之處倉舍廣豁盤踞一隅殆不可計為幾百間屋
上設疎窗小閣以洩蒸氣見今無一包穀儲蕩空也但
餘倉舍東傾西圯不復葺治無天者守極其荒涼矣過八
里橋一名永通橋寬高十餘丈橋長數百間左右石欄後
麗橋下舟楫直達朝陽門外石路左右盡是沮洳之地最
宜蘆葦用為簞茵方茁茂鬱密一望無涯且沿路人家相

望相續神宇佛舍列在處々未知所妥者何神而如勅建
護國廟勅建九天宮之類不可勝計且有累々墳塋或塚
以墁墻設以箭門或封以石灰等以甃瓦者接續於路傍
又見黃瓦碑閣之兩簷三簷者縹緗棊置於蘆葦荒茂之
間亦未知所記者何樣語也始見一人驅數十頭索駝載
以石炭而來蓋駝之為物形樣可觀羊頭鶴頸長脰肉蹄
脊有肉鞍高過十尺長亦如之其行甚遲而雖疾馬不能
及其其體大而步濶故也及其馱小卸小之時為能自就
卧地能兼二三馱重小且牲極馴擾故無銜勒之制惟以
一條細繩穿其鼻而已抵東嶽廟即泰山所妥之所也
始建于元延祐間皇時明益廣之康熙庚辰間廟災葺
帑修之乾隆間又葺之廟中所妥仁聖帝炳靈公司命君

四丞相像皆元昭文館太學士正奉大夫秘書監御劉元
所塑元最善搏換之法云廟門之前通衢越處有石牌樓
三間覆以青黃瓦雕鏤龍鳳之狀並以青黃之彩淬染而
燔之玲瓏璀璨不可名狀外面刻秩祀岱宗四字內面刻
永延帝祚四字東西皆有木碑樓三間覆以青黃瓦設彩
甚鮮東樓內外面書恭虛洞天宏仁錫福西樓內外面書
靈嶽崇祠蓬萊勝境正門設虹霓三窠門上書勅建東嶽
廟五字門內有左右翼廡及甓廳鍾鼓樓碑閣等許多屋
宇殆不可計為幾百間廟傍多有淨灑坑窠庭中列植花
卉樹木並不得盡記有鐵馬一隻立在廡下高長餘倍言
病眼者摩其眼病脚者摩其脚似垂頭面背腹癱病而摩
之皆能痊法云：以此來往之人無不按摩隨手磨潔老

澤滢然廟之前門揭曰瞻岱之門內正殿妥岱宗神像
殿額揭岱宗寶殿四字殿內揭岱宗昭凱四字雕彩之像
麗棟宇之雄傑神像之儼毅帳幔爐卓之華美頓有愀然
底意想神座之前有檠燈一座玉缸圍大漆液盈一火
閃焗盡夜不滅俗傳元順帝時所燃至于今幾百載如一
日不熄云左右有假花叢兩本色甚鮮麗花葉交映含英
吐馥氾露帶雨真廣莫辨殿後有一殿揭曰有德殿是為
神寢殿後有二層殿揭以大德曰生為蒼生福等語妥以
無穀娘之像殿之上層揭玉皇閣三字殿內揭碧霄宰
化四字妥以玉皇天妃神座前所設香爐床亦極精鮮上
下二層妥無穀塑像即列侍女仙也左右翼廡又有許多
塑像皆有扁揭其東為司命君殿其西為炳靈公殿其次

皆如蒿里丈人元教吳宗堂師掌死生司齊僧道司首經
司勾死生司取人司延增福壽司追取罪人照證司曹吏
司飛禽司宿業疾病司水府司王強善無主孤鬼司風伯
司陰謀欺昧高深莫贊城隍山神精恠門神索命行污殺
生善報忠孝所生貴賤胎生濕生水族促壽黃病積財見
報引路磨勘舉意憫眾真官土地速報都察苦楚正直還
免毒藥催行長壽化生卯生注福忤逆惡報施藥放生推
勘枉死魍魎土地盜賊僧道墮胎落子較量行兩地分斗
五種惡死地獄畜生山林鬼神行瘟疫詞狀官職掠剽財
物三月長齋注生貴賤脩功德死生句押推勘都倉押堂
廡列七十二曹三十六獄奇狀怪態不能殫記盡是幽明
果報之事庭中黃瓦閣康熙乾隆御製碑閣也庭廡之東

有越孟頫所書張天師碑銘殿廡甚宏觀玩甚繁此廡之所玩與彼無異彼殿之所覽與此殿相似旋入東廡復出西殿駭矚而創玩者有非一兩日間可以畢覽自柵至此凡歷覽廟宇者亦不知為幾十處而未見如此之宏傑者也通官及諸官負皆以公服來待於廟傍亦例也與之相揖諸通官勞問炎天裏長途辛苦三位大人俱得太平麼上判事馬頭輩在傍歎應以通答問蓋這輩官職既是通官則似應通習東語而近來上國規模亦習於因循不能務專所事故通官輩之所謂能解東語者殆若穉孩學語總時爺孃殊可笑也始聞皇上自正月往留海甸尚太平云矣三使看袍整冠陪侍表文次第乘車從朝陽門而入即皇都東門也門設甃城之上建二層譙樓九十二

間不設虹霓開閉傍有小門逶迤而入正門之樓即是三層與曲城譙樓相對而額磚上刻朝陽門三字陽門二字已剝落久矣五劇三条廛舖連亘朱輪翠蓋人肩共磨城闕之宏麗物萃之殷阜駭矚盈視恍惚眩耀有非暫時歷覽所可枚舉而指的抵五十里玉河橋到館：在正陽門內棋盤街東玉河橋西館門揭曰會同四譯館蓋聞朝鮮館舊在玉河西畔稍玉河館後為鄂羅斯所占清人之所不能制遂設會同館于乾魚衛衛因朝鮮之鮮字用魚傍故鱸乾魚之語請移處於此云按北京即順天府在禹冀州之域唐虞之幽夏殷之冀州秦之上谷滹陽漢之涿郡晉唐之范陽宋之燕山府元為大都明初為北平府太宗皇帝徙都改稱順天府今清因其號城周四十里城

門之正南曰正陽右曰崇文俗號河大門左曰宣武東南
曰齊化東北曰朝陽西南曰平澤西北曰西直正北曰德
勝正西曰安定外城之門有七紫禁城之門有三宮城十
七里其門有四

燕行録地

燕行日記卷之二

自留館至復命

○五月二十四日朝晴晚雷雨飯後三使具官服往禮部進呈表文馱著表文於馬背三使以下次第乘車而行過棋盤街西望大清門而行不幾武到禮部門上揭禮部二字少憩於東廊夾室東廊之後有主客司掌諸國通价貢獻之事諸通官皆會於此廳壁記諸國朝貢定式朝鮮國居第一而一年四貢其餘外國則國號多恠詭摠計三四十國不能盡記而無過一年一貢或二三年一貢此其道里之遠近也東壁板上書繕紳案最上行太學士彭蘊章桂良翁心存三人其餘諸官摠不能記諸通官皆著官服乘會休憩移時禮部郎中乘車來到有數三下隸馬道而前

導直到壁廳前下車直入廳後所戴所著即所著朝服而制樣殊異可玩少頃又有一人乘車來到服著與先到者無異一是禮部郎中一是禮部郎提督亦過廳事而入三使往候於大廳內揭曰寅清贊化安表文於床上鋪以黃袱床之後又設高床俟候移時禮官自廳後出來亦有無數官人序立左右通官導三使立於床前行禮畢一人取表文授之使臣使臣受之跪授禮官禮官受之使從行官人置之高床呈表文之節如斯而已須臾禮官一人更向廳後而入一人與三使相揖而罷三使亦即還到館所

○二十五日朝晴晚海兩大熱玉河館東隅有通官所處之炕通官額負共計十餘人而干涉於館中者五人於五人處各有例給銀兩自使臣到館後至離館日諸通官相與

輪替而來處焉王河館門內有空廳三間輪置方物於其中廳後是上使所處之炕其後是副使所處之炕又其後是書狀炕炕而副使所處最為通暢諸炕前左右翼廊摠是譯官裨將所處也館之東北隅設廚房館門外南邊稍間地有都卜處所館裏狹窄兀諸下隸舉皆露處焉

○二十六日朝晴晚洒雨大熱通官來請三使往鴻臚寺行進賀禮隸儀三使具官服乘車過太醫院欽天監至鴻臚寺門上揭鴻臚寺三字通官前導不由大廳直從西邊小角門而入見有甍廳甚廣而揭曰龍亭門門內有六面高閣揭曰習禮亭蓋諸般習禮之所也亭內設御榻安以交椅鞞以黃緞四面垂以雲紋黃緞帳緞色甚精麗可玩少憇龍亭門下須臾四五個下隸着紅毛帽子唱道前行

寺正卿及少卿次第來到立於門東通官導三使序立於
庭中有二人臚唱於門內通官導三使行三拜九叩頭之
禮禮畢與正卿少卿相揖而罷即與上使書狀還來

○二十七日晴大熱晚沔雨

○二十八日晴大熱通官以糕一盤鵝炙一首送饋之味甚
油膩不適於胃

○二十九日晴大熱以暑毒之遍身生斑搔痒稍甚夜不能
寐即所云土疥也東人之炎節入北者每受此病故同行
遊人多患此病甚者至於遍躰生瘡及其回到娘子連山
等處然後始得痊可云使人往問於此處醫人許以洗藥
方試之

○六月初一日癸亥晴大熱熱斑愈盛又以洗藥試之連服

清心丸六和湯等藥終無顯效

○初二日晴大熱夕飯后與上使書狀出步玉河橋渡風橋在城底無點風之可洒且橋下無點水之流出只增薰氣而已

○初三日晴大熱朝飯后與上使書狀乘車往觀天靈寺寺在皇城西宣武門外十里諱寺門之內有諸僧所居之室極其宏大炕內所設亦多精麗又其次正殿揭曰佛佑無疆安以金佛殿之傍左右廡下有物相應於地中以足躡擊恍若洪鍾之聲錚錚鏗鏗婁婁隱隱隨人聲響其應捷謂之天靈應鍾莫測其端者也殿之前後多淨室庭以奇花異草洽計累千百金如霸王鞭仙人掌西方柳手柑柳桃花之類名不殫記又有馴鹿執麈在園中鶴

鶴鵝鴨之屬亦皆別擾於園中蓋寺僧有用此爲業者云
寺後有臺臺上有淨寮極其蕭灑可以俯覽野色憑眺遠
望庭下有石泉泉甚清冽寺之前有高塔塔磚脫落別無
可玩下有法宇安以衆佛而俱無侈觀寺中有一幅大障
子遍書佛經字劃甚細俗傳古有婦人手書此文三年乃
畢其精力之專一可想至今幾百載之間字劃少無渝剝
若活畫焉仍與上使書狀休憇納涼從廣安門歷入法彥
寺寺亦大剝也佛宇塑像只極宏偉而無他可玩歸路歷
琉璃廠下又歷觀丹鋪斜陽時還從正陽門歸館蓋琉璃
廠非以一二鋪肆言自正陽門外向西而行里許衙衙甚
廣且長左右諸鋪憲壁畫以琉璃爲之故曰琉璃廠廠內
所存畫是古董器文房之具玩好珍寶也入其鋪中眩耀

奪目不可名狀

○初四日晴大熱因主客司牒移四譯館使使臣前期來赴於海澱附近處以為進叅初八初九宴賀於同樂園事通官傳言初七日三使許赴海澱譯官從人亦勿使多負帶來蓋時有賊警聞於日前捕得長髮賊四中餘人於正陽門外乞丐叢中北京人補南匪為長髮賊即所謂洪秀天之徒長髮之人復為雜髮欲探機密而來渾蹤於乞丐之中買者京報京報即朝報也由此跟探多有捕捉且慮有偽著朝鮮服色無常來往之弊故募取我隸輩姓名錄送通官處以為考信之資今此勿許多負亦因此也自禮部探去使臣之能文與否蓋亦例也

初五日晴大熱招致戲子觀其為戲戲具頗多戲漢甚衆

衆技不一奇觀甚多一漢持出一小壺就前倒傾空空的
無一物俄而傾之有水盃盃還注瓶中旋又倒傾亦無點
水旋即傾之滾滾水出此亦一戲也有童子三個皆能為
跳躑翻轉之技一似我國倡優才人之技而神妙則愈有
甚焉橫豎倒躍千般萬殊難以形喻且能立在高處隻竿
之上翻身倒掛轉旋無常如在平地使人不覺岢岨奇絕
又一漢以長鎗之閃刃尖銳者擲之空中舉首仰視直從
額頰口鼻上倒來輒以手捧之擲而又擲隨手探取一不
遺失又一漢取出一標子圍大如盤者掛揭於槌竿之上
不留手輪碾之以長竿次之續之直衝雲霄標子之輪碾
一直不息及到數食頃折去長竿標子落來以手承之如
拾芥焉又一漢分持短槌於兩手將取一大棒擲之空中

以杖承取擲之輪之獲之撥之承接於兩杖之間若指爪之挈物一不遺失又一漢以紅布袂覆之地上倏然撥之即見一大盤有水盈溢金鯽躍出未知從何出來衆漢迭於紅袂中撥出魚菓玩好各種物皆能於筵時頃取出有若無地湧出者然見之者莫不神奇細探此術非是白地上做出每於幽僻無人處必以盤水魚菓等物挾持於禪中以袂覆地假設牢籠托為神奇乃於撥袂之際旋即取出於禪中佯若湧出於袂中者然一盤之水殆近一盃而為能挾持於禪中行步如常甚者至於翻身一轉而後取水出來點水不溢真可謂習之善者又一漢以大瓮豎之於鼻樑之上轉一遷移於頂額之上仰天擡面遍巡庭中一不到落又一漢以蘆篲卷作筒孔置之床上聳身出入於

孔箇中而簞與床一不動撓又一童子脫去上衣立在高
高床上挾持鷄子數十介於口中及領下腋下脚膝等處
兩手執箕盛以梁米翻身倒落旋即下立所挾鷄子一不
遺失所持梁米亦不覆溢又一漢以一叢紙條信手斷絕
恣意糜爛掬在掌中旋又拔出於掌中個個有條一無斷
絕之痕仍又掬在手中忽有一隻青鳥自掬中出來飛入
雲端真神術也見之者莫不叫奇若個戲狀殆不知為幾
十種多不可枚述俱是似幻非幻似真非真恍惚莫測真
奇觀也終日而罷

○初六日朝晴晚沍雨日見館中來往之人皆有發賣物貨
必受禮却文帖而後乃許出入故多不得無常來往每見
來往之人挾持可賣物貨必向從人譯官處買賣之隨其

買賣錄置於賬簿以待回發時都計而去或裒以贖或肩以擔連續來往周而復始日以為常矣

○初七日朝陰海雨晚晴三使乘車早發海澄之行渡玉河橋向北而行崇墉屹々高可八九丈循墻旋回由東安門而入即外宮城門也門甚宏大門內左右列以廛市民居殷盛度石橋見景山兀然聳翠此是宮闕鎮山而俗號萬壽山自金元明時築成假山者也山頂山腰多黃瓦層閣競天特立飛甍彩宇玲瓏隱映於樹林之中石橋之畔環以內宮城々之下又環以長廊々之下環以溝池種以芙蓉菡萏蓂莢之屬一望無涯花香襲人西望東華而過即太和殿之東門也左右多崇垣長廊出地安門乃外宮城北門也門之北有鐘樓鼓樓皆三重簷高閣四通虹霓望

之縹緲迥出雲外由都城北門而出額曰德勝廛市連亘
於門外行過之處往往有石路斷續沃野平鋪黍稷茁茂
穗秉成實多有向黃者矣到三十里海沒即所云西山而
皇上時御處也為是游玩宴戲自金元明朝初營者而初
無溪山之環抱且無泉石之勝際城雉不設廛市不開人
家凋零民居鮮少但見洞壑綿邈樹木葱蔚引水為池築
土為山臨水梯山亭閣淨潔芙蓉菴菴滿塘盈湖恍惚眩
耀如臨畫境三使同為下處於王姓家中火訖向碧雲寺
寺在西山之西二十里所過之處半是西山洞壑之內也
望見玉泉山特秀於西南平野之中山頂有玉泉寺即燕
京八景中玉泉垂虹者此地也白塔之高聳者凡數本而
上頭尖真將有觸天之勢行十餘里遙望山岳崿完城堞

逶迤樹木蔭翳見城內飛甍峻宇神天競秀此乃行宮也
堅鎖無以開玩城之外環以半月城之內即碧雲寺也洞
口設虹霓小門刻曰紺翠凌虛度石橋之高超絕水流湜
浚有二三漂母浣紗其下石橋之畔層階如削階上有門
揭以碧雲寺三字門之內有虹霓三門閉以不開題額曰
圓證妙果門內左右有二層鍾鼓樓當中有法堂揭曰佛
日增輝堂之內揭驚光合印有三位大佛主壁而坐左右
層卓安小之佛像之背又有一像置坐在之皆然不可
勝算堂之後有八九七十二間佛殿蓋殿制設為八面之
各九間其中為十字面之盤旋回之通連如亞字狀安以
金像大佛浴計為五百餘軀相背相對連座置床各以佛
位第次書於像前不可盡計殿後有一殿揭曰勝業慧因

安以大佛左右又安羅漢小像羅漢殿之下有一殿揭曰
靜演三車安以衆佛左右翼室列安無數仙曹皆設乘雲
騰空之狀其下又有一殿安以衆佛左右翼室列安衆仙
之狀亦如殿之前鑿池引水萍草滿塘最後有一高門
內有二重牌樓純用石材刻以龍文極其精巧樓面書登
在菩提四字過牌樓而入有高塔特立以白石築之四面
方正廣袤洽過七八十間前面設虹霓小門中空作龕安
以石佛之座之前設以石床石牀廣大石紋潔白佛座左
右設石梯緣梯數十級旋回而上、頭平鋪石面削白另
以白石為塔於其上者凡七本當前兩塔稍小當中一塔
最大居後四塔亦稍大層皆十三塔面雕刻佛狀上頭尖
真以鐵為蓋如香爐之狀當中最高塔前面又設虹霓中

空為龕安以石佛之之頭九十一而臂亦不知數焉像前
又有石床稍廣比之下層所在長廣厚薄差小焉當前兩
小塔之前面又刻多頭多臂之佛四面皆有石欄憑眺遠
望俯臨皇都眼際微茫雖不能歷之可指而蓋城樓高臺
特出棊列者皆可以指點矣寺之後靜僻處有小亭扁曰
洗心亭之楹多列朝題詠亭之傍巨巖齒之亭之後石泉
滂之引水注之便作島嶼亭畔有石窟安以石佛入其中
陰氣砭人不可久住寺之左右多白幹松側栢木且列植
花卉於堂前花方盛開異香襲人少憩寺傍淨舍由舊路
還向函山而來到十七橋邊湖之周洽過數十里芙蓉的
歷鏡面萬頃漁艇一葉游泳其內湖邊有一大鐵牛背上
有篆文俗傳此牛悲鳴則其兆不祥云遵過湖邊登廓如

亭之是重簷八面面之置柱之數甚多亭前有長虹橋即
所云十七橋也虹霓之設凡十七窠故謂之十七橋也橋
廣可八九十步石欄凡六十餘間寬高可容舟楫之來往
環湖築石作為層欄循欄而行島嶼之中有飛甍翼然揭
曰洞庭留賞湖之越岸相對處有八風樓疊榭層檻崔嵬
崢嶸累巖玲瓏柳榆交翠殆若畫境樓下有虹霓中空為
坎大石層架可容偃僂石面刻嵐翠閣三字霓之左右書
以一聯曰列岫展屏山雲凝罨畫平湖環鏡檻波漾空明
閣之面又揭涵虛堂三字即嘉慶筆也閣中藏書冊文房
之具堅鎖不開其下有皇后游玩之所亦堅鎖不得開玩
樓前有廣潤靈雨祠即祔雨慶祠前三面有牌樓東樓外
面書浮玉二字內面書耀金二字當前牌樓外面書浴日

二字內面書蒸雲二字西樓則額已久矣憇牌樓下南望湖中菡萏芰葦極目無際又見畫鷁飛閣往，迥出於綠葦坵際青蘆洲邊又有虹橋橫亘於東西兩邊東橋謂之小蘆溝橋西橋未聞其名蓋是兩邊水口也復由廓如亭下沿湖到文昌閣下閣凡三層如譙樓狀下設虹霓兩門閉門上四隅各有二層小閣當中有三層閣翼然特出即文昌君野安之處也循堤而過見水田幾百頃沿堤墾拓穰極茁茂耨秧之狀恰似我國而稻畦種豆之俗亦相同矣仍還歸宿處

○初八日晴卯時通官來促天未明赴關禮部負外即豫璋通官二人德祿海冷錄給入門單於閣官始入關門此是關之東夾門也書狀官以下皆不得入焉入三重則王公

以下皆列坐於樹陰下各踞甃床以品相聚而負外郎二人通官二人先導稍僻處禮部下隸持三甃而來郎中通官使臣各踞一床而坐待少頃復前進過數三轉曲處即石渠小港也艍工三人挑檝艍舟之上皆補板與艍頭齊平各鋪大白氈自王公以下每五六人乘一艍潮流而上艍凡四五十隻與郎中通官同乘一艍過一小港有虹橋其下蘆葦成林不由石橋又向東港過數十餘步有彩亭翼然題額曰飲練長虹又轉而溯上則有彩板橋從橋下而過有少石樓虹門刻曰春和鎮似是通南之路也又轉而過有彩板橋從橋下而行菱芡滿地花方盛開左右杉檜翠陰涼風時來頓有清爽蕭瑟底意渠上有宮娥三四人聯袂而過手持繡扇長烟竹版潤袖長衫或綠

色或淡紅色皆絳如東國處子搽粉白娉婷綽約可愛
又轉而過忽開一鏡面水其廣浩渺周迴如我國華城西
屯隄而倍之池邊皆是樹陰樹陰之中掩是彩殿紺宇五
色瓦魚鱗葺屋朝日映之采摠璀璨窓牖玲瓏有三層二
層如臺榭如虹橋榭八窓四闕隱約交映如此者凡三四
十處皆環池而建西邊有石築其上有閣而兩隅入池中
中閣稍退若凹字形窓櫺皆以班竹貼成臨水亭額題以
天水齋稍西高樓題以曠然閣小閣列如棊置庭下雜植
嘉木真仙境也畫境也又沿流轉入小港舶舟登岸有岩
窈高樓之蒼下仍成翼屋仍為虹門題曰雨花彌天此是
同樂園聽戲所也自東而進有長廊甚廣列坐於廊下少
頃自樓上樂作迤入諸王以下隨末班而入廡下有天子

踞床而坐通官導之就前行禮天子先問國王安否次問
在途無事年形何似等語皆向通官答退與郎中通官
并坐於翼廊同忝聽戲庭中有一高樓之中間虛通而
四面皆有廳板設欄干其中可達十丈旗樓下設補階板
板上鋪白氈邊幅設欄干以西洋布為幔帳畫雲紋五采
自簷楹壁欄一色塗抹如設丹雘高開涼棚以細簾簾貼
覆之如削割之狀以朱楹木作間架椽棟不失尺寸以蘆
葦為簷蔽於棚之左右引朱繩而繫之朝陽則垂束過葦
而下之夕陽則垂西邊葦而下之上覆殿屋點陽不漏東
西陽過去則捲去上覆葦及左右葦而懸之以通風氣北
殿設門櫺皆以青綠貼之簷下設御座鋪以黃褥此是皇
上聽戲處也東西兩廡各設一間為隔者凡殿十間皆有

窓櫺而因今番宴戲畫為撤去下鋪黑氈上鋪白氈第三
重俱是紅氈方席此乃群臣聽戲處也樓上作細樂戲樓
之前面垂雲紋畫帳開閉中幅戲子自中幅入來歌舞呈
技輪回出入許多戲技回々各異或金冠彩帕錦袍羅衫
手持金蓮靈芝蟠桃且歌且舞皆是祝壽也或有女子威
粧隨男子而出叙話說情若茶肆酒樓洞房會合雜別之
狀其狀不一其形殊詭而不能解其詞申言語未知演出
何樣小說或有王者具冕服旒衣繖扇儀仗儼若帝王對
坐交椅呼唱幾回而罷或有佛子具袈裟香燭誦梵頌對
坐於層々椅子而罷或有手持彩方扇合則為一展而為
二外面書壽福祿內面書六甲自甲子至癸亥盤旋周回
誦禱而出此是萬年甲子也有佛子乘大柳槎而入柳槎

之制高幾數丈廣長可三四圍以竹片結構若燈檣樣中有四輪後是木輪前是鉄輪而鉄輪則稍小於木輪外裹彩布若柳樣樣下垂畫布圖以海濤水勢中有人挽運而出外樣者之柳樣自浮旋環而實有挽運之人故也又有騎龍而出者頭尾蜿蜒望若生活有騎象騎虎騎鹿騎馬騎獅騎鯉而魚樣不一有騎鯨者盤旋累回宛轉徘徊忽自口中噴水一道驟兩直上飛閣簷桶之上其氣橫亘十餘丈幾度噴水滿庭沾濕又有水雹碎如豆大噴如虹霓未知何術也必有人在鯨肚中持噴水機轉幹而使然又有騎鳳騎鶴者鳳鶴之脰高一丈餘脰上設丁字木板纏足於木板上外垂羽毛步行旋回真奇技也此果魚龍曼衍之戲也歟有才人數十筋斗撲地旋撲旋起有兩人以

手承之越擲於肩頭上則又轉旋而立或有連三次越擲者形之色不可盡記中使來宣飯少退於廊外守直時則兩人持一卓而皆是鷄猪鵝鴨湯炙等物味皆油膩或有平淡菜品餅餌無不具焉寢後設白米飯一小椀飯罷進茶午後又宣糖屬一大盒各色餅糖真異味也又宣果品一盒西瓜真瓜桃李蓮根新板桃去皮者又宣糖一咒駝駱一咒皆以青玉咒盛來食訖宣茶到未正而罷出還宿處

○初九日晴鷄鳴時通官來請詣闕恭聖節進賀禮與上使書狀從官乘車到圓明園闕門外日尚未明朝臣之恭班者皆已來會闕外擾如海暫憩於禮部直房門簷之下以待天明見無數擔夫兩為耦共荷一大木板覆以白

紙直向闕門而去者甚多意以為宴需饌具闕而視之滿
板上全是小小佛像粉白綽約不知為幾千萬軀此是獻
壽時所呈也獻畢送致諸剎而安之云天明從通官由一
夾門而入即正大光明殿前東夾門也左右翼廡亦頗宏
麗度一石橋至重門外楣上揭以出入 民四字門之內
即正殿也殿廡深邃殿陛廣邈殆無以憑瞻通官導三使
及從官於重門外西班之末門內則秩高者序立門外東
班則多秩卑之人東班之末則耆民入恭焉秩排班極其
整肅而恭班者之外隸徒不得入焉故無鼓有喧嘩者矣
復見皇帝自正殿之東巡簷廡下出來球磬管籥之聲屢
屢可聞設大索四條於重門之外長可七八丈徑盈拱把
四健夫各執一條迨皇帝出座時盡力揮擲於地上碌碌

響應如是者三度謂之鳴鞭即天子警蹕之節也儀仗之屬殆過數百種如蓋如幢如幔如幡莫識其名色皆用緞帛金彩而為之自班末直亘於闕外分隊列紳於正路左右迨皇帝出座之時一齊橫偃旋即一齊樹豎此亦儀節也歟在班諸臣及三使俱為行禮畢天子還入又鳴鞭二度諸臣退出三使復從舊門出來從通官由東闕門入參同樂園聽戲書狀以下亦不得從焉諸戲皆與昨日大畧相同而龍鳳鳥獸變幻恍惚真天下奇觀有寶塔三層自樓上竅坎中次之浮下此亦以竹樁成圍外裹彩布若寶塔樣蓋以繩索繫結之自上垂下浮在空中者也少頃卷而上之樓上廳板每鋪白氈以釘著之合則為一分則各散撤其廳板積置一邊中通成嵌洽為四間許如開井

欄少頃忽一大黃金寶塔自其中漸次湧出其四面各應
方色宛轉上來至塔之第三層有虹霓門有一人着金
帕彩服粧嚴佛像而坐門外有二沙彌執幢而侍四面有
佛其制如一次、上來至五層而止有五童子各立於塔
外而此則以竹成形着以繡服卷之則貼為一繡巾其形
形色之歌詞舞蹈之外有美槍有鬪劍有擊刺有投戈息
戟有執燹貢獻之戲不可殫記只錄其萬一見太液池小
港中有一般宛轉上設黃錦圓棚若車蓋樣四面垂黃綠
細簾聞昨日皇上游汎云少頃進午饌之品與昨無異又
於朝臣及朝鮮國王朝鮮使臣處皆有賞賜而加賞朝
鮮國王玉如意一柄大緞五疋蟒緞六疋粧緞六疋錦緞
二疋閃緞二疋大紡絲五疋纈箋二卷筆二匣墨二匣硯

二方正副使各紫檀嵌玉如意一柄大緞一疋彩緞一疋小卷八絲緞一疋小卷五絲緞二疋箋紙二卷筆一匣墨一匣硯一方書狀官大緞一疋小卷八絲緞二件小卷五絲緞二件倭緞一疋箋紙一卷筆一匣墨一匣大通官三負押物官及從人處亦有緞疋銀子之賞賜有差見其朝臣處賜與之物如緞疋玉如意玉盃咒四率多玩好不可勝計到未正罷戲出來且見諸王貝勒額駙及朝士大夫豪貴之人皆著新鮮衣或騎駿驄或乘車或乘四人轎橫馳出入於關門又見豪貴家婦人輩皆粧威歸各率一二個小兒乘車入關似是近戚婦人之叅玩宴戲者而又有二個人年可十餘歲懸著紅緞頂子版蟒緞長袍各騎絕大駿驄自關出來即是皇帝親侄輩云兩年額幼小為能

自御駿乘恣意橫馳異哉北俗之善御也即到宿處治裝
還館與上使書狀乘車行十餘里歷入覺生寺即所云大
鐘寺也寺之門外有三門面墻、內設正門、閉不開題
曰覺生寺門內有佛殿揭曰妙明正覺殿後又有一殿見
一軀金佛當中而立諸僧方燃燈念經殿內揭曰允聖同
居殿後有二層高閣簷宇周圍如覆蓋之狀閣中懸一大
鐘、體甚巨即大明永樂年間姚廣孝所鑄也鐘表細書
華嚴經一通筆劃精妙徹上徹下遍滿一鐘、其廣甚宏固
閣面揭華嚴覺海四字閣之左右有樓皆藏經板不許開
玩樓之東有淨寮炕中所設之物亦極精楚仍設層樓、
上安佛像亦方燃燈供佛蓋今日是聖節故也佛殿之東
隔長廊皆是炕也或揭曰客堂或揭曰方丈或揭曰茶房

皆諸僧取處也堂前雜植花卉而別有奇異草卉矣由德勝門到館日已昏矣

初十日朝陰晚晴大熱

○十一日晴微風

○十二日晴

○十三日陰海雨

○十四日陰小雨晚晴與上使書狀乘車往雍和宮之在城之東北隅永定門內本雍正帝潛邸也與民居相連前有昭恭門由夾門而入中有虹霓三窠即雍和門也門前有大鉄獅二坐左右有碑閣及鐘鼓二樓皆重簷也其內有一殿即天王殿也揭曰現妙明心有大佛偃蹇憑坐於高榻之上左右有無數神像張目凝立能使人頓有恐懼嚴

殺之意其後有層殿揭曰雍和宮、庭有鉄香炉及鉄池
二坐殿內有無數大佛、卓皆以石為之制度甚偉殿內
鋪彩璽逾卓前所列香炉香臺等物雕鏤龍獅極其宏麗
又其後有層殿揭曰永佑殿、內多佛像甚偉殿後有三
層巨閣實五層也下層揭曰淨域慧因中層揭曰圓觀并
應上層所揭絕高不得仰瞻僅記萬福二字殿內前面揭
曰放大光明正面揭曰大福德相殿之中有丈六全身著
以文綉之衣儼然寔神而土左右有層梯凡六轉而至上
層僅與佛肩相齊而佛之頸則猶可仰視每層為樓為欄
樓之上八隅皆設琉璃彩龕安小像金佛玲瓏照耀不可
名狀推開樓窓俯瞰大道全幅都城臨在眼前殿之左右
有二層樓自樓上複道相通樓中有十五層木塔層之而

面皆安小佛塔底設以輪機以手推排全塔轉幹甚奇巧也或傳康熙帝手制也云層樓複道木塔轉幹之狀左右同然殿後有閔帝廟之前香爐絕大可玩庭中又有若機架狀者以銅錫為之體制濶大未知用在何時也楣額揭武聖殿三字即今皇帝筆也門上左右又有萬世人極仁至義盡等揭語宮之東有行宮強請開玩寺僧及守直者拒而不許即出寺門轉向北街，上有木牌樓書曰成賢街即太學洞口也又行幾武有左右牌樓書曰國子監由夾門而入門之左右有二井，上有閣，甃上通俾受兩露之氣焉從持敬門而入即正殿前庭也瞻謁於庭中殿陛皆用白玉石細刻蛟螭光澤澄潔殿是二層中層揭曰大成殿之內揭生民未有聖協時中等語位板是朱恭全

字書曰至聖先師孔子神位又有顏曾思孟神位居中而配焉又有六位分配於東西蓋十哲諸神位而朱夫子配在末位焉殿內鋪撥欄皮席香卓之屬別無別設殿之下東西兩廡洽為殿三十間兩廡之內列妥從享諸賢神位以至明清儒賢位板甚多無以數計殿之庭有六碑之文總是紀蹟碑體崇屹碑閣崔嵬皆設重簷丹雘明鮮前有大成門、內左右有石鼓十座篆文雖已剝落此是周成舊物胡為而至此哉能使人拊昔不已也傍有鼓文傳本之碑門外左右有新石鼓十座康熙年間所設者而篆文極其精妙又有大碑二本一是石鼓詩而清朝人張照書也一即紀事碑也門庭列植側柏蓋、成林其中有古栢世傳以為元祭酒許衡手植云柏林中有無數石碑洽計

累十本細書清朝以來科榜門左翼室是省牲亭與神厨也門右翼室即致齋所與神庫也復從持敬門出來循西廡之後步過向西北循崇墉而行到一門即辟雍夾門也入其門四面環以長廊之內環以水築以石為島嶼四面皆有石橋以通往來島嶼之上有二層八面黃金閣內設御座左右有揭板及楹聯前面板上書雅涵於樂四字楹聯書壽考作人聽鼙鼓歌功敢忘法守好音懷我冀齊旂典學盡八甄陶右板上書涵泳聖涯四字楹聯書金元明宅於茲天邑萬年今大備虞夏殷闕有間周京四學古堪循左板上書萬流仰鏡四字楹聯書繩武肆隆儀仰禮樂詩書制猶豐鎬觀文敷雅化昴子臣弟友責在師儒閣之前橋外左右有二層碑閣又有彩瓦石牌樓題曰園

橋教澤樓外有鍾鼓二樓俱是層簷其外有三大門而與左右長廊相連廊是空廊左有崇志堂誠心堂繩愆廳右有廣業堂正義堂修道堂只揚扁板不沒廳事見無數石碑簇立於長廊之內洽計累百本細刻十三經正文即康熙朝將湘帆六十歲時所書也而字劃楷精其遺像寫經之狀宛然刻之在一片碑上見長廊庫舍中有無數凳卓即試士時每給一床使之安踞者也閣後石橋之外有日影表以石為之體圓如鏡中挿鉄籤橫斜欹側於石臺之上矣復由舊路乘車而行過成賢街向西北而行遵城北鐘鼓樓下由地安門轉向北街有長虹橋似西山之十七橋者橋之兩岼有牌樓東樓上書玉竦二字西樓上書金鰲二字橋之上下湖廣甚濶芙蓉菴落一望無涯湖之左

右層閣崢嶸畫樓玲瓏駐車望之如臨仙界過橋遵湖而行到萬佛寺殿是三層而內實五層也揭萬佛樓三字殿內有大佛列坐左右層卓安無數小佛洽訐累萬像轉上層梯大佛像及小佛像之多亦如下層又旋回綠梯而上又有大小佛像亦如之每層樓四角各設小龕莊以琉璃安金佛小像推闢上層樓俯臨都城萬狀呈露庭中列植白幹松庭下有石橋玉欄珊、橋外有石牌樓皆以白玉石為之雕刻龍獅之屬牌樓上書法輪高勝妙境莊嚴滿萬曇霏等字又其傍有一門揭曰普慶門、內有二層黃金高閣揭曰極樂世界殿內設木假山彩雲英、峯頭雲端諸佛拱立彩閣法宇飄渺高聳於山頂中、有路盤而又旋望之鬱葱如聞磬鍾如挹雲霞同行之人偃偃而上

谷之相隔隈隩轉旋如有不可尋之狀儘奇觀也殿之前多有石橋及彩瓦石牌樓題以神洲寶地震旦香林等字過牌樓而下五亭列峙於湖邊即所云五龍亭也蓋五亭列峙於湖中石橋相連屈伸逶迤如行龍之狀故曰五龍亭一是浮翠亭一是龍澤亭一是澄祥亭一是滋香亭居中之龍澤最高而重簷與上使書狀同暇午飯於亭上蓋已指揮厨房於千手寺中矣飯後下亭入千手寺之在萬佛寺傍五龍亭上外門揭曰闡福寺門外左右有牌樓舊址鉄獅二坐相向於門傍門內有天王殿左右有鍾鼓二樓殿後有重簷大殿揭曰真實般若前有二層八面閣之內安佛像殿後有三層殿內實五層也上層揭曰大雄寶殿中層揭曰莊嚴圓徹下層揭曰福田花雨殿內揭普佑

大千有大成德等字殿中有一大金佛立焉千頭千手厥像甚偉手執一大黃涼傘左右有梯凡六轉而上至窠上層綫與佛肩相齊每樓上四角又列小龕安以佛像開樓窓而視之迥臨雲際俯瞰禁苑眼界恍惚如入仙區復由萬佛樓下出寺門過玉鍊橋又過昭景福華陽澤等門即關內小門也又見一處有左右牌樓題曰弘佑天民孔綏皇祿前面牌樓書乾天資始牌門之內多有高樓彩閣未知亦何廟宇也下車神武門傍此是禁中車馬不得來往故也步到神武門外北上門前少憩神武門之左右有長廊即是儲置錢帛之內帑而環以後苑者也過一小門乘車而行復由東安門到館

○十五日晴大熱自工部來造涼室即華語呼云簷棚

華音天風

日也見材木及蘆葦之屬無數輸致於大車役夫甚多其中
有領率董役之人隨宜指揮量其庭際濶溢豎柱橫椽
不施棟薨平鋪無脊高可五六丈長短廣狹一中規矩東
西及當空處皆另設簾簷簷隨陽卷舒以通風氣各有制度
凡於卿宰富戶及廛舖之中多設此閣蓋北俗夏月之例
備者也三使坑前及諸譯通官處所並一時造達若不贊
力者然真上國規模也畢役後有一官負來檢其勤慢

○十六日晴大熱自申後陰曠大雷大電連夜不止而雨不
甚多下丑初二刻月食館西有舖名廣成局者姓焦年過
五十餘為人短小世居於此出入館中每與朝鮮人相接
能解我語見任欽天監椽屬來報一本紙印以月食之狀
以滿漢字具書月蝕度數及初虧復圓時辰者也且館中

亦用咒四盡為貫取於焦局而輸給幾兩銀子云

○十七日晴

○十八日晴昏後驟雨大至連夜不止

○十九日陰雨

○二十日陰

○二十一日晴

○二十二日大熱聞裏之磔之響動天地眾人喧呶莫測倪端廚房西廊幾間忽地頽壞眾皆恐劫慮有人馬壓斃之患而人馬許多猝莫省何人被壓何馬致斃一邊照數人馬一邊搬撥破瓦幸無人馬致傷之患而一場擾之不害為破寂之方

二十三日陰暮兩三使日夕相對無所事為永巷難消且

留館日久回發之期已差多日上下一行舉生躁盭之心
指入上判事馬頭使之往探禮部方物當於何時呈納賞
賜何時領受宴饗何時行之回咨何時受來回國何時往
請與否上判事馬頭時探來皆杳然一自初九日宴戲
以後舉朝大夫分日開戲競相獻壽漫不省事以致稽緩
於治咨云之凡彼中消息皆使上判事馬頭探來一從此
人口傳以為的竒近聞山東南界曹州地距京為千餘里
曾有土賊今復熾感擾攘不息方調發京中兵出征云又
聞抄兵出屯於蘆溝橋黃橋通州地 涇州等處每日陸續出
去而此是備禦洋船者也凡與師屯守之處合為十六七
處而見今全安之處惟山東陝西四川甘肅廣東而已南
匪則近益猖獗杭州蘇州三月失守提督和春戰亡張國

樛未知下落翁同書曾國藩代為出征未知這間勝敗之
何居而洋人則或下陸於登州地要關交易或來往於天
津近處僧王格林沁率師札駐於天津以為防禦山海關
亦以海口為慮發黑龍吉林蒙古兵輪回把守者已有年
云

○二十四日雨

○二十五日陰乍晴

○二十六日晴自禮部始有文牒獻貢領賞宴饗受咨回發
皆有其期甚幸

○二十七日晴辰刻送納方物諸譯皆領往輸置東華門外
諸漢檐入於左翼門內即太和殿庭也各有所掌官負照
數輸納帛等屬捧納於體仁閣下庫中草席史物等屬

輸納於昭德門傍庫中庫中設卓列以糕餌等屬有似禱
賽者然而庫空無人只見設卓尤可異也紙束油菴等屬
○輸納於中左門內庫中布疋紙束一、照數草席長廣亦
皆尺量而納之

○二十八日晴因領賞及仍請回國事主客司指揮來到巳
刻三使具官服乘車而行諸譯諸裨皆從焉至闕之夾門
○外下車通官前導由天安門而入門之左右有大石柱高
可六七丈者屹然相對雕刻龍文蜿蜒委曲閃鱗飛騰謂
之擎天柱門是二層寬設五窠門制甚巨寬築甚厚自外
至內廣可七八十步入其窠幽隱深遽如入洞壑窟嵌之
中門之內右有社稷左有宗廟左右翼廊連亘於廟社者
不知為幾十間庭內廣濶鋪以甃磚又入端門之制與天

安相同門之內右有社右門左有廟左門左右翼廊之連
亘者又不知為幾十間皆諸官負朝房也至午門外右廊
下少憇午門即太和門之外門也門制亦與端門相同而
左右有複闕聳然金碧耀日庭際之曠濶愈過於端門之
外自午門至端門洽為八九百步自左翼廊至右翼廊亦
相等言語不相聞望人過往者不能辨識其面額其廣可
揣而午門之內亦當若是庭中築石臺、上置日影機以
石為之體圓如鏡中神鉄籤斜欹向北以占時分者也
候移時禮部侍郎楊式穀來到通官導三使至午門外向
午門而立庭之東畔設高卓覆以黃袱置賞賜之物於其
上禮部侍郎亦立在其傍有一人立於午門下臚唱三使
行禮畢各以緞疋銀子鞍馬靴子等物面、頌賜有差疏

受訖又行辟蓬之禮由端門從舊路出來直達館所蓋觀
殿宇之制太和是正殿而殿後有中和殿又其後有保和
殿保和之後多有殿閣之列置者想是燕居便殿及內殿
也其後即景山之頂山背林木之間多有層閣又其後有
神武地安等門太和之傍左右有中左門中右門、皆南
向又其次左右有左翼門右翼門、皆東西相向又其次
左右有二層閣右是弘義閣左是體仁閣東西長廊各三
十餘間皆是綬帛之府也太和殿是二層而制度雄傑無
以方擬中和殿亦二層而上層周圍制度精巧有縹渺之
狀保和殿亦二層制度稍異於太和殆有淨淨之狀太和
中和保和三殿承次而峙達鞏路如矢中左中右兩門與
太和並列如張翼之勢而中和保和二殿俱在中左中右

之內德昌門在太和殿之西畔門左有紫光閣即武士騎射處而每歲新正宴外藩於此云太和殿前築三層階之級高各丈餘皆以白玉石為欄雕刻龍文珊瑚之類凡左右翼廊之階級皆如是石先奪目如臨雪景殿前層階上列置烏銅香爐圍大如巨瓮者共計為十七座以銅鐵鑄成鶴一隻犧一隻列置於庭畔又以黃金鑄大鏡四個置之宇下其餘鉄鏡之列置於翼廊之下者不知為幾個之多庭中設品石以銅鑄之殿庭下有草花黃名誓儉元世祖思創業艱難移大漠莎草植于丹墀之下以示子孫無忘草地謂之誓儉草殿之前門是太和門之左有貞度門之左有昭德門之各三門共為九門而不設甬道橫亘於殿前太和門之外是午門午門之外左右長廊是諸

官朝房而寢末左右有社右廟左兩門午門之外是端門
端門之外又有左右長廊及廟社存焉其外即天安門也
門之左右有許多處所其外是大清門左右有長廡庫舍
其外即棋盤街列以諸司及廛舖大清門之外即正陽門
俗稱前門元時名以麗正門皇明時改今名前門之對又
有三層門揭曰正陽設而不開大清門及正陽正門惟大
駕出入時由之凡闕門上扁板多豎揭曰橫揭者少焉右
行則以漢字書之左行則以滿字書之必以滿漢字分書
之自前門仍作月城東西各設洞子門以通左右之街月
城之內東有觀音大士廟西有閔帝廟而廟制皆不甚壯
麗正陽門是都城中分橫截之城門也而即宮闕前門也
門外有正陽橋跨亘於城濠之上以石為欄分作三路以

欄為限中路是輦路也左右是車馬四達之路其廣可揣橋外設牌樓三間跨準大街其高其廣無以揣得樓面書正陽橋三字其外即都市也自此直抵都城之南門沿過十餘里通計南北可料數十里東西之相距亦可知也而城形宛是日字城有九門不能盡記自都城之正南門歷正陽至太和門一串貫來其直如矢自太和門歷太和中保和三殿又過神武北上兩門至地安門亦一串貫來少無逶迤排鋪之整齊規模之宏偉皆可以想得也

○二十九日晴

○三十日晴

○七月初一日 晴午刻通官請行下馬宴禮於禮部三使具官服乘車往禮部少憩廳前庭中設虛位垂以雲紋

帳置高床覆以黃袱列以燭臺香爐即行禮處也少頃禮部尚書滿大臣森出自廳後同為行禮於卓前通官前導入大廳中有一卓主壁而盛備禮部尚書領之其傍三卓向東而設亦皆盛備使三使領之盡是果糕糖錫之屬猪羊鷄鴨之炙以全脚全肩盛之於輸錫之甕一卓所列洽計五六十甕可謂盛卓西壁下又設盛卓無慮七八十卓皆為正官從人而設者有一隸行酒未畢忽見一隊黑漢撲地攔入攫取饌羞自相踐踏鞭扑狼籍勢極危怖不得下箸傳還酒盃旋即起身出來禮部尚書先已起來至虛位前與之行禮而還少頃又輸致饌卓於館裏謂之上馬宴搬來饌卓緩到炕前又有羣漢突撥入來競相攫取而去紛拏雜還之狀一如俄間諸譯從官處亦各有卓而

炕前起擾尤有甚焉非是宴好之美意而還貽一場因惱
上國宴賓之節若是駭惡甚可歎也朝士程恭壽曾經太
僕寺少卿素稱端雅士也東使之到燕者或多相從其使
書狀亦數次來往為是作別來坐廣蕉局貽我墨畫四本
雖無一面既有贈遺之厚故與上使書狀同往焦局備待
東來館一卓與之筆話移時而別稍有殷勤不忍別之意
可嘉旋以紙墨之屬送遺於程亦以紙墨畫扇答之

○

初二日晴先送先來軍官

上房軍官金仁焜副房軍官崔孝承譯官劉在寬上判事馬頭

車祥平明還發渡玉河橋從崇文門出來俗稱河大門也
擡頭東望家國有茫秋風長途懷緒悠復頓覺快豁底
意到通州五十里見沿路所經店村街上及店舍門內皆
押小旗書以團練二字或書以巡拿奸匪等字蓋此時賊

警方悉將欲點察奸匪之號令也。又於店壁上揭以告示傳令之文，其文皆以四字五字叶韻作句，即是巡察奸匪之意，而皆印本也。始到通州，見無數軍兵，彌滿城中，閱之則自皇城調發八旗兵往赴天津者，而總數則或云八千，或云五千，未知實數。多小皆著戎衣，持兵器來往於街上者，甚多。所著服色無被堅之物，頭戴帽子，身著長袍，背著坎肩，衣或青，本紅，祿或紅，本青，祿皆應方色。謂之八旗者，此也。手持小銃一個，腰帶短劍一口而已，亦無執銃之物。而所騎之馬盡肥胖矣。中火訖，發行到燕郊二十里宿。○初三日晴大熱，平明發行，寒林庄五十里，中火，船渡淳沱河，到邦均店四十里，宿。以圓送禮緞，之不得領來，還送上通事及上判事馬頭使之追及卜車而乘來。

○初四日朝陰渾雨晚晴大熱平明發行至十許里解渡一河即薊州江下流也鶯山店五十里中火適鶯山店市日也賣買東西別無可觀而店西一隅即驢騾交易之處也驢騾之群結隊簇立且有衆漢之衣黑者競相來往屯聚其間渾是一團黑雲陣望之可以駭視發行至蜂山店山隅方設唱戲觀者如堵至枯樹店下輜於樹陰下關廟前上使追到與之少憩日熱太甚衝炎而行到玉田縣五十里宿

○初五日朝陰晚晴大熱午後驟雨連夜留置首譯於店舍以待禮緞之未到使之領來平明發行到沙流河四十里中火輜馬一疋忽發腸病中途致斃可歎冒炎發行至十許里新房地爆熱烘蒸炎氣如熾忽者一陣黑雲自此蔽

空而來雷響旬之大野沉、陰風淒、樹木怒吼兩師風
伯雷公雷母馳突奔鶩翻盆傾海咫尺不辨北備兩具手
脚荒亂且行且走無處避匿人皆氣促馬皆搐鬣傾刻之
間水深途上黃泥沒腰人翻馬跌不能作行馬頭時良緊
揭赤脚搏水衝泥倒躍於前曰乃今始覺別行、色也蓋
夏月行途一兩不逢既是稀異之事今馬快逢大雨滌洗
幾月蒸熱之氣頓覺清爽涼颯之意宜其真態之發出也
冒雨到豐潤縣四十里宿未及豐潤五里地雨終浥塵矣
首譯及上通事領率禮緞而追到可幸縣城之內及店街
上亦多有軍兵之來往者聞是吉林蒙古等兵之將赴天
津者方會同於此云

○初六日朝陰晚晴平明發行到五十里榛子店中火亦此

地場市日也沙河驛五十里宿路見卜車數十餘兩皆押
戶部旗号有一官人乘四人轎向皇城而去云是戶部大
人未詳從何而來也又見十餘兩卜車皆押引見旗号中
有一官人乘獲轎馬而去轎制似我國而無扶嚙下人只
有前後牽夫而轎後多有騎馬隨往之人最後有一婦人
乘車隨行聞是拜官赴京之人也又見二人各騎健馬背
著一封紙塊吶喊馳突而來即是我國所云擺撥軍也近
日途上往見之皆云自山海關而來今日所見連為三
次未知有何事由於山海關也

○初七日朝陰晚晴風涼頓覺秋意平明發行以轎馬之生
病乘車而行到望夫臺四十里中大渡灤河及青龍河到
獲望堡五十里宿見沿路行潦稍漲兩痕新經問於居民

初三四兩日連雨水漲云矣買得一衛於永平府

○初八日晴食後乘輜發行未及里許兩馬輪次而卧可悶渡羊河由撫寧城北門而入亦城中市日也稍有布列東西從東門而出下輜於店舍因上使病作不得前進仍為留宿

○初九日晴平明乘車發行到四十五里深河驛中火亦市日也中火後亦乘車而行數十里路多崎嶇至於翻車亦覺苦况路見無數兵馬陸續於道問之則自山海關移屯於天津云罷機輜重亦不知為幾兩至五十里紅花店宿店舍近處來往兵馬亦不可以數計又見一隊軍馬自東而來大張旗幟彌亘大野中有一人乘著四人輜而去即提督將也軍兵盡為過去店中所住之兵亦皆一時從往

店中頓覺息撓第見送父別第之跡泣悲咽長嘆短吁之
狀行路可以流涕那軍兵之來屯山海關雖已多年而皆
有親屬之來徃且無臨戰交鋒之急則猶可自况而今此
移屯可謂生離死別至情分張之應宜其難捨也為問爾
父爾兄何時當解還否那人輩皆掩涕而語曰吾皇上有
福則八九月之間可奏凱而還若無福則生死未可知也
云聞之者尤覺於憐

○初十日晴食後乘車發行渡渾河入山海關土城門內使
譯官通報開將關將出坐關門之內三使乘轎次第出來
與書狀登四方城上俯瞰前日屯軍之幕舉皆空虛只有
一二處如干人馬尚留在焉始知盡數移去也乘轎前進
行未數里復下轎乘車到五十里中前日未午矣仍為

留宿

○十一日晴因上使之病添招還厨房仍又留宿

○十二日晴大風平明發行四十里滿井鋪中火五十里中
後所宿

○十三日晴大風揚沙飛塵平明發行到五十里沙河所因
上使病添仍為留宿過二臺子見路傍山隅柙六個犬木
懸以相筐，內盛以餉馬賊首級共計十二個隨風搖，
所見凶恠近日餉馬賊衆往，有剽奪之變且聞追來領
卜人所傳則玉田城外有賊刺殺二人於途上見方目觀
而來云

○十四日陰平明發行東八里堡三十八里中火單羅店三
十六里宿路見村中又有唱戲處觀者甚多

○十五日雨下鎮日不開平明冒雨發行三十八里杏山堡中火渡陽店四十里宿泥灣殆甚進步極艱路見數十群驢騾下馱皆押朝鮮官色旗蹄此是回還下馱之貨車出付者而驅車人以為車載不便於泥道馱以驢騾者也自皇城至柵門運下貫銀必補物之斤重每百斤給銀子五

兩云

○十六日朝霧陰晚晴平明發行二十里木凌河堡中火渡大凌河水漲溢河廣甚濶上判事馬頭已先到河岸募衆居民擔輜而渡涉之難比之入往時頗覺艱險道路泥滑迂回而行未至二子臺輜馬為滑泥所跌而顛仆者累焉艱辛前進到石山店宿亦石山店虛日也又設唱戲於店村之隅觀光之人彌填於諸店矣

○十七日晴平明發行四十里閭陽驛中火廣寧站四十里宿

○十八日晴平明發行四十里中安堡中火小黑山三十里宿軍牢一人之中路先送謂之軍牢陪持付家書夜因滯氣服養胃湯

○十九日晴平明發行因滯氣之未下不啜朝飯乘車登途且避泥塗迂回作行到胡家窩棚日已午矣復乘輜而行二道并子五十里中火白旗堡五十里宿通計今日行役洽為百餘里

○二十日朝陰晚晴平明發行至營房見新婦于婦之行數十兵騎帶弓挾矢一隊衆人鳴金鼓吹許多儀節足以駭視至柳河溝泥濘不得作行下輜步過上使亦繼到同為

步過泥甚處騎馬至大路下馬於顯佑寺前入徃周覽蓋
聞此寺初於咸豐四年皇城白中堂所營設彩尚新稍有
可玩寺後有閔帝廟揭以萬世人極四字即今皇帝筆也
復乘轎到四十五里新民屯中火見店裏有十餘兩車皆
押小旗書以廣寧縣正堂五字聞昨日於柳河溝上逢餉
馬賊見奪了七百銀子無幾東西多被刀鋤之傷不得前
進還到于此一邊報知永平府使之跟捕一邊治療瘡痕
休憩人馬方擾攘於店裏聞可怖也中火訖發行罷渡周
流河日已暮矣到三十五里孤家子宿夜闌後方欲就睡
忽下隸一漢奔馳而到氣息促急語言謊亂呼其同類之
名曰吾與某也某也作伴而行到某地林叢中趕出一奔
騎馬的強盜吾則脫身奔馳而來某也某也未知其間性命

之如何云諸下隸得聞此說招群呼類携棒提杖噪聒兩
喊奮力疾追而去忽蕞黍田中走出一個黑漢意以為盜
無限滾打追還到店裏舉燭而視之即是本店裏店保俄
因出他值暮而還者也遂相與大笑而罷蓋近日所見所
聞大半是強盜劫掠等事衆隸輩裏十分是悖悖底意
于斯時也旋聞同類人被劫之報挺身趕追滿心都是疑
懼滿目都是強盜况值夜色沈冥不辨咫尺忽地走出一
個好標跡的黑衣漢勢將不問先送一棒不言先施一拳
那漢之方被棒受打也應不知幾番疾痛曰我不是強盜
我不是強盜也云而衆隸輩元來短於華語不即解聽恐
懼居先必以滾打為長策故也勢所必致堪供一笑落後
車輛之隨到者值暮於津渡夜深始得到站問之則皆曰

初不見盜云店保之被棒做謊者似應當之

○二十一日晴平明發行四十里大方身中大四十里瀋陽城裏宿永安壯元之間泥濘殊甚路多陷坎橋樑亦壞馬不得行輻無以過車亦沒輪或步或騎行路之艱無如近日矣

○二十二日晴平明發行二十里白塔堡中大四十里十里河堡宿是日之行程僅為六十里亦以泥濘或步過或迂回日暮抵站

○二十三日晴平明發行爛泥堡二十五里中太迎水寺三十里宿

○二十四日晴今日宿站即娘子函也例於回站始接家書於娘子站為是探信約與上使書狀未明發行騎驢到夫

子河之水大漲橋樑盡頽上判事馬頭曠待一小艇乘艇而渡過遠東北城下三十里王寶臺中火踰右門王祥二嶺渡三流河之水漲溢輻扛幾沒闌之居民自十二日至十五日數三日之間大雨連霖云到四十里娘子山宿站灣隸無一人入來者似緣先來渡江之差遲而致此寥寂然一行俱未免悵缺而落莫

○二十五日晴未明發行至小石嶺下與書狀步踰青石嶺四十里甜水站中火店主即先來出去時看車的哈哥也始聞先來出去時阻潦淹留涉險艱苦之由具言娘子青石之間遭三日暴雨平地水深洽刺丈許輪浸轆浸卜馱沾濕盡將緞疋衣衾掙，的都做了紅色的白色的紅色的咄，無奈何細拋了車裏頭又行幾步漸看水勢得

漲大海無邊又無奈陷入了漲泥露立在沒濤上三箇老爺面色如土仰天無語而已千辛萬苦尋路而出往投村舍淹留了兩個日少俟水退始復登路十六日乃得抵達邊門這裏苦况猶難枚述云：揆以哈哥好言已料抵京京之過限中火線訖促駕而行與書狀步踰會寧嶺至嶺巔騎驢而下到五峯觀裏少憇至娘廟前忽見白衣兒中數人就前迎拜即所云灣府饌物色吏也初無宿面先覺欣豁袖中出一封書以進乃家書也忙手拆緘家國俱安欣幸之極容可已也小轎亦自灣府入來即乘小轎到四十里連山閑宿一行各人皆聞家信故相逢每勞問家中安否彼人輩有或向我人說道家裏太平响云：蓋每見我行至此始聞家信故也

○二十六日晴平明乘小轎發行通遠堡五十里中火渡八渡河，亦漲溢到四十里黃家庄宿

○二十七日晴平明乘小轎發行乾子浦四十里中火未至柵門數里地復乘轎抵四十里柵門宿見家書灣府下人及驛卒輩亦皆來待

○二十八日晴留柵以待車卜之來到使上判事馬頭報知鳳凰城將以為早許開柵

○二十九日晴平明乘轎發行至柵門前待鳳凰城將出坐開門然後始為出來至六十里濕井坪中火設置幕帳一如入往時中火緩訖即促發行夕陽時始踰九連城峴望見灣府粉堞悅對舊顏良覺欣滿催渡三江下坐江邊本府尹權應夔入謁於幕所吃茶啗而罷舉燭入城止宿於

凝香閣

○八月初一日 晴行望 闕禮因宿處蠅蚋之甚多移

處於管稅廳與上使書狀會於本府日暮而還郭山郡守

入謁

○初二日晴本府尹來謁新島僉使入謁魚川丞亦以夫馬

差使負入謁上使書狀同為來訪

○初三日晴平明發行所串館三十里中火龍川館五十里

宿中路逢見先來回撥見家書

○初四日晴龍川倅入謁平明發行車輦館三十里中火宣

川五十里宿因過去撥便付家書本官李奎榮夏課居殿

以新官之尚未面者留在本衙夕後入謁

初五日晴留觀妓戲即向日未了之所云項莊舞也諸妓

皆著戎衣或補沛公或補項羽或補張良范增樊噲鼓噪一場而罷較之燕中唱戲亦不知為降殺幾層無足可玩

○初六日晴平明發行率致庶侄女而來另給小轎與其母之親屬並乘而行郭山三十里中大本倅入謁定州三十里宿本倅李承游上京肅川倅入謁

○初七日晴未明發行嘉山五十里中火本倅具駿鉉入謁安州六十里宿本倅李源弼兵使李元夏及虞侯入謁

○初八日陰開東發行肅川六十里中火本倅入謁順安六十里宿本倅李憲慶入謁

○初九日陰平明發行至五十里平壤七星門外乘轎子入城由營衙後門直向營門訪見按使金泰判炳莊日暮到宿處本倅入謁中軍梁惠秀入謁

○初十日晴為按使所挽不得作行按使來訪食後往訪書狀與書狀同訪上使本倅亦來會按使以其齊日不得來會可歎仍與之偕出大同門外載妓樂登船潮流至浮碧樓下還為順流而下本倅自舟中直情與上使書狀登練光亭自營本府各送一卓吸罷轉入營門日昏還宿處按使追來為別

○十一日晴本倅來別聞東蕘行中軍來辭於大同舟中和五十里中大黃州五十里宿本倅上京兵使及虞侯閔宗錫入謁

○十二日晴未明蕘行步過碑閣所鳳山四十里中大以午憇處所之自下換定決棍本府首吏我境諸站例有遠近探吏且有下處報狀受到付以去而此站下處製報提所

定違錯故不得已有此舉措也本倅稱病不為入謁到鈞
水三十里又為中火瑞興四十里宿是日并行三站日已
昏矣

○十三日陰河兩平明蕪行慈秀五十里中火金郊丞入謁
平山三十里宿本倅上京

○十四日開東蕪行金川三十里中火本倅入謁松都五十
里宿留守金叅判元植

○十五日晴平明蕪行長湍四十里中火坡州四十里宿本
倅金沃根上京

○十六日晴日出蕪行高陽四十里宿本倅金炳陶上京家
兒出迎甚欣親知某亦有多出迎者殊可欣慰

○十七日晴暮兩平明蕪行到新院適見三從妹金氏婦喪

行來過店舍殊極悽絕三從弟淑道隨喪而來與之暫話
到弘濟院伯氏次到店舍諸叔諸侄及其親知并皆
出迎其欣可知日午抵畿營賓館與上使書狀具官服詣
闕復命入侍後還家始於蒞行之日遙想周道原隰遼
遲而今焉旋復萬里反命抵家乃知兩雪楊柳即是俄
頃間事但遼薊風物惱於行役燕市繁華拘於見聞未能
盡領而盡記是可歎也

編者略歷

• 林基中

東國大學校 文科大學 國文科 教授

韓國文學研究所 所長

『朝鮮朝의 歌辭』, 『新羅歌謠와 記述物의 研究』,

『古典詩歌의 實證的 研究』, 『우리의 옛노래』,

『우리 歲時風俗의 노래』, 『高麗歌謠의 文學社會學』,

『佛敎歌辭1-5』, 『廣開土王碑原石初期拓本集成』,

『景幾體歌 研究』, 『韓國歌辭文學 研究史』,

『歷代歌辭文學全集1-50』, 『새로 읽는 鄉歌文學』,

『韓國文學의 이삭』, 『천재적인 바보』,

『佛敎歌辭原典研究』, 『佛敎歌辭研究』,

『燕行歌辭研究(近刊)』, 『燕行錄研究(近刊)』 등의 책을 펴냄.

燕行錄全集 92

2001年 10月 20日 初版 印刷

2001年 10月 25日 初版 發行

編者: 林基中

發行人: 宋錫球

發行處: 東國大學校 出版部



100-715 서울特別市 中区 筆洞 3街 26

Http ://home.dgu.ac.kr/~book/index.html

E-mail:book@dongguk.edu

Tel : 2260-3483~4

FAX : 2268-7851

出版登錄 第2-163号 (1973. 6. 28)

組版·印刷/龍知印刷(株) 718-3111~19

價格: 1帙 (100卷) 4,000,000원

ISBN 89-7801-202-7 93810

ISBN 89-7801-110-1 93810(세트)

